

행복 및 삶의 질 측정과 정책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

김성아
민기채·한수진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한수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24-36

행복 및 삶의 질 측정과 정책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인 강혜규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에코디자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ISBN 979-11-7252-053-3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4.36>

발|간|사

누구나 행복한 양질의 삶을 바란다. 사회정책은 우리 사회 구성원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낙오되지 않고 자신이 바라는 삶을 살 수 있는 복지 국가의 주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실업이나 질병, 고령 등 사회적 위험의 전통적인 양상은 산업화된 현대 자본주의 시대에서 변모하고 있다. 초개인화된 사회에서는 공동체가 해체되고, 물질적 삶의 여건을 넘어서는 다차원적인 삶의 질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복지국가를 재해석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국민 행복과 삶의 질이 사회정책의 목표로 직접 활용될 필요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행복에 대한 인식과 삶의 질 경험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사회 정책에 직접 활용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 연구는 다각적 관점에서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복과 삶의 질 측정 결과를 확보하고, 이를 사회정책 설계와 집행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는 김성아 부연구위원이 책임을 맡아 수행하였고, 민기채 교통 대학교 교수와 한수진 연구원이 공동 연구진으로 참여하였다. 한림대학교 최유석 교수와 이태진 선임연구위원은 연구 진행 과정에서 생산적인 자문 의견을 주었다. 끝으로, 이 연구의 결과는 연구진의 의견으로,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2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직무대리

강 혜 규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요 약	1
제1장 서 론	5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7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1
제2장 선행연구 검토	13
제1절 행복의 개념과 측정	15
제2절 행복과 삶의 질의 연관성	19
제3절 행복과 삶의 질의 활용	27
제3장 행복과 삶의 질 측정 조사실험	33
제1절 문제 제기	35
제2절 선행연구 검토	36
제3절 조사실험 설계 및 분석모형	38
제4절 조사실험 결과 분석	50
제5절 소결	66
제4장 2차 자료를 활용한 행복과 삶의 질 측정 신뢰성 검증	69
제1절 문제 제기	7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연령과 행복의 U자형 관계	72
제3절 분석자료와 분석모형	77
제4절 분석 결과	82
제5절 소결	101

제5장 정책 활용 사례: 뉴질랜드	103
제1절 웰빙 예산의 도입 배경과 경과	105
제2절 웰빙의 개념과 측정	109
제3절 웰빙 증진을 위한 정책 설계와 활용 사례	112
제4절 웰빙 증진을 위한 정책 평가	125
제5절 소결	139
 제6장 결론과 정책 활용 방안	 143
제1절 요약 및 결론	145
제2절 정책 활용 방안	147
 참고문헌	 159
 부 록	 177
[부록 1]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조사」 조사표	177
[부록 2]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조사」 IRB 승인 결과	185
[부록 3] 행복과 삶의 질 조사를 활용한 영향요인 분석	186
 Abstract	 195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1-1〉 행복과 삶의 질을 사회정책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과 쟁점, 보고서 구성	12
〈표 1-2〉 연구 내용과 방법	12
〈표 2-1〉 행복의 주요 영향요인	21
〈표 2-2〉 삶의 평가에 대한 SDGs 요소 및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25
〈표 3-1〉 조사실험 설계	40
〈표 3-2〉 조사 참여자의 모집단	41
〈표 3-3〉 조사 참여자 무작위 할당 과정	42
〈표 3-4〉 조사 집단별 무작위 할당 결과	43
〈표 3-5〉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2
〈표 3-6〉 조사 방법과 문항 순서가 삶의 만족 응답에 미치는 영향	58
〈표 3-7〉 조사 방법과 문항 순서가 삶의 평가 응답에 미치는 영향	59
〈표 3-8〉 조사 방법과 문항 순서가 어제 행복감 응답에 미치는 영향	60
〈표 3-9〉 조사 방법에 따른 행복 측정 응답값과 기댓값의 차이	62
〈표 3-10〉 문항 순서에 따른 행복 응답의 상관관계	63
〈표 4-1〉 분석자료별 행복과 삶의 질 측정 도구와 조사 방법	80
〈표 4-2〉 분석자료별 기초통계량	87
〈표 4-3〉 삶의 만족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영향	90
〈표 4-4〉 행복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영향	93
〈표 4-5〉 걱정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영향	96
〈표 4-6〉 우울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영향	99
〈표 5-1〉 뉴질랜드의 정권 변화와 웰빙 예산 연혁: 2019~2024년	107
〈표 5-2〉 뉴질랜드 웰빙 예산안 제목: 2019~2023년	109
〈표 5-3〉 뉴질랜드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대시보드의 웰빙 지표: 12대 웰빙 영역 및 4대 자본 (2019년)	119
〈표 5-4〉 뉴질랜드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대시보드의 웰빙 지표 : 2021년	124
〈표 5-5〉 뉴질랜드 웰빙 예산 목표 변화: 2019~2023년	127
〈표 6-1〉 행복 측정 결과의 경제적 활용을 위한 고려 사항	151
〈부표 1〉 행복과 삶의 질 조사를 활용한 영향요인 분석	186

그림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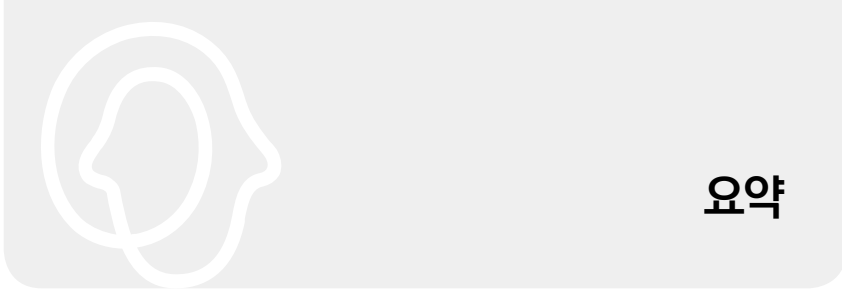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1-1] 한국인의 행복	8
[그림 1-2] 측정 도구 및 주체별 행복 점수 추이	9
[그림 2-1] 김성아 외(2021)의 삶의 질 지수체계	23
[그림 2-2] SDGs와 삶의 평가의 관계	24
[그림 2-3] 삶의 평가에 대한 SDGs 요소와 주관적 웰빙 결정요인의 관계	27
[그림 2-4] 사회적 위기와 삶의 만족	31
[그림 3-1] Benjamin, Cooper, Heffetz, Kimball, Zhou(2023)의 주관적 웰빙 조정 문항(CQs)	48
[그림 3-2] 조사 방법 및 문항 순서 무작위 할당 집단별 행복 응답 점수	56
[그림 3-3] 조사 방법에 따른 행복 측정 기댓값과 응답값의 차이	62
[그림 3-4] 소득 수준과 프레이밍 효과의 상호작용: 삶의 만족	64
[그림 3-5] 소득 수준과 프레이밍 효과의 상호작용: 삶의 평가	65
[그림 3-6] 소득 수준과 프레이밍 효과의 상호작용: 어제 행복감	65
[그림 4-1] 분석자료별 행복 측정 결과의 추세	84
[그림 5-1] 뉴질랜드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2018년	115
[그림 5-2] 뉴질랜드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2019년	117
[그림 5-3] 뉴질랜드 재무부의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2021년	121
[그림 5-4] 뉴질랜드 순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1997~2021년	129
[그림 5-5] 뉴질랜드 재생에너지 변화: 1997~2022년	130
[그림 5-6] 뉴질랜드 건강 상태 변화: 2012~2023년	131
[그림 5-7] 뉴질랜드 정신건강 변화: 2012~2023년	132
[그림 5-8] 뉴질랜드 성인 교육 성취도(고등교육) 변화: 2016~2023년	133
[그림 5-9] 뉴질랜드 시간당 급여 변화: 1998~2023년	134
[그림 5-10] 뉴질랜드 가처분소득 변화: 2007~2022년	136
[그림 5-11] 뉴질랜드 성인 교육 성취도(중등교육 이하) 변화: 2016~2023년	137
[그림 5-12] 뉴질랜드 아동 빈곤-물질적 곤궁 변화: 2013~2023년	138
[그림 5-13] 뉴질랜드 15세의 인지능력 변화: 2006~2022년	139



[그림 6-1] 아일랜드 2025년 삶의 질 재정운용계획 수립	153
[그림 6-2] WELLBY 모형에 의한 영국 15개 정책의 행복 개선 효과	156
[부그림 1]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사 결과	18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행복과 삶의 질 증진은 사회정책의 궁극적인 지향으로서, 국내외 다수의 공공정책은 국민들이 “행복(happiness)을 누리는 양질의 삶(quality of life)”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한국은 경제 발전 수준 대비 국민들이 누리는 행복 수준이 낮은 국가로 알려져 있고, 다차원적인 삶의 질은 불균형하게 발달해 있다. 모집단을 대표하는 서베이로 행복을 측정하지만 조사자료에 따른 추세를 설명하고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측정 결과의 타당성이나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추상적인 경험인 행복과 다차원적인 영역을 포괄하는 삶의 질을 측정한 결과를 사회정책 현장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정책 활용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철학, 심리학, 경제학 등에서는 ‘행복’에 대한 연구를 축적해 왔다. 종합하면, 행복은 단순히 불편하지 않거나 고통스럽지 않은 상태를 넘어 자족할 수 있는 삶의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추상적인 경험으로서 행복은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 수준, 최악의 상태와 최상의 상태 중 현재 삶에 대한 평가 수준, 정서적 측면을 반영하는 행복감 등의 방식을 통해 수치로 측정한다. 이 중에서 정서적 행복감 이외에 삶의 만족의 경험적 지표를 행복 측정의 표준적인 척도로 쓰는 반면, 삶의 평가는 인지적 평가를 반영하는 특성을 가진다. 다수의 문헌에서 다차원적인 삶의 질과 행복의 관계를 병렬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다차원적인 삶의 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처럼 일방향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서베이를 활용한 행복의 측정 결과를 오염시킬 수 있는 기제로서 조사 방법에 의한 모드 효과(mode effect)와 문항 순서에 의한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를 검증하기 위해 조사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자기응답식 조사보다 조사원에 의한 조사에서 행복 측정 결과가 일관되게 높았다. 문항 순서에 따라서는, 행복에 관한 문항이 가구와 개인 소득 문항에 뒤이어 제시되지 않고 가장 먼저 제시된 경우에 행복 측정 결과가 일관되게 높았다. 행복 척도의 응답값은 조사 방법이나 프레이밍 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측정 결과를 해석할 때 조사 설계를 고려해야 한다.

국내 전국 대표성을 가지는 반복 횡단면 조사(repeated cross-sectional data) 2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척도로 측정한 행복의 응답 결과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삶의 질 측정 결과 간의 통계적 관계는 일관성을 보였다. 즉, 대표성을 가지는 조사자료를 활용한다면, 행복과 삶의 질 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사 자료에 따라 행복 측정 결과의 수준이나 추세는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측정 결과를 해석할 때 조사 설계를 엄밀하게 고려해야 한다.

행복과 삶의 질 개념을 사회정책에서 활용한 사례로 뉴질랜드의 개정 재정법에 의한 웰빙 예산제(well-being budget)를 검토하였다. 재무부에 의한 차년도 재정운용계획에서 다차원적인 삶의 영역에서 생활 수준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영역의 정책에 재정을 우선 투입하고 있었다. 소수 민족이나 아동 등 삶의 질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재정사업은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설계,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정책 수행으로 인한 국민 혹은 표적 집단의 행복이나 삶의 질 개선 효과를 검증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한 한계가 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추상적인 개념인 행복과 다차원적인 삶의 질을 정책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측정 방법의 일관성이나 결과의 정책 활용 등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행복과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인구 집단인 목표 모집단, 즉 전 국민 혹은 정책의 표적 집단(target group)을 조사 대상으로 포괄해야 한다. 둘째, 특정 시점이나 계절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는 시점 및 주기가 일정해야 한다. 셋째, 조사의 응답 대상자 규모, 즉 유효 표본의 크기는 적절한 수준에서 확보해야 한다. 넷째, 조사 방법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 혹은 조사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마이크로 데이터로 제공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모드 효과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조사표를 설계하는 데에 있어 다양한 행복 측정 척도를 포함하면서도 프레이밍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여섯째,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행복 측정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행복과 삶의 질 측정 결과를 사회정책에 직접 활용하는 데에도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행복 수준이 현저히 낮은 취약계층 혹은 급격히 낮아지는 새로운 취약계층을 발견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 사회정책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단, 시의성 있는 취약계층 발견을 위해서는 조사 주기를 분기, 월, 혹은 주 단위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 행복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정책 설계와 운영이 필요하다. 다차원적인 삶의 질 영역에 따라 생활 수준이 보다 개선되어야 할 영역에는 더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새로운 취약계층이 발견될 경우, 이들을 표적하는 정책 개발과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행복 수준뿐만 아니라

4 행복 및 삶의 질 측정과 정책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

행복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는 행복 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재정과 행정력을 투입한 것 대비 정책 실행을 통해 개선된 국민 행복과 삶의 질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비용편익분석 혹은 비용 효과분석 등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중앙 정책 단위에서 행복 영향평가를 시도한 바는 없으므로, 향후 그와 관련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 용어 : 행복, 삶의 질, 측정, 타당성, 신뢰성, 정책 활용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행복과 삶의 질 증진은 사회정책의 궁극적인 지향으로서, 국내외 다수의 공공정책은 국민들이 “행복(happiness)을 누리는 양질의 삶(quality of life)”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한국전쟁 이후 압축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행복은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그림 1-1]의 A 참조).

최근 10년간 추이를 보면, ‘삶의 평가’로 측정하는 삶의 질은 6점 내외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시점에 따라 사회경제적 변화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1-1]의 B 참조). 세월호 비극이 있었던 2014년에 한국인의 행복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그 여파는 2015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전 지구를 뒤덮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한 2020년에 5.8점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2021년에는 6.1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다차원적 개념인 삶의 질의 핵심 구성요소이자 판정 기준이 되는 행복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은 관점과 측정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으로서 행복을 다루는 긍정심리학에서는 경험적 지표(experience-based indicator)로서 행복한 감정(feeling of happiness)에 주목하는 반면, 행복경제학에서는 평가적 지표(evaluative indicator)로서 삶에 대한 평가(life evaluation) 혹은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을 주로 활용한다(Easterlin, 2021, pp.7-17).

경험적 인식으로서 행복은 주로 서베이를 통해 측정하는데,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WVS)나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등 국내외 주요 서베이에서는 ‘삶의 만족’ 척도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Helliwell, Layard, & Sachs, 2023, p.17). OECD는 2023년 관련 개념과 서베이를 활용해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다종다양한 지표를 종합하여 가이드라인(OECD, 2013)을 작성한 10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쟁점과 정책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개선판(Mahoney, 2023)을 발간하였다.

[그림 1-1] 한국인의 행복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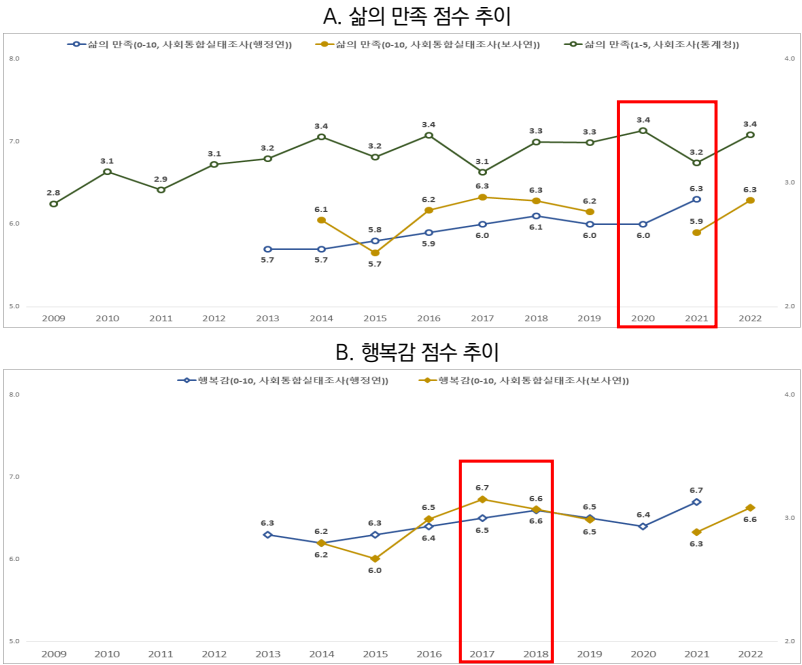
주: 슬로바키아와 튀르키예는 2021년 측정 점수임.

출처: “World Happiness Report 2023. NY: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Helliwell, J. F., Layard, R., Sachs, J. D., Akinin, L. B., De Neve, J. E., & Wang, S. 2023, <https://worldhappiness.report/data/>. 부록 및 자료의 Data for Table 2.1을 추출하여 저자 작성.

그런데 서베이에서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더라도 조사 설계에 따라 측정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한다([그림 1-2] 참조). 동일 연도에 동일 척도를 사용하더라도 점수의 수준이 상이하거나([그림 1-2] A의 2020년, B의 2017년 등), 다년간 점수 변화의 패턴이 상이하기도 하다([그림 1-2] A의 2020~2021년, B의 2017~2018년).

[그림 1-2] 측정 도구 및 주제별 행복 점수 추이

(단위: 점)



출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X):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이태진, 김동진, 박윤경, 이원진, 우선희, 김지원, 20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41-47 표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사회조사”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20R&conn_path=I3. 통계청;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한국행정연구원, (각 연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02&conn_path=I3. 한국행정연구원.

추상적인 행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다차원적인 삶의 질과 행복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해석할 것인가? 행복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측정 결과가 행복을 대표할 수 있는가? 같은 척도를 쓰더라도 조사에 따라 결과가 다른데 측정 결과 간 관계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주관적인 경험인 행복을 삶의 질 차원의 투입(input) 단위 설계 중심의 사회 정책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삶의 질 개선을 사회 정책 목표로 할 때, 이런 질문들을 마주하게 된다. 결국 사회정책의 성과 지표로서 행복과 삶의 질을 활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동의하지만 측정 결과가 신뢰할 만하고(reliability) 타당하다(validity)는 과학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실제로 성과 중심의 통합적 정책 평가(e.g.,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지향하더라도(관계부처합동, 2023, 보건복지부, 2024) 투입(input)과 산출(output) 중심의 정책 설계와의 괴리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행복과 삶의 질은 정책의 총체적 결과(outcome)로 실현될 수 있다. 행복과 삶의 질의 정책 활용을 위한 규범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쟁점은 그 활용 범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보장의 최종 성과지표로서 삶의 질 체계를 구성하는 행복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validity)과 신뢰성(reliability)을 확보함으로써 정책 활용성 제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행복과 다차원적 개념으로서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개념 타당성을 다학제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둘째, 조사 방법에 의한 모드 효과(mode effects)와 조사표 설계에 의한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s) 등 행복 및 삶의 질 측정 결과를 오염시킬 수 있는 기제의 존재를 조사실험을 통해 검증한다. 셋째, 2차 자료를 활용해 행복과 삶의 질 측정 결과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최종 성과로서의 국민 행복과

삶의 질을 사회정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측정 가이드라인 등 실질적 방안을 모색한다.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앞에서 제시한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탐색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개념 타당성, 기준 타당성, 신뢰성 검증, 정책 활용의 쟁점을 도출하고, 제2장부터 제5장까지 각 쟁점을 다룬다. 추상적인 행복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정의할 것인지, 혹은 다차원적인 삶의 질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해석할 것인지는 개념 타당성에 관한 질문으로, 이는 제2장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행복을 측정하는 방법과 측정 결과의 대표성을 담보하려면 기준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한다. [그림 1-2]와 같이, 동일한 척도를 쓰더라도 측정 결과가 상이한 경우 등 행복 측정 결과 간 관계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신뢰성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주관적인 경험으로서의 행복을 다차원적인 삶의 질과 연동하여 사회정책에서 활용하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12 행복 및 삶의 질 측정과 정책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

〈표 1-1〉 행복과 삶의 질을 사회정책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과 쟁점, 보고서 구성

질문	쟁점	보고서 구성
- 추상적인 행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 다차원적인 삶의 질과 행복 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해석할 것인가?	개념 타당성	제2장
- 행복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 측정 결과가 행복을 대표할 수 있는가?	기준 타당성	제3장
- 같은 척도를 쓰더라도 조사에 따라 결과가 다른데 측정 결과 간 관계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신뢰성	제4장
- 주관적인 경험인 행복을 삶의 질 차원의 투입(input) 단위 설계 중심의 사회정책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	정책 활용	제5장

출처: 연구진 작성

사회정책에서 행복과 삶의 질을 활용하기 위한 쟁점을 다루기 위한 장별 연구 내용 및 방법은 〈표 1-1〉과 같다. 제2장에는 행복의 개념과 측정, 그리고 다차원적인 삶의 질과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주로 문헌 연구 방법을 활용한다. 제3장에서는 행복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문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실험을 시도한다. 제4장에서는 행복 측정 결과에 미치는 삶의 질 요소의 영향을 중심으로 측정 결과 간 통계적 관계의 신뢰성을 검증하며, 이를 위해 전국 대표성을 가지는 2차 자료를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뉴질랜드의 웰빙 예산제를 중심으로 행복 개념을 실제 재정정책에 활용하는 사례를 심층 분석한다.

〈표 1-2〉 연구 내용과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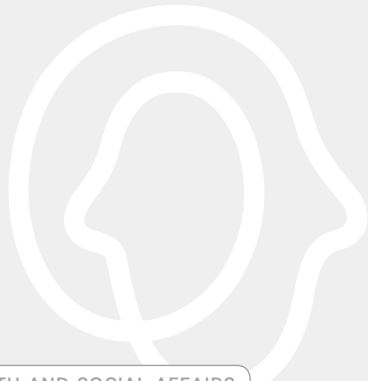
쟁점	연구 내용	연구 방법
개념 타당성	행복의 개념 및 측정과 삶의 질과의 관계	문헌 연구
기준 타당성	행복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검증	조사실험 및 분석
신뢰성	행복에 미치는 삶의 질 영향 경향의 일관성 분석	2차 자료 분석
정책 활용	행복 개념의 정책 활용 해외 사례 심층 분석	정책 사례 분석

출처: 연구진 작성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장

선행연구 검토

제1절 행복의 개념과 측정

제2절 행복과 삶의 질의 연관성

제3절 행복과 삶의 질의 활용

제2장 선행연구 검토

제1절 행복의 개념과 측정

‘행복’이라는 용어는 일상에서도 흔히 쓰지만, 정작 합의된 정의는 없다.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행복의 날을 기념해 매년 3월에 발간되는 「세계 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의 첫 간행물인 2012년 보고서에서도 경제적 진보를 측정하는 GDP의 한계에 대응하여 다차원적인 삶의 질을 포착하기 위해 ‘행복’ 혹은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이라는 개념을 쓰면서도 정의를 내리지는 않고 있다(Helliwell, et al., 2012).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근간을 두는 서양 윤리학에서는 행복을 ‘생활을 바람직하게 하며 또 아무 부족함이 없는 (자족적인) 상태’라고 정의하며, ‘궁극적이고 자족적인 것이요, ... 모든 행동의 목적’으로 보고 있다(아리스토텔레스, n.d./2007). 동양 철학에서는 행복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오복(五福)을 누리는 중용을 통해 서양 윤리학에서 말하는 행복과 비슷한 삶을 지향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행복을 “복된 좋은 운수”로 정의하고 있다(국립국어원, n.d.).

심리학에서 행복을 측정하는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SWB) 개념을 소개한 Diener 교수는 1984년 논문에서 그저 “최고의 선이자 인간 행위의 궁극적인 동기(the highest good and ultimate motivation for human action)”라고 하였다(Diener, 1984, p.542). SWB는 삶의 만족과 긍정적 정서 경험, 그리고 부정적 정서 경험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반면, 경제학에서 행복을 다루는 논의는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했다(Kahneman & Thaler, 2006).

Kahneman과 Thaler(2006)는 경제학에서 추구하는 가치인 효용(utility)을 결정 효용(decision utility)과 경험 효용(experienced utility)으로 구별한다. 전자는 현시 선호(revealed preference)로 드러나는 선택에 주목하는 반면, 후자는 최종 결과물(outcome)에 대한 쾌락적 경험(hedonic experience)을 반영한다(Kahneman & Thaler, 2006).

경험 효용은 인간 행위가 고통스러운 불편함을 축소하고 만족스러운 행복을 극대화하는 데에 기인한다는 벤담의 공리주의에 또 다른 철학적 기반을 둔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행복은 생존의 가능성을 높이는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 서은국(2021)은 생명의 위험을 가중시키지만 유전자를 후세대에 남기는 데에 이로운 공작새의 꼬리처럼 인류가 살아 남는 데에 성공한 안전한 선택을 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일 수 있다(서은국, 2021).

행복에 대한 합의된 정의를 찾기 어렵지만, “생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자족적인) 상태’”를 행복이라 정의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여전히 유효하다.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오복을 누리는 중용의 삶 또한 자족적인 상태로서의 행복과 닮았다.

그러나 여전히 추상적인 행복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행복한 정서, 삶의 만족, 삶의 의미(eudaimonia) 등 다양한 용어들이 쓰인다. Boniwell et al.(2013)은 행복에 관한 문헌을 집대성하면서 긍정적인 정서에 주목하는 헤도닉 관점(hedonic approach)과 성장과 삶의 의미를 평가하는 유다이모닉 관점(eudaimonic approach)을 구분하였다. 전자는 행복한 정서를, 후자는 삶의 만족과 의미에 대한 평가에 방점을 둔다. OECD(2013, pp.253-255)에서 발표한 SWB를 측정하는 가이드라인에서도 핵심 문항으로 삶의 만족과 삶의 의미, 그리고 행복하고 걱정하고 우울한 정서를 제안하였다. 세계행복보고

서에서는 캔트릴 사다리로 측정하는 삶의 평가(life evaluation) 값을 주로 활용한다(Helliwell, et al., 2012). 행복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은 자기보고식 응답을 전제로 한 것이다.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르면(OECD, 2013, pp.253-255), 삶에 만족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기 위해 ‘귀하는 전반적으로 귀하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만큼 만족하십니까?(Overall, how satisfied are you with life as a whole these days?)’라는 질문에 대해 일반적으로 최소 0점부터 최대 10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다. 삶의 의미를 측정하는 질문은 ‘귀하는 전반적으로 귀하의 삶이 얼마만큼 의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Overall, to what extent do you feel the things you do in your life are worthwhile?)’이고, 최저 0점부터 최대 10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를 쓴다. 정서는 ‘어제 얼마만큼 행복했습니까?(I will now read out a list of ways you might have felt yesterday. How about happy?)’, ‘어제 얼마만큼 걱정했습니까?(How about worried?)’, ‘어제 얼마만큼 우울했습니까?(How about depressed?)’라고 질문하고 역시 최저 0점부터 최대 10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를 쓴다.

삶의 평가는 캔트릴 사다리 척도를 이용한다(Cantril, 1965). 축약형으로서 ‘바닥이 0점이고 꼭대기가 10점인 사다리를 상상하세요. 사다리의 꼭대기는 당신의 삶에서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고, 사다리의 바닥은 당신의 삶에서 최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재 당신은 그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lease imaging a ladder with steps numbered from 0 at the bottom to 10 at the top. The top of the ladder represents the best possible life for you and the bottom of the ladder represents the worst possible life for you. On which step of the ladder would you say you personally feel you stand at this time?)’의 리커트 척도를 쓴다(OECD, 2013, pp.255-257).

정서적 접근이나 평가적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행복의 측정 결과는 신뢰성과 일관성을 가진다(Diener, 1984, p.551). 하지만 여전히 경험으로서의 행복이 주어진 정보에 의해 결정된다면, 행복의 측정 결과와 참값과 비일관적일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경제학에서 행복에 대한 논의의 계기가 경제적 합리성이 개개인의 삶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실제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Kahneman과 Tversky가 공동으로 수행한 일련의 연구들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Tversky & Kahneman, 1974; Kahneman & Tversky, 1979; Tversky & Kahneman, 1981), 인식 지표는 사회경제지표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Diener & Suh, 1997).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는 ‘행복’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응해 삶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개념과 혼용해 측정하기도 한다(Diener, 1984, p.549).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행복에 대한 논의에 비해 삶의 질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20 세기의 일이다. 후생경제학자 피구가 생계를 위한 노동의 환경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한 것에서 시작되었다(Pigou, 1929, 한준 외, 2014, p.4 재인용). 삶의 질 개념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좋은 삶, 행복, 혹은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그리고 삶의 질 개념이 서로를 대체하는 듯 혼용되기도 하지만, 삶의 질이 행복과 연관되는 방향은 시간의 흐름을 두고 상호적이다.

행복이 기질에 의해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만(Weiss, et al., 2008), 유전적 요인 외의 상황은 변화시킬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Diener, 1984, p.551). 그런 점에서 다차원적 영역을 포괄하는 삶의 질 개념과 행복은 구별되지만 불가분의 관계이다(Diener & Suh, 1997). 그렇다면 행복과 삶의 질 개념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거나 우위를 점할 것을 상관성이 높은 별개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종합

하면, 행복을 측정하는 삶의 만족, 삶의 평가, 삶의 의미, 행복감 등의 인식 지표는 다차원적인 삶의 영역을 측정하는 사회경제 지표와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되 삶의 질이 행복을 통해 구현되는 방향을 전제한다.

제2절 행복과 삶의 질의 연관성

1. 개인 단위 행복과 삶의 질의 연관성

개인이 경험하는 행복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누적되고 있다. 쌍둥이 연구에서 유전적 요인이 행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Weiss, et al., 2008), 성별이나 연령 등 인적 속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Blanchflower & Oswald, 2016; Blanchflower, 2021; Clark et al., 2021; Brakus et al., 2022; Namazi, 2022), 여전히 변화의 여지가 있는 다양한 변인이 확인되고 있다(Diener, 1984).

〈표 2-1〉에서 주요 문헌에서 확인되는 행복의 영향요인을 종합하였다. 개별 연구의 범위와 자료의 이용 가능성에 따라 영향요인의 구성이 다르지만 다차원적인 삶의 질을 아우르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요인이 존재한다. Diener(1984, pp.552-564)가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분류한 행복 영향요인의 범주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수 있는 요인은 소득이다. 높은 소득 혹은 높은 자산의 경제력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money can’t buy happiness)’, 소득이 많을수록 행복 수준이 높아진대거나 경제적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두 번째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서 나이, 성별, 교육 수준, 종사상 지위, 결혼과 가족 등이 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행복 점수가 높다거나

(Brakus et al., 2022; Namazi, 2022), 주요 선진국에서 연령에 따른 행복 점수가 증장년 시기에 최저점을 보이는 U자형을 띠거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종사상 지위가 안정될수록 행복 점수가 높고, 결혼한 경우 미혼자나 이혼, 별거, 사별한 경우에 비해 행복 수준이 높기도 하다.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 행복 점수가 높을 수 있지만, 양육 경험은 간혹 행복 점수를 낮추기도 한다(Stone, et al., 2006).

세 번째는 행태적 성과인데, 사회적 교류, 사회적 지지체계, 생애 사건 등이다. 사회적 교류나 도움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가 결핍된 고립의 상황이 행복을 저해한다거나(김성아, 2022; 김성아 외, 2024), 결혼이라는 생애 사건이 행복을 유의미하게 높이기도 하고 이혼이나 가까운 이의 죽음과 같은 부정적인 사건이 행복 수준을 낮추기도 한다(Graham & Oswald, 2010). 그러나 사회적 관계 자체가 행복과 관련되는 양상이 희박한 것은 아니다. 물질적, 정서적 지지체계가 되기도 하지만 자신을 비하하는 비교 대상이라는 양면적 특성을 가진다(한준 외, 2014; Coplan et al., 2018).

네 번째는 성격 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 외향성, 지능, 성적 취향 등을 검토했다. 성격 요인은 그 자체로서 행복에 의미가 있다기보다 사회적 관계를 양산하거나 문제 경험을 내재화하기보다 외현화함으로써 행복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마지막 생물학적 요인으로 건강과 수면의 질의 영향을 실증하는 연구도 있다. 건강할수록 행복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수면의 질이 낮으면 행복과 삶의 질을 낮추기도 한다(Iliescu et al., 2003, Dinis & Bragança, 2018, Giuntella, et al., 2023).

〈표 2-1〉 행복의 주요 영향요인

요인	Kahneman & Deaton (2010)	Fleche, Smith, & Sorsa (2011)	Graham, Higuera & Lora (2011)	Teeselink & Zauberman(2023)
단위	개인	OECD 가입국의 개인	남아메리카 18개국 개인	개인
행복의 측정변수	삶의 평가 (0~10)	삶의 만족 (1~10)	삶의 만족 (0~10)	삶의 평가 (0~10)
성별(여성)	+	n.s.	+	+
연령	+	-	U	U
	(60세 이상)			
건강	- (비만, 질병, 두통)	+	+ (EQ5D)	+
유배유자	+	+	n.s.	+
유자녀	-	+	n.s.	n.s.
높은 교육 수준	+ (대졸)	+		+
높은 소득	+	+	+	+
높은 자산			+	
실업 경험		-		-
돌봄 부담	-			
사회적 관계	- (교류 없음)	+ (친구)	+ (친구)	
사회신뢰 인식		+		
선택의 자유		+		
물가인상률		-		
사회안전망	+ (건강보험)			
데이터	미국 Gallup-Healthways Well-Being Index, 2008-2009, n=450,000	World Values Survey, 1994-2008	남아메리카, Gallup World Poll, 2007, n=14,000	미국 Gallup-Sharecare Well-Being Index, 2008-2019, n=3,717,497

주: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n.s.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영향을, U는 아래가 블록한 이차함수 형태의 영향을 의미함. EQ5D는 건강 관련 삶의 질 척도로 운동 능력(mobility), 자기 관리(self-care), 일상활동(usual activities), 통증/ 불편(pain/discomfort), 불안/우울(anxiety/depression)의 하위 요소로 구성됨. 빈칸은 해당 요인을 미검토한 경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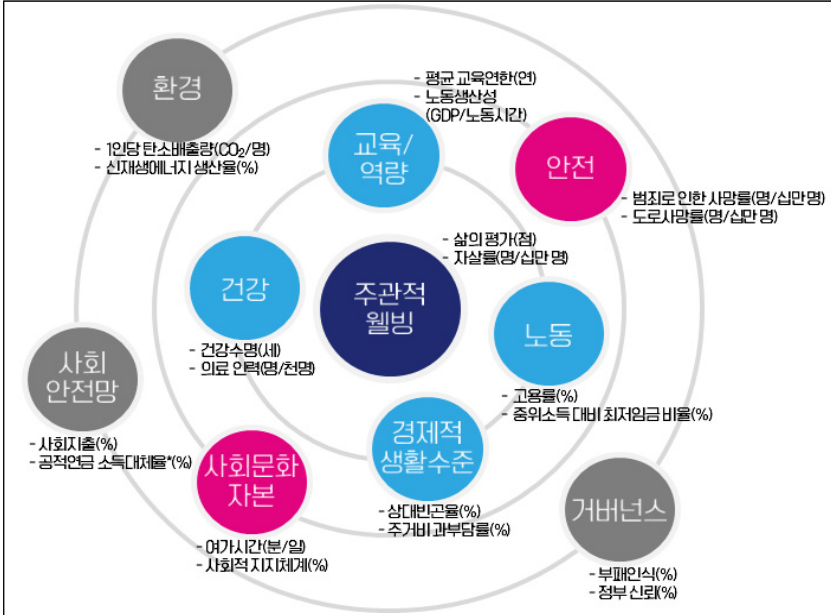
출처: “Exploring Determinants of Subjective Wellbeing in OECD Countries: Evidence from the World Value Survey”, Fleche, S., C. Smith and P. Sorsa, 2011,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921, OECD Publishing; “High income improves evaluation of life but not emotional well-being”, Kahneman, D., & Deaton, A., 2010,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7(38), 16489-16493; “Which health conditions cause the most unhappiness?”, Graham, C., Higuera, L., & Lora, E., 2011, Health economics, 20(12), 1431-1447; “The Anna Karenina income effect: Well-being inequality decreases with income”, Teeselink, B. K., & Zauberman, G., 2023,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212, 501-513.

각각의 요인은 배타적으로 작동하기보다 상호보완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어떤 요인이 행복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주장은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그 요인의 영향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전제를 내재하는 것이다. 또한 각각의 요인은 평균적인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다. 개별 요인이 작동하는 방식이 절대적이라기보다 검증된 이론에 따라 작동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개인 단위 행복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삶의 질의 요인들이 균형을 유지하며 보장될 필요가 있다.

2. 국가 단위의 행복과 삶의 질의 연관성

국가 단위에서 국민들의 평균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인 삶의 질의 영역을 검토하는 연구도 있다. 세계행복보고서는 약 150개 국가를 대상으로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서 1인당 GDP, 도움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 건강수명, 선택의 자유, 기부 경험, 부패 인식의 요인을 다룬다(Helliwell, et al., 2024). 김성아 외(2021)는 OECD 주요국의 사회적 진보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삶의 질 지수체계를 개발하면서, 주관적 웰빙(SWB)을 중심으로 미시 차원의 건강과 교육 및 역량, 노동, 경제적 생활 수준, 중간 차원의 사회문화 자본과 안전, 거시 차원의 거버넌스와 사회안전망, 그리고 환경을 고려하였다. 세계행복보고서와 김성아 외(2021)의 접근은 공통적으로 개인의 집합으로서 국가 단위의 행복에 미치는 다차원적인 삶의 질 요인의 영향력의 방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림 2-1] 김성아 외(2021)의 삶의 질 지수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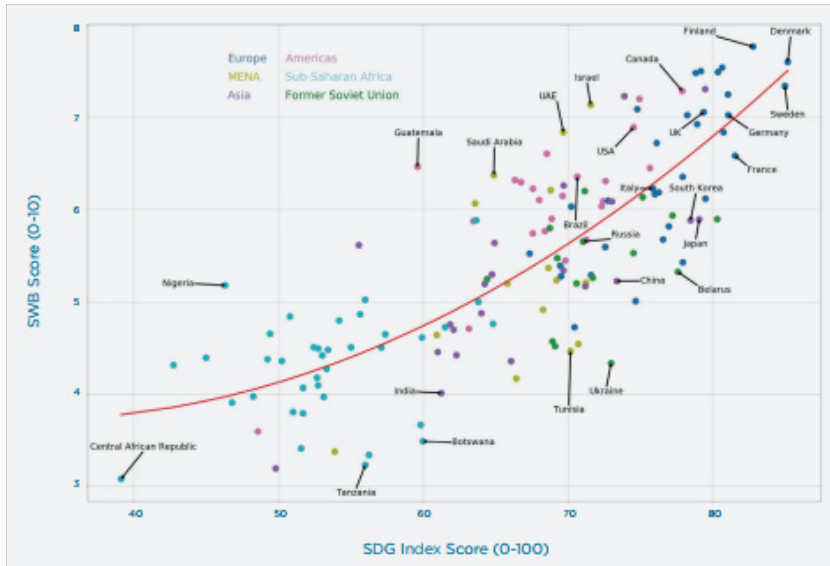
출처: “국가사회 발전 측정을 위한 삶의 질 지수 개발”, 김성아, 이태진, 채수미, 유한별, 정소희, 남재현, 심수진, 20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61.

그밖에 국가 단위 행복과 다차원적인 삶의 질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검토할 수 있다. De Neve와 Sachs(2020)는 ‘삶의 평가’로 측정하는 행복과 SDGs 영역별 지수 간 관계를 실증분석했다. 두 요인 간의 상관계수는 0.79 정도로 높고, 2차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다(De Neve & Sachs, 2020, p.115). 이는 국가 단위의 다차원적 삶의 질과 행복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을뿐더러 삶의 질이 증가할수록 행복 증진에 대한 한계효과가 점증한다는 의미이다.¹⁾ 1인당 GDP의 경제성장 수준이나 SDGs뿐만 아

1) 반면, 긍정적인 정서나 부정적인 정서로 측정하는 행복과 SDGs 지수 간 관계는 선형이다. 즉, 행복을 개념화하고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 삶의 질과의 관계가 상이할 수 있다(De Neve & Sachs, 2020, p.115, pp.128-133).

나라 환경보호지수(Environmental Protection Index, EPI)의 다차원적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수는 행복 측정 결과와 유의미한 양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De Neve & Sachs, 2020, pp.117-118).

[그림 2-2] SDGs와 삶의 평가의 관계



주: SWB는 0~10점 범위의 캔트릴 사다리 척도로 측정하는 삶의 평가이고, 원자료는 갤럽 월드 폴 (Gallup World Poll)임. SDGs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를 활용한 지수로 Sachs et al.(2019; De Neve & Sachs, 2020에서 재인용)에 근거를 둔. 유럽과 중동,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아메리카대륙, 아시아 국가 및 체제전환국가를 포함함.

출처: “World Happiness Report 2020 - chapter6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uman Well-Being”, De Neve, J., & Sachs, 2020,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p.116.

SDGs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 또한 국민의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SDGs는 17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음 <표 2-2>는 ‘삶의 평가’로 측정하는 행복에 대한 요소별 상대적 중요도를 보여주고 있다. ‘산업, 혁신과 사회기반시설’ 및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이라는 경제 영역을 구성하는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가 10% 이상으로 큰 편이다. 환경

영역의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은 11%, ‘깨끗한 물과 위생’, ‘적정한 청정에너지’의 상대적 중요도도 7~8% 정도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 사회의 기반 시설이 행복의 기본 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빈곤이나 기아 종식, 양질의 교육과 성평등, 평화나 정의와 제도 등 사회 및 법 영역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가 6% 수준으로 확인된다.

〈표 2-2〉 삶의 평가에 대한 SDGs 요소 및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 전체 요소별 상대적 중요도 〉		
요소	상대적 중요도(%)	영역
1. 빈곤 종식 (No poverty)	6	사회
2. 기아 종식 (Zero Hunger)	6	환경
3. 건강과 웰빙 (Good Health and Wellbeing)	9	건강
4. 양질의 교육 (Education)	6	경제
5. 성평등 (Gender Equality)	6	사회
6. 깨끗한 물과 위생 (Clean Water and Sanitation)	8	환경
7. 적절한 청정에너지 (Affordable and Clean Energy)	7	환경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11	경제
9. 산업, 혁신과 사회기반시설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13	경제
10. 불평등 감소 (Reduced Inequalities)	2	사회
11.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5	환경
12.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11	환경
13. 기후변화 대응 (Climate Action)	3	환경
14. 해양 생태계 (Life Below Water)	0	환경
15. 육상 생태계 (Life on Land)	0	환경
16. 평화, 정의와 제도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6	법
17. SDGs를 위한 파트너십 (Partnership for the Goals)	1	기타

〈 주요 국가군에 따른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 〉

영역(요소)	상대적 중요도(%)						
	전체	미대륙	유럽	아시아	중동 북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체제 전환국
경제 (4,8,9)	31	16	34	29	34	31	54
사회 (1,5,10)	20	12	23	20	12	32	8
법 (16)	17	19	24	26	17	6	3
환경 (2,6,7,11,12,13,14,15)	8	10	1	4	13	25	9
건강 (3)	24	43	18	21	24	6	26

주: 상대적 중요도는 갤럽 월드 폴(Gallup World Poll)을 원자료로 0~10점 범위의 칸트릴 사다리 척도로 측정하는 삶의 평가 점수의 분산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SDGs 요소별 설명력(R²)임. 17개 요소의 국문명은 UNDP 서울정책센터 홈페이지(<https://www.undp.org/ko/policy-centre/seoul/sustainable-development-goals>)에서 2024.4.10. 검색한 결과임. 영역은 자료 p.12 2의 그림 6.3에서 제시된 연구자의 분류에 따르며, “17.SDGs를 위한 파트너십”은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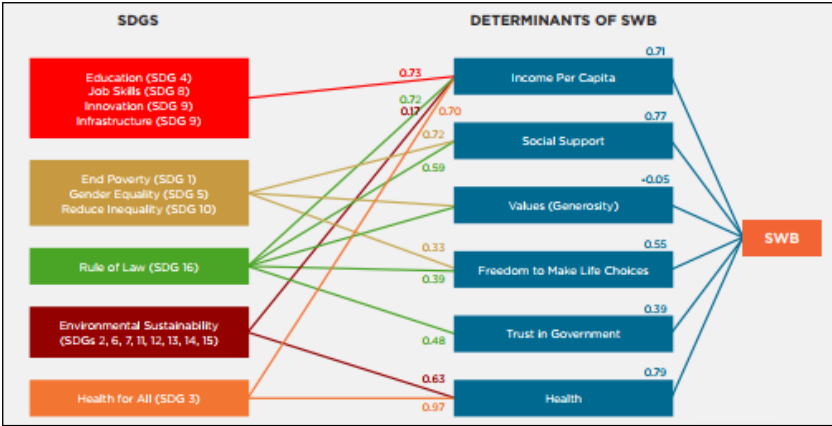
출처: “World Happiness Report 2020 - chapter6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uman Well-Being”, De Neve, J., & Sachs, 2020,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pp.121-123의 그림 내용을 저자가 재구성함.

SDGs의 구성 요소별 행복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국가군별로 보면, 건강 영역의 중요도가 43%에 이르는 미대륙을 제외하고 유럽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특히 체제전환국에서 경제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가 다른 영역의 요소들에 비해 가장 크다. 유럽이나 아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법 영역과 사회적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가 큰 반면, 개발도상국이 다수 포진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환경 요소가 크게 나타나 국가별 여건에 따라 우선 주목해야 할 사회경제적 여건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지표 간 관계를 설정했을 때, SDGs 구성 요소가 즉시 국민들의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림 2-3]은 SDGs 구성 영역의 요소들이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주목하는 6개 요인을 중심으로 1인당 GDP, 도움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 기부로 드러나는 관용성, 선택의 자유, 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건강을 매개하여 행복과 관련되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영역은 1인당 GDP와 상관성이 높고, 사회적 영역은 지지체

계와 관용, 그리고 선택의 자유와 상관성이 높다. 법 영역은 1인당 GDP와 지지체계, 관용, 선택의 자유,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와, 환경 영역은 1인당 GDP와 건강과 유의미한 상관성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건강은 건강 지표와 함께 1인당 GDP와 유의미하게 상관되어 있다.

[그림 2-3] 삶의 평가에 대한 SDGs 요소와 주관적 웰빙 결정요인의 관계



주: SWB는 0~10점 범위의 캔트릴 사다리 척도로 측정하는 삶의 평가이고, 원자료는 갤럽 월드 폴 (Gallup World Poll)임. SWB 결정요인은 세계행복보고서에서 행복의 설명변수를 범주화한 것임.

출처: “World Happiness Report 2020 - chapter6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uman Well-Being”, De Neve, J., & Sachs, 2020,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p.124.

제3절 행복과 삶의 질의 활용

사회정책에서 행복과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국민이 누리는 행복, 혹은 국민총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다. 복지, 혹은 좋은 삶의 개념을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중심의 경제적 관점에서 개인의 경험적 효용

으로서 '행복'으로 확장하였다(Di Tella & MacCulloch, 2006). 이는 행복이 횡단적인 소득으로 결정되는 함수가 아니라 결핍이 없는 양질의 생활을 누리는 삶의 다차원적인 영역에 의한 종단적인 다항함수라는 사실을 정책 현장에서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사회갈등이 행복을 저해하는 경로에서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요인보다 비경제적 요인이 더 크다는 Welsch(2008)의 발견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다차원적인 삶의 영역에서 행복 수준을 증진하려는 정책 노력은 행복의 영향요인을 식별하고 개선하려는 시도와 관련된다. 예를 들어, 소득이 높을수록 정서적 경험으로서의 행복감보다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을 반영하는 삶의 만족 수준이 증가한다(Kahneman & Deaton, 2010). 하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행복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를 행복의 포만점(satiation point)이라고 한다(Jebb et al., 2018). Jebb과 그의 동료들(2018, p.34)은 갤럽 월드 폴 자료를 이용해 소득의 포만점을 실증하였다. 164개 전체 국가에서 삶의 만족 수준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소득의 포만점은 연간 95,000달러였고,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는 110,000달러였다. 논문이 발표된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균등화 평균 처분가능소득이 3,210만 원이었다는 점과 당시 환율을 고려하더라도(통계청, 2022.12.1.) 동아시아의 소득 포만점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여전히 국민소득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이 정책의 목표로서 유효할 수 있다.

한편, 총행복을 증진한다는 것은 행복의 분배 혹은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과도 관련된다. 예를 들어, 안나 카레니나 효과는 “행복한 가정은 모두 서로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각기 달리 불행하다”는 것이다(Teeselink & Zauberman, 2023). Teeselink과 Zauberman(2023)은 2008년과 2019년에 3,717,4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갤럽 서로 돌봄 웰빙 지수(Gallup-Sharecare Well-Being Index, GSWBI)를 이용해 소득이 낮은

집단이 행복 수준 낮고 행복 분산은 높은 현상을 실증하였다. Morris와 그의 동료들(2021)은 호주의 가계경제패널데이터(HILDA)를 분석해 소득 불평등이 행복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한국의 맥락에서도 유효하다(정해식, 김성아, 2019). 결국 국민총행복에 관심을 가지는 공리주의적 관점에 정의론적 관점을 결합해,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소득보장으로 행복 취약계층의 행복을 증진하려는 정책 과제로 귀결된다.

두 번째는 행복을 증진하거나 감소하는 비용의 관점에서 정책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일례로 몇 가지 문헌에서 행복한 사람이 생산성이 더 크다는 사실이 검증되었다(Oswald et al., 2015; Fogaça & Junior, 2016). 조직원의 행복과 노동생산성 간의 관계는 실험설계를 통해 인과성이 검증되었다(Oswald et al., 2015). 그리고 일터에서 구성원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조의 조절 기능이 작동해야 한다(Fogaça & Junior, 2016). 조직 구조는 위계와 권위, 자율성, 공식적 업무 분담 체계와 물리적 인프라 등 공식적 측면과 비공식적 측면을 포괄한다(Fogaça & Junior, 2016, p.156). 이러한 결과는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원의 행복 수준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조직 구조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개별 정책에 대해 Gruber와 Mullainathan(2006)은 미국과 캐나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행복 데이터를 결합하여 담뱃세의 영향을 실증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담뱃세는 과거 혹은 현재 흡연자의 행복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비흡연자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행복을 증진하였다. 이는 사회 전반적인 행복 수준을 높이는 데에 담뱃세가 유용할 수 있음을 지지한 것이다.

비자발적인 실업 경험이 개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의 행복을 저해할 수 있으며 그 부정적인 영향은 장기적으로 상흔을 남긴다(Clark & Oswald, 1994; Wilkelmann & Wilkelmann, 1995; Cullen & Gru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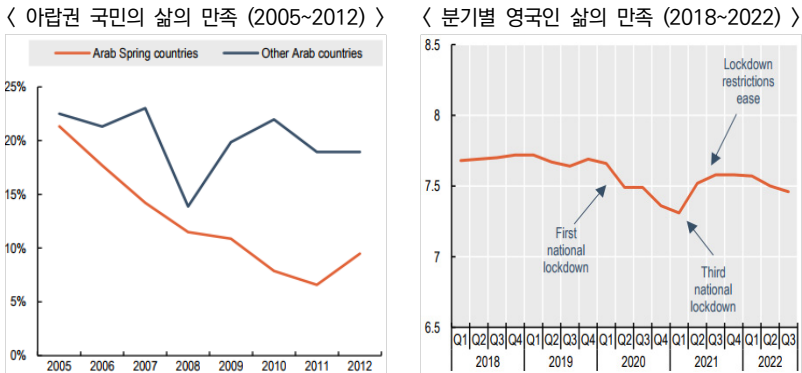
2000; Clark et al., 2001; Clark, 2003; Di Tella et al., 2003; Nicholson & Needels, 2006; Kassenboehmer & Haisken-DeNew, 2009; Knabe & Rätzl, 2011; Young, 2012; Nikolova & Nikolaev, 2018).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직접 대응하는 고용보험은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한 행복 감소를 완화하였다(Acemoglu & Shimer, 1999; Engen & Gruber, 2001; Nicholson & Needels, 2006; Røed, K. & Westlie, 2012; Card et al., 2015; Farber et al., 2015; Chaffin & Corder, 2018). 그렇다면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실업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완하는 생계유지의 기능뿐만 아니라 행복 저해에 대한 완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캐나다 퀘벡에서 실시된 보편적 아동 돌봄 프로그램(Universal Child Care Program)은 여성의 노동 공급을 개선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낮추는 단기 효과뿐만 아니라 돌봄을 받은 아동의 인지적 기능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만족 수준이 높아지며 범죄율 감소와 같은 장기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Baker et al., 2008; Baker et al., 2019).

마지막은 사회경제적 변화의 선행요인(antecedent) 혹은 예측 변인(predictor)으로 행복 추세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Mahoney (2023)는 OECD에서 2013년에 발간한 주관적 웰빙 측정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면서, 아랍의 봄에 선행한 삶의 만족 추세에 주목하였다. 아랍의 봄은 2010년 12월에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다. 심화하는 부의 불평등과 부패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축적되며 발생한 사전이다. 다음의 왼쪽 그림을 보면, 전반적으로 세계금융위기 시점인 2008년까지 아랍권 사람들과 아랍권 이외 지역 사람들의 삶의 만족 수준이 감소하였다. 그런데 2009년부터 아랍권 이외 지역 사람들의 삶의 만족 수준이 이전만큼 회복한 데에 비해, 아랍권 사람들의 삶의 만족 수준은 계속해서 감소하다가 2012년에야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

오른쪽 그림에서는 2018~2022년에 분기별로 조사한 영국인의 삶의 만족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7.5점을 중심으로 비교적 평탄한 수준인데, 팬데믹으로 인한 도시봉쇄(lockdown)을 기점으로 삶의 만족 수준이 즉시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삶의 만족 감소가 도시봉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은 도시봉쇄가 완화되었을 때 삶의 만족 수준이 회복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국민이 누리는 삶의 만족, 즉 행복 수준의 추세는 다른 사회경제 지표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사회적 사건 혹은 사회적 영향의 방향을 예측하는 변인이 될 수 있다.

[그림 2-4] 사회적 위기와 삶의 만족



출처: “Subjective Well-Being Measurement: Current Practice and New Frontiers”, Mahoney, 2023, OECD Papers on Well-Being and Inequalities, Paris, OECD Publishing, p.18, p.24.

행복은 개인들의 행태를 통해 집단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선거 결과는 국민의 행복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Pinto와 그의 동료들(2021)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주목하여 정당 성향에 따른 개인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특히 2016년과 2012년 대통령 선거 결과가 생활 만족도 및 쾌락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패배한 정당 지지자들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선거 결과는 소득, 성별 및 인종

에 따라 다양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2016년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밝혀졌다(Pinto et al., 2021, Kimball et al., 2024).

행복 수준은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데에도 유효한 변수로 작동한다. Ward와 그의 동료들(2021)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행복 혹은 불행과 투표 간의 관계를 분석한 바 있다. 이들은 삶의 평가,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그리고 삶의 목적으로 측정하는 응답자의 행복 수준이 2016년 미국 대선 결과를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임을 밝혔다. 이로써 위기에 대한 불만이나 포퓰리즘 후보 지지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며, 불만의 심리적 경로로서 행복, 특히 불행 수준이 선거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Ward et al., 2021, Kimball et al., 2024)고 했다.



제3장

행복과 삶의 질 측정 조사실험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조사실험 설계 및 분석모형

제4절 조사실험 결과 분석

제5절 소결

제3장 행복과 삶의 질 측정 조사실험

제1절 문제 제기

사회정책의 성과지표로서 행복과 삶의 질을 활용해야 하는 당위성은 인정되는 바이다. 하지만 측정 결과가 신뢰할 만하고(reliability) 타당하다(validity)는 과학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신뢰성은 측정 결과의 일관성을 말하고, 타당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의 정확성을 말한다(Ahmed & Ishtiaq, 2021). 이 중 타당성은 측정 내용이 개념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개념 타당성(content validity), 측정 도구가 측정하려는 바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기준 타당성(criterion validity)으로 구별할 수 있다.²⁾

이 장의 목적은 조사실험을 통해 사회보장의 최종 성과지표로서 삶의 질 체계를 구성하는 행복을 측정하는 데 있어 타당성(validity)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사 방법에 의한 모드 효과(mode effects)와 조사표 설계에 의한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s) 등 행복 및 삶의 질 측정 결과를 오염시킬 수 있는 기제의 존재를 조사실험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2) 그 밖에 측정 도구나 측정 결과가 당초 측정하려는 개념의 구성을 얼마만큼 정확히 측정하는지에 대한 구성 타당성(construct validity) 등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논외로 함.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베이를 통한 경험적 인식 측정 결과는 조사 방법에 의한 모드 효과(mode effects)나 측정 도구 설계에 의한 프레임링 효과(framing effects) 등에 의해 오염될 수 있으며, 이는 측정 결과의 기준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다. 첫째, 모드 효과는 면접원에 의한 대면조사, 조사원에 의한 비대면 전화조사, ARS 방식의 비대면 전화조사, 자기응답식 온라인 조사 등 다양한 조사 방법에 의한 응답 결과의 차이를 말한다(백지선 외, 2017).

조사 방법에 따른 모드 효과는 선택 효과(selection effects)와 측정 효과(measurement effects)에 기인할 수 있다(Vannieuwenhuyze et al., 2010), 선택 효과는 응답자들이 자신이 응답하기에 수월한 방식이 아니라면 응답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말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기 활용을 어려워하는 경우, 온라인 조사에 응답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측정 효과(measurement effects)는 조사 방법에 따라 측정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사회적 바람직성이 내재된 질문의 경우, 면접에 의한 조사 방법을 채택한다면 조사원 앞에서 실제 인식을 반영하는 참값이 아닌 바람직성을 고려한 기댓값을 응답할 수 있다.

다수의 국내 연구에서도 바람직성이 내재된 질문에서 모드 효과의 발생 가능성이 확인된다(백지선 & 민경아, 2016; 백지선 외, 2017; 조성겸 외, 2021; 최지영 & 이명진, 2021). 백지선과 민경아(2016)의 연구에서는 자기기입식 종이 조사표 조사와 온라인 웹조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조사실험에서 종이 조사표 조사의 응답자의 경우 웹조사 응답자보다 결혼 선택에 우호적이거나 이혼에 대해 거부하는 응답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혼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웹조사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디지털 방식에 익숙한 젊은 연령층이 온라인 조사 방식을 선호했을 가능성과 관련되었을 수 있다(백지선, 민경아, 2016).

백지선 외(2017)는 자기응답식 온라인 웹조사와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를 병행했다. 대상자를 19~57세의 인터넷 이용자로 설정하고, 조사 방법에 따른 실험집단 간 동질성을 사전 사후 검사하였다. 조사실험 결과, 부모나 결혼, 자녀관계 등 가족에 대한 질문에서 측정 효과가 확인되었다.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에서는 무난한 응답을 하는 반면, 자기응답식 온라인 웹조사에서는 비교적 극단적 응답이나 물질적 선호를 선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백지선 외, 2017).

조성겸 외(2021)는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원에 의한 전화 면접 조사와 자기응답식 모바일 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 방법에 의한 선택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동일한 조사 대상에게 전화조사와 모바일 조사를 순차적으로 시행하였다. 다만, 조사 방법에 따른 순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무작위로 할당한 집단에 조사 방법의 순서를 달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조사실험 결과에서 조사원에 의한 전화조사에 비해 자기응답식 모바일 조사에서 극단적인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을 재차 확인하였다(조성겸 외, 2021).

최지영과 이명진(2021)은 아동학대 인식과 경험에 대해 1,540명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대표성을 가지는 대규모 설문조사에서 조사원 대면 조사와 자기응답식 온라인 웹조사를 병행해 조사 방법에 따른 응답 특성을 비교하였다. 아동학대 행위 유형 중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원의 대면조사와 웹조사에서 응답 결과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으나, 판단이 모호한 행위에 대해서는 웹조사에서 학대 가능성을 추정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최지영, 이명진, 2021).

사회적 바람직성이 내재된 문항을 질문하는 조사에서 모드 효과를 통제하고 조사 방법의 순수한 영향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응답자의 특성을 동일하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Buelens et al., 2012; 백지선 외, 2017). 조사 방법에 따른 응답자 집단 간 특성의 동질성을 통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

다. 하지만 통계적 처리 후 발생할 수 있는 편의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작위 할당(random assignment)에 의한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이 적절하다(Card & Krueger, 1993; Michalopoulos et al., 2004).

둘째, 프레이밍 효과는 서베이에서 질문 배열에 의한 응답 오염의 영향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학원생이 연구 아이디어에 대해 스스로 평가할 때 지도교수의 사진을 본 그룹이 보지 않은 그룹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Baldwin et al., 1990). 대학생 대상 서베이에서 데이터 경험이나 횡수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행복 응답값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기도 한다(Strack et al., 1988). 이와 같이 조사표 내에서 행복을 측정하는 질문이 배열된 맥락에 의한 프레이밍 효과는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다(그 외 Schimmack & Oishi, 2005; Deaton & Stone, 2016; Lucas et al., 2016 등 참조).

서베이를 통해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데에서도 프레이밍 효과가 작동한다. 김성아와 정해식(2020)은 유사 조사실험(quasi-survey experiment)을 활용해 한국인의 행복을 측정하는 조사표 내의 척도 주변 관련 정보에 의한 프레이밍 효과가 측정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제3절 조사실험 설계 및 분석모형

1. 조사실험 설계

행복의 측정 결과에 대한 모드 효과와 프레이밍 효과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한 조사실험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우선 ‘모드 효과’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원에 의한 전화조사 및 자기응답식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였다. 두 가지 조사 방법을 패널1과 패널2로 무작위 할당한 두 개 집단에 각각 적용해 체계적 편의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문항 순서에 의한 ‘프레이밍 효과’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지 서두에서 조사 안내 및 참여 동의에 관한 질문을 한 이후 행복 측정 문항 세트(A), 성격과 사회적 자본 측정 문항 세트(B), 삽화를 이용한 조정 문항(C), 그리고 가구와 개인 소득 수준 문항을 후반부에 배치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문항 세트(D)로 조사표 구성을 달리 설정했다. 이 조사표는 패널을 다시 패널A, 패널B로 구분한 뒤 패널A는 A→B→C→D, 패널B는 D→A→B→C 순서로 질문하였다. 이 방법으로 소득 수준을 포함한 인구학적 특성 문항 세트를 행복 측정 문항 전후에 배치하는 방식 역시 무작위 할당하였다.

모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방법 무작위 할당과 프레이밍 효과를 검증하려는 두 가지 문항 순서 설정 방식 무작위 할당을 주된 원칙으로 하여, 조사 대상은 19세 이상 69세 이하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자기응답식 온라인 조사를 주된 조사 방법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70세 이상은 타 연령대와 비교하면 인터넷 이용률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³⁾ 조사 방법과 문항 순서에 의한 무작위 할당을 고려한 이번 조사실험 설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각주 표 3-1> 연령대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결과(2023년)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용(%)	99.7	99.8	99.7	99.0	94.9	64.4
이용 안 함(%)	0.3	0.2	0.3	1.0	5.1	35.6

출처: “2023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최문실, 김태동, 명사은, 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p.116에서 저자가 수정함.

〈표 3-1〉 조사실험 설계

구분		조사 방법에 의한 모드 효과 검증		합계
		패널1	패널2	
조사표 설계에 의한 프레이밍 효과 검증	패널A	패널A1: 500명	패널A2: 500명	1,000명
	패널B	패널B1: 500명	패널B2: 500명	1,000명
합계		1,000명	1,000명	2,000명

출처: 연구진 작성

이 조사실험에서 설정한 모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방법인 무작위 할당과 프레이밍 효과를 검증하려는 두 가지 문항 순서 설정 방식 무작위 할당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표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첫째, 대규모 온라인 패널에서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을 고려하여 조사 참여자군을 1차 모집한 후, 둘째, 조사 방법 및 조사표의 문항 순서에 따른 4개 집단을 무작위 할당하였다. 셋째,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을 고려하여 응답 완료 현황을 모니터링하였다. 특히 온라인 조사에서 특정 성별이나 특정 연령대 집단에서 우선 응답을 완료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편의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는 2024년 5월 30일 목요일부터 6월 12일 수요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다. 계절과 요일, 응답시간 등 응답 결과에 대한 조사 시기의 영향을 고려해 낮 시간 및 저녁 시간, 주중 및 주말과 공휴일(현충일)의 전화조사 발신 시점을 유의할당하였다. 조사 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2024년 5월 23일 목요일부터 같은 달 29일 수요일까지 1주일 동안 조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 참여자의 5배수인 1만 명을 조사 모집단으로 1차 모집하였다. 이 과정에서 2024년 4월 「주민등록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성별, 10세별 연령대, 거주지역의 분포를 고려하였다.

〈표 3-2〉 조사 참여자의 모집단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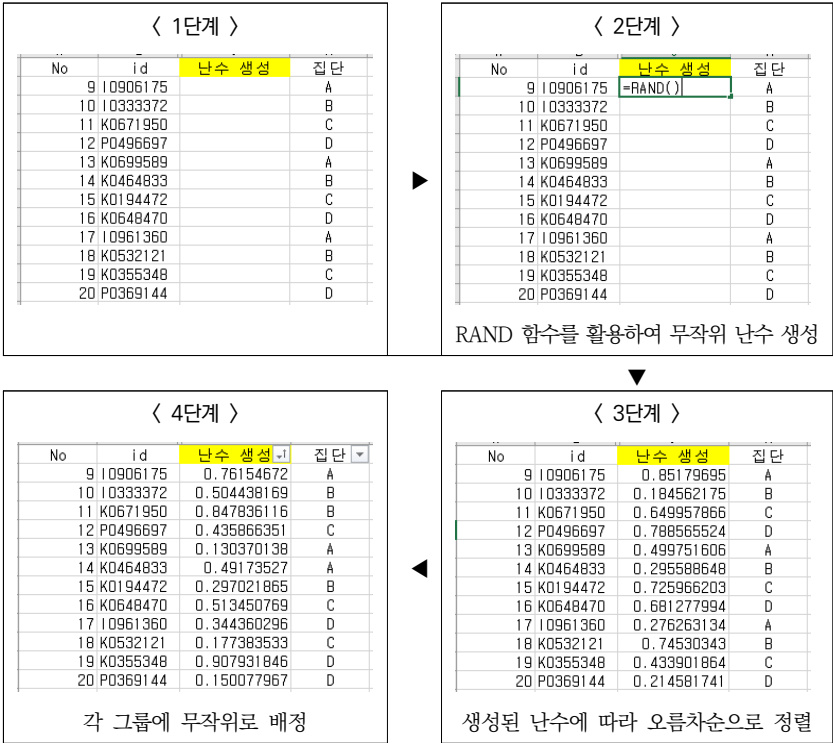
지역	성별	연령대					합계
		19~29	30~39	40~49	50~59	60~69	
서울	남	180	200	180	200	160	920
	여	200	200	180	200	180	960
경인권 (경기, 인천)	남	300	320	380	380	300	1680
	여	280	300	360	380	320	1640
충청권 (충북, 충남, 대전)	남	100	100	120	120	120	560
	여	80	80	100	120	120	500
호남권 (전북, 전남, 광주, 제주)	남	100	80	120	140	120	560
	여	80	80	100	120	120	500
경북권 (경북, 대구)	남	80	80	100	120	100	480
	여	60	60	100	120	120	460
경남권 (경남, 부산, 울산)	남	120	120	160	180	160	740
	여	100	100	160	180	180	720
강원권	남	20	20	20	40	40	140
	여	20	20	20	40	40	140
합계	남	900	920	1080	1180	1000	5080
	여	820	840	1020	1160	1080	4920

출처: 연구진 작성

2024년 5월 29일 수요일에는 조사 참여자의 모집단을 조사 방법과 문항 순서 집단을 고려하여 4개 조사 집단으로 무작위 할당하였다. 무작위 할당을 위해 집단별 층화가 최소 1배수 이상이 될 때까지 RAND 함수를 활용해 생성한 난수를 활용하였다. 다음 표 두 개는 조사 참여자를 4개 집단으로 무작위 할당한 과정과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42 행복 및 삶의 질 측정과 정책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

〈표 3-3〉 조사 참여자 무작위 할당 과정



주: A는 조사실험 설계에 의한 〈표 3-1〉의 A1, B는 A2, C는 B1, D는 B2 집단에 해당함.

〈표 3-4〉 조사 집단별 무작위 할당 결과

(단위: 명)

〈패널 A1〉

지역	성별	연령대					합계
		19~29	30~39	40~49	50~59	60~69	
서울	남	40	61	37	55	43	236
	여	50	54	54	59	46	263
경인권 (경기, 인천)	남	74	74	76	84	73	381
	여	72	66	90	93	88	409
충청권 (충북, 충남, 대전)	남	27	21	22	29	33	132
	여	14	24	21	38	28	125
호남권 (전북, 전남, 광주, 제주)	남	26	17	30	40	35	148
	여	16	29	28	29	26	128
경북권 (경북, 대구)	남	20	16	17	28	20	101
	여	18	16	19	40	39	132
경남권 (경남, 부산, 울산)	남	29	29	44	52	51	205
	여	26	26	32	49	48	181
강원권	남	2	4	4	7	6	23
	여	5	8	6	9	8	36
합계		419	445	480	612	544	2500

〈패널 A2〉

지역	성별	연령대					합계
		19~29	30~39	40~49	50~59	60~69	
서울	남	48	55	56	43	34	236
	여	53	50	42	39	59	243
경인권 (경기, 인천)	남	82	85	96	94	70	427
	여	59	93	79	82	72	385
충청권 (충북, 충남, 대전)	남	15	27	30	35	32	139
	여	20	18	33	31	30	132
호남권 (전북, 전남, 광주, 제주)	남	17	19	29	33	30	128
	여	21	15	20	34	29	119
경북권 (경북, 대구)	남	22	20	24	39	28	133
	여	10	13	24	27	30	104
경남권 (경남, 부산, 울산)	남	42	25	41	52	40	200
	여	25	26	39	47	43	180
강원권	남	5	9	8	16	5	44
	여	2	2	4	12	11	30
합계		421	457	525	584	513	2500

44 행복 및 삶의 질 측정과 정책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

〈 패널 B1 〉

지역	성별	연령대					합계
		19~29	30~39	40~49	50~59	60~69	
서울	남	47	45	48	48	44	232
	여	49	46	44	50	33	222
경인권 (경기, 인천)	남	78	72	106	112	80	448
	여	68	64	96	113	81	422
충청권 (충북, 충남, 대전)	남	23	26	32	22	24	127
	여	20	17	20	24	35	116
호남권 (전북, 전남, 광주, 제주)	남	31	17	28	34	26	136
	여	23	18	28	40	31	140
경북권 (경북, 대구)	남	21	21	28	26	24	120
	여	18	16	35	27	23	119
경남권 (경남, 부산, 울산)	남	27	35	38	33	36	169
	여	28	24	42	51	39	184
강원권	남	7	2	6	8	12	35
	여	3	6	5	8	8	30
합계		425	446	558	560	511	2500

〈 패널 B2 〉

지역	성별	연령대					합계
		19~29	30~39	40~49	50~59	60~69	
서울	남	45	40	38	53	44	220
	여	47	51	42	49	40	229
경인권 (경기, 인천)	남	68	82	106	100	75	431
	여	74	81	95	94	85	429
충청권 (충북, 충남, 대전)	남	34	28	35	35	28	160
	여	29	21	29	30	30	139
호남권 (전북, 전남, 광주, 제주)	남	30	24	36	31	28	149
	여	18	17	24	20	19	98
경북권 (경북, 대구)	남	16	22	32	25	26	121
	여	15	16	23	22	30	106
경남권 (경남, 부산, 울산)	남	20	31	37	45	38	171
	여	24	21	46	34	44	169
강원권	남	4	4	2	9	18	37
	여	8	5	5	10	13	41
합계		425	446	558	560	511	2500

출처: 연구진 작성

2024년 5월 30일 수요일부터 2주간 조사를 실시한 후, 6월 13일부터 19일까지는 데이터 클리닝 및 검증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응답 시간이 평균 응답 시간 대비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은 실제 응답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였다. 6월 22일까지 클리닝한 최종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전체 조사 실사는 대규모 온라인 패널을 확보한 전문 조사업체인 (주)엠브레인컨설팅에서 수행하였다. 조사 목적과 설계, 실사 계획 등에 대해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득하였다(제2024-040호).

2. 조사표 구성

조사표는 전화조사 응답 피로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문항을 제외하고 20개 문항 규모를 유지하였다. 조사 안내 및 참여 동의에 이어, 행복 측정 문항 세트(A)는 삶의 만족 측정 질문, 캔터릴 사다리로 측정하는 삶의 평가, 그리고 어제 경험한 행복감 질문을 최소 0점부터 최대 10점까지 11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삶의 만족을 측정하는 질문은 “귀하는 전반적으로 귀하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만큼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점부터 ‘매우 만족한다’ 10점까지 중 응답해 주십시오”이고, 삶의 평가 질문은 “바닥이 0점이고 꼭대기가 10점인 사다리를 상상하세요. 사다리의 꼭대기는 당신의 삶에서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고, 사다리의 바닥은 당신의 삶에서 최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당신은 그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이다. 온라인 조사에 한해 바닥의 0점부터 꼭대기 10점까지 사다리의 이미지를 제시하였다. 어제 행복감의 질문은 “귀하는 어제 얼마만큼 행복하셨습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0점부터 ‘매우 행복했다’ 10점까지 중 응답해 주십시오”이다. 문항 순서 설정 방식에 의해 패널 B 집단의 경우 가구와 개인 소득에 관한 질문 직후에 접하게 되는 행복 측정 문항을 삶의 만

족으로 설정한 것은 이 질문을 행복의 표준적인 측정 방식으로 쓰는 학계의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다(Helliwell, Layard, & Sachs, 2023).

성격과 사회적 자본 측정 문항 세트(B)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질 요소 중 외향성과 신경성, 비교성향, 가족이나 친척 혹은 가족이나 친척 외의 사람들과 맺는 사회적 교류, 그리고 아플 때나 돈이 필요할 때, 우울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외향성과 신경성은 성격 5요인(Big Five Inventory, 이하 BFI) 척도의 간편형 한국어 버전에서 추출하였다(김지현 외, 2011; 오아영, 2017). BFI는 개방성(Open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친화성(Agreeableness), 신경성(Neuroticism)과 외향성(Extraversion)의 5가지 성격 요인을 측정한다. 이 중 신경성은 ‘자신이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고, 세상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으며, 세상을 위협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도’이다(김지현 외, 2011, p.48). 외향성은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도’이다(김지현 외, 2011, p.48). 신경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외향성이 강할수록 행복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유미, 2016). 신경성을 측정하기 위해 ‘쉽게 침울해진다’, ‘자주 우울해진다’, ‘걱정을 많이 한다’의 세 가지 표현을, 외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조용하다’, ‘수다스럽다’, ‘사교적이다’의 세 가지 표현을 제시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0점부터 매우 그렇다는 5점까지의 리커트 척도에서 해당되는 사항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타인과 비교하려는 성향이 높을수록 행복 수준이 낮게 나타난다(한민 외, 2013; 김희삼, 2014). 비교성향이 높을수록 직접 비교할 수 있는 물질적 소유나 일, 지위 등을 중시하고 과시적 행동을 하는 등 자기의 고유한 삶의 방식이나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살면서 이룬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것과 비교한다’, ‘종종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나를 잘 비교하지 않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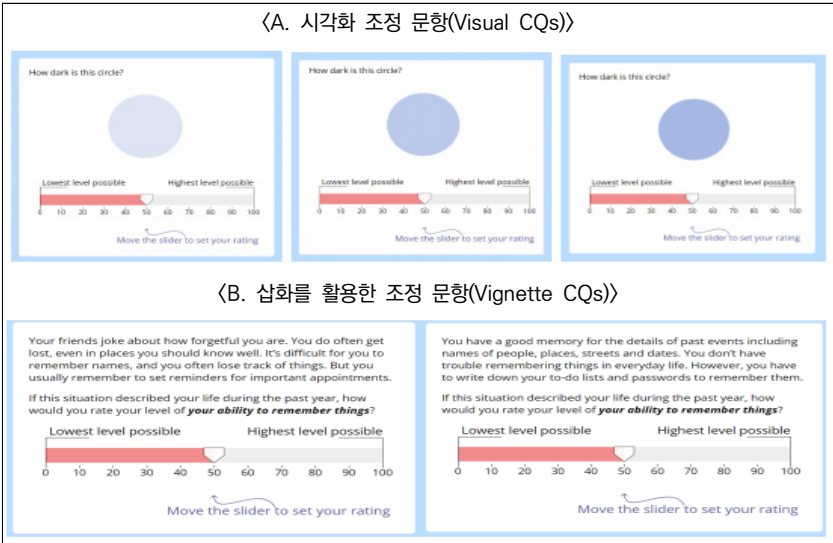
‘나와 비슷한 문제에 처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자 한다’, ‘내 상황과 비슷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고자 한다’, ‘내가 궁금한 무언가에 대한 타인의 생각을 알고자 한다’의 6가지 문장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0점부터 매우 그렇다는 5점까지의 리커트 척도에서 응답자 본인의 생각과 얼마만큼 부합하는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Gibbons와 Buunk(1999)가 개발한 문항을 최윤희(2003)가 번역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문항에서 추출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나 협동, 관용과 공공심, 연대 등을 포함한다(최창용 외, 2020).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6개 요소 중 하나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나 친지의 사적 지지체계를 다루고 있다(Helliwell et al., 2024). 동거하는 가족이나 업무상 접촉 이외의 타인과의 사회적 교류, 그리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가 결핍된 고립된 상태가 삶의 만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기도 하다(김성아 외, 2024). 이 조사에서는 사회적 교류 차원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가족 또는 친척, 그리고 업무상 관계를 제외한 친구, 이웃, 동료 등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 중 평소에 대면, 인터넷(SNS 등), 전화 등으로 교류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사회적 지지체계는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함께 살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질문하는 상황에 부합하는 타인이 없다면, 사회적 교류나 사회적 지지체계가 결핍된 것으로 정의한다.

삽화를 활용한 조정 문항(CQs, C)은 행복 측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질적 척도 이용(Heterogeneity in Scale Use) 편의를 조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Benjamin, Cooper, Heffetz, Kimball, Zhou, 2023). 경험적 인식으로서 동일한 범위의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는 방식은 개인

차가 있으므로 실증적으로 비교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Adler, & Decancq, 2022). 삶의 만족이나 삶의 평가, 어제 행복감에 대해 최소 0 점부터 최대 10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를 이용해 질문하지만, 동일한 범위라 할지라도 응답자에 따라 5점, 6점 등 개별 점수가 가지는 의미가 상이하다는 것이다. CQs는 행복 측정 질문에 대해 응답한 점수를 계량적으로 조정(calibration)하는 준거가 되는 기준점을 발견하기 위한 실험이다. Benjamin, Cooper, Heffetz, Kimball, Zhou(2023)은 0~100점 리커트 척도와 자기응답식 온라인 조사를 활용했으므로, 여기에서는 삽화를 이용한 CQs를 활용하되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한국의 정서에 부합하게 표현을 조정하였다.

[그림 3-1] Benjamin, Cooper, Heffetz, Kimball, Zhou(2023)의 주관적 웰빙 조정 문항(CQs)



인구사회학적 특성 문항 세트(D)는 성별, 연령,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실제 거주지역, 동거하고 있는 가구원 수, 혼인상태, 교육 수준, 종사상 지위, 그리고 가구 및 개인의 월평균 소득 수준을 범주화하여 질문하였다. 각각의 질문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질 구성 요소로서 이태진 외(2021)가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조사 실사 과정에서 생산되는 응답일, 응답시간 등 파라데이터를 함께 수집하였다.

3. 가설 및 분석모형

서베이를 활용한 개인 단위 행복 측정 결과에 대한 모드 효과와 프레임 효과의 존재를 검증하려는 이번 조사실험의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Y_i 는 삶의 만족, 삶의 평가, 어제 행복감으로 측정하는 행복 점수이고, QoL_i 는 성격 및 사회적 자본,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분류한 삶의 질 구성요소의 벡터이다. M_i 는 조사 방법의 더미 변수이고, F_A 는 문항 제시 순서 유형의 더미 변수이다. ϵ_i 는 개인 단위 오차항이다.

$$Y_i = \beta_0 + \beta_1 QoL_i + \beta_2 M_1 + \beta_3 F_A + \epsilon_i$$

분석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의 측정 결과는 다차원적 삶의 질 구성 요소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경우 β_1 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행복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beta_1 \neq 0$). 둘째, 행복의 측정 결과는 조사 방법에 의한 모드 효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가설이 부합한다면 조사 방법 더미 변수의 계수인 β_2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beta_2 \neq 0$). 셋째, 행복의 측정 결과는

조사표 문항 순서에 의한 프레이밍 효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면 문항 제시 순서 유형 더미 변수의 계수인 β_3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beta_3 \neq 0$).

조사 방법에 의한 모드 효과와 문항 순서에 따른 프레이밍 효과 간 상호작용이 존재할 수 있다. 다음 모형은 조사 방법의 더미 변수와 문항 제시 순서 유형의 더미 변수 간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것이다. 이 모형에서 α_4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력을 가진다면, 두 효과 간 상호작용이 실증된다고 할 수 있다

$$Y_i = \alpha_0 + \alpha_1 QoL_i + \alpha_2 M_1 + \alpha_3 F_A + \alpha_4 M_1 \times F_A + \nu_i$$

제4절 조사실험 결과 분석

1. 기초통계량

조사원에 의한 전화조사와 자기응답식 온라인 조사를 병행한 조사 방법과 가구 및 개인 소득 질문과 행복 측정 문항의 순서에 따른 4개 집단별 총 2,000명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 표와 같다. 전체 최종별 응답자 중 남성은 50.8%, 여성은 49.2%이고, 4개 집단 분포는 동일하다. 나이는 평균 45.6세인데,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가구원 수는 2.8명으로, 집단 간 차이는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혼인상태는 배우자 있는 응답자가 58.7%, 이혼이 3.7%, 별거가 0.7%, 사별이 1.6%, 그리고 미혼이 35.5%이다. 4개 집단 간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교육 수준은 중졸 이하가 0.8%, 고졸이 17.6%, 대학 재학이나 수료, 졸업이 71.5%, 대학원 이상이 10.3%이고,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 66.3%, 전세가 16.5%, 보증금 있는 월세가 14.2%, 보증금 없는 월세가 1.1%, 무상이 2.0%이고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종사상 지위는 상용 임금근로자가 54.7%, 임시 임금근로자가 6.0%, 일용 임금근로자가 3.5%,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2.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6.5%, 실업자가 5.0%, 비경제활동인구가 21.0%이고, 집단 간 차이는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가구 월평균 소득은 100만 원 미만이 4.4%, 100~200만 원 구간이 5.2%, 200~300만 원 구간이 13.5%, 300~400만 원 구간이 15.3%, 400~500만 원 구간이 14.2%, 500~600만 원 구간이 14.2%, 600~700만 원 구간이 8.4%, 700~800만 원 구간이 8.9%, 800~900만 원 구간이 5.4%, 900~1,000만 원 구간이 3.2%, 1,000만 원 이상 구간이 6.8%이다.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0.9%인데, 자기응답식 온라인 조사 응답자 중 무응답자는 없다. 조사 방법과 조사 문항 순서에 따른 4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개인 월평균 소득은 100만 원 미만이 19.4%, 100~200만 원 구간이 13.7%, 200~300만 원 구간이 25.2%, 300~400만 원 구간이 18.0%, 400~500만 원 구간이 9.5%, 500~600만 원 구간이 5.0%, 600~700만 원 구간이 2.5%, 700~800만 원 구간이 1.5%, 800~900만 원 구간이 0.8%, 900~1,000만 원 구간이 0.3%, 1,000만 원 이상 구간이 0.9%이다.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3.5%인데, 가구 월평균 소득과 같이 자기응답식 온라인 조사 응답자 중 무응답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 방법과 조사 문항 순서에 따른 4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성격 문항 중 신경성 평균 점수는 2.7점이고 4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외향성 평균 점수는 2.76점인데, 4개 집단 간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차이를 가진다. 비교성향의 평균 점수는 3.0점인데,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사회적 교류 문항에서 가족이나 친척과의 사회적 교류가 없다는 응답은 17% 정도인데,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가족이나 친척 외 친구나 지인, 동료와의 사회적 교류가 없다는 응답률은 21%이고, 집단 간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몸이 아파 집안 일을 부탁할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다는 응답률은 30% 정도이고, 4개 집단 간 차이는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부탁할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다는 응답률은 41% 정도이고, 4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다는 응답률은 19% 정도이고, 4개 집단 간 차이는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표 3-5〉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전체	전화/ A-D	전화/ D-A	온라인/ A-D	온라인/ D-A	chi ²
전체		2,000	500	500	500	500	
성별 (%)	남성	50.8	50.8	50.8	50.8	50.8	0.0000
	여성	49.2	49.2	49.2	49.2	49.2	
나이(세)		45.59 (13.557)	45.34 (13.424)	45.38 (13.523)	45.59 (13.680)	45.47 (13.537)	0.1814
가구원 수(명)		2.83 (1.212)	2.88 (1.234)	2.87 (1.174)	2.78 (1.228)	2.80 (1.211)	1.5271
혼인 상태 (%)	배우자 있음	58.7	61.0	61.0	55.0	57.6	23.1371*
	이혼	3.7	4.6	2.4	3.4	4.4	
	별거	0.7	0.2	0.0	1.6	0.8	
	사별	1.6	1.2	1.0	1.8	2.2	
	미혼	35.5	33.0	35.6	38.2	35.0	
교육 수준 (%)	중졸 이하	0.8	0.4	0.4	0.8	1.4	12.9286
	고졸	17.6	17.6	15.0	17.2	20.4	
	대학 재학/수료/졸업	71.5	69.8	75.0	71.8	69.2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10.3	12.2	9.6	10.2	9.0	

구분		전체	전화/ A-D	전화/ D-A	온라인/ A-D	온라인/ D-A	chi ²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66.3	68.2	64.6	67.8	64.4	12.4713
	전세	16.5	16.4	18.4	15.6	15.6	
	보증금 있는 월세	14.2	13.6	13.8	14.0	15.4	
	보증금 없는 월세	1.1	0.2	1.4	1.2	1.6	
	무상	2.0	1.6	1.8	1.4	3.0	
종사상 지위 (%)	상용 임금근로자	54.7	56.2	54.0	56.4	52.0	29.9970 +
	임시 임금근로자	6.0	4.6	5.8	6.0	7.4	
	일용 임금근로자	3.5	1.6	4.4	4.2	3.8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3	1.8	2.8	2.4	2.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5	8.2	7.4	4.8	5.4	
	무급가족종사자	1.2	0.8	2.0	1.4	0.6	
	실업자	5.0	4.2	5.4	4.2	6.2	
	비경제활동인구	21.0	22.6	18.2	20.6	22.6	
가구 월평균 소득 (%)	100만 원 미만	4.4	2.8	3.4	4.0	7.4	94.3555 ***
	100~200만 원 미만	5.2	4.0	4.0	6.0	6.6	
	200~300만 원 미만	13.5	10.0	10.8	16.8	16.4	
	300~400만 원 미만	15.3	12.2	14.8	16.2	17.8	
	400~500만 원 미만	14.2	17.0	12.8	13.0	13.8	
	500~600만 원 미만	14.2	16.8	14.0	15.0	10.8	
	600~700만 원 미만	8.4	8.6	10.6	7.4	6.8	
	700~800만 원 미만	8.9	8.2	10.6	8.6	8.2	
	800~900만 원 미만	5.4	8.0	6.6	3.6	3.2	
	900~1000만 원 미만	3.2	3.4	3.6	3.0	2.6	
	1000만 원 이상	6.8	7.6	6.6	6.4	6.4	
개인 월평균 소득 (%)	무응답	0.9	1.4	2.2	0.0	0.0	126.6482 ***
	100만 원 미만	19.4	17.0	15.8	18.8	25.8	
	100~200만 원 미만	13.7	13.6	10.2	14.8	16.0	
	200~300만 원 미만	25.2	21.8	25.4	29.0	24.4	
	300~400만 원 미만	18.0	17.0	21.2	18.0	15.8	
	400~500만 원 미만	9.5	13.2	9.0	8.4	7.2	
	500~600만 원 미만	5.0	5.2	5.0	5.8	3.8	
	600~700만 원 미만	2.5	2.6	2.4	2.2	2.8	
	700~800만 원 미만	1.5	0.8	2.0	1.8	1.4	
	800~900만 원 미만	0.8	0.8	1.2	0.4	0.8	
	900~1000만 원 미만	0.3	0.2	0.0	0.2	0.6	
	1000만 원 이상	0.9	1.0	0.6	0.6	1.4	
	무응답	3.5	6.8	7.2	0.0	0.0	

구분		전체	전화/ A-D	전화/ D-A	온라인/ A-D	온라인/ D-A	chi ²
신경성(점)		2.70 (0.935)	2.54 (0.921)	2.43 (0.891)	2.92 (0.881)	2.93 (0.939)	2.6242
외향성(점)		2.76 (0.722)	2.81 (0.739)	2.78 (0.761)	2.79 (0.681)	2.65 (0.695)	8.0106 *
비교성향(점)		3.02 (0.686)	2.93 (0.680)	2.88 (0.673)	3.15 (0.682)	3.14 (0.669)	0.2515
사회적 교류 없음 (×100=%)	가족이나 친척	0.17 (0.371)	0.17 (0.372)	0.15 (0.353)	0.18 (0.381)	0.17 (0.378)	3.3527
	가족이나 친척 외	0.21 (0.408)	0.25 (0.432)	0.19 (0.393)	0.22 (0.416)	0.18 (0.386)	8.1454 *
사회적지지 체계 없음 (×100=%)	몸이 아파 집안일 부탁	0.30 (0.457)	0.24 (0.428)	0.22 (0.415)	0.39 (0.488)	0.34 (0.475)	18.5872 ***
	갑자기 큰돈 필요	0.41 (0.491)	0.34 (0.476)	0.34 (0.474)	0.47 (0.500)	0.47 (0.500)	2.6004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	0.19 (0.393)	0.13 (0.337)	0.14 (0.351)	0.25 (0.432)	0.24 (0.428)	49.9792 ***

주: Chi²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성별, 혼인상태, 교육 수준, 주택 점유 형태, 종사상 지위, 가구 월 평균 소득, 개인 월평균 소득의 명목 변수인 경우 교차분석을, 나이, 가구원 수, 신경성, 외향성, 비교성향, 사회적 교류 없음, 사회적 지지체계 없음의 연속변수인 경우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의 결과임. + p<0.1 * p<0.05 ** p<0.01 *** p<0.001

이 장은 서베이를 통해 행복 수준을 측정하는 데 있어 조사 방법에 의한 모드 효과, 그리고 문항 순서에 따른 프레이밍 효과가 존재한다면, 집단 간 응답값이 체계적으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로부터 출발했다. 다음 그림은 조사 방법과 문항 순서를 무작위 할당한 4개 집단에 따라 삶의 만족, 삶의 평가, 어제 행복감으로 측정한 행복 응답 점수이다.

삶의 만족의 평균 응답값은 6.13점이다. 조사 방법에 따라서 보면, 온라인 조사 응답자의 평균 응답값은 5.63점, 전화조사 응답자는 6.63점이다. 전체 평균 응답값이 5.89점인 삶의 평가는 온라인 조사의 경우 5.55점, 전화조사는 6.24점이다. 전체 평균 응답값이 6.28점인 어제 행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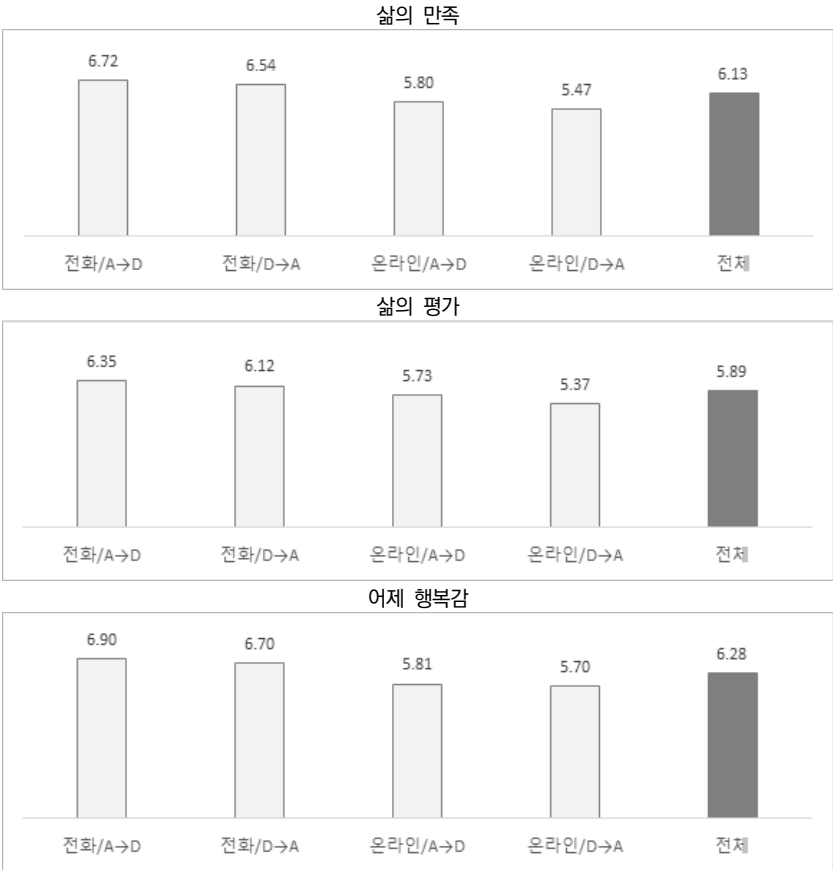
에 대해 온라인 조사 응답자의 평균 응답값은 5.76점, 전화조사 응답자는 6.80점이다. 전반적으로 조사원의 질문에 구두로 응답하는 전화조사 응답자의 응답값이 관찰자 없이 제시된 문항에 스스로 응답하는 온라인 조사 응답자의 응답값보다 체계적으로 높다.

조사 문항의 순서에 따라, 가구와 개인 소득 문항 이후에 행복 질문이 주어진 경우(D→A), 삶의 만족은 6.0점, 삶의 평가는 5.75점, 어제 행복감은 6.20점이다. 반면, 행복 질문이 가장 먼저 제시된 경우(A→D)는 삶의 만족이 6.26점, 삶의 평가가 6.04점, 어제 행복감이 6.35점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가구와 개인 소득 질문이 선행되지 않고 행복 질문이 가장 먼저 제시된 경우에 행복 응답값이 체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이나 개인 소득 구간에 관해 질문하는 것은 현재 경제력을 상기시킬 수 있고, 이로써 행복 응답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베이로 행복을 측정하는 데에 다차원적인 삶의 질을 구성하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성격 및 사회적 자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초통계량에서 모드 효과와 프레이밍 효과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다. 이때 자기 응답식 온라인 조사에 비해 조사원에 의한 전화조사에서 응답자가 행복 응답값을 체계적으로 높게 보고할 가능성이 짐작된다. 또한 소득 수준을 상기하는 선행 질문이 존재할 때 현재 경험하는 행복 수준이 낮게 보고될 수 있다.

[그림 3-2] 조사 방법 및 문항 순서 무작위 할당 집단별 행복 응답 점수

(단위: 점수)



주: A→D는 행복 측정 문항을 가장 먼저 제시한 집단이고, D→A는 소득 및 개인소득 문항 직후에 행복 측정 문항을 제시한 집단임.

2. 가설 검증

앞에서 기초통계량으로 조사 방법에 의한 모드 효과, 문항 순서에 의한 프레이밍 효과를 검증하였다. 여기에서는 삶의 질의 다차원성을 반영하는 경제적 상황 등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성격 및 사회적 자본,

그리고 가구와 개인 소득 수준을 순차적으로 통제하며 모드 효과와 프레이밍 효과를 실증하였다. 다음 표는 ‘삶의 만족’을 결과변수로 하여 (1)열은 자기응답식 온라인 조사를 준거집단으로 하는 전화조사 더미 변수(A)에 의한 모드 효과의 영향을, (2)열은 가구 및 개인 소득 문항 후에 행복 측정 질문을 배치한 문항 순서를 준거집단으로 우선 제시한 경우의 더미 변수(B)에 의한 프레이밍 효과의 영향을, (3)열은 모드 효과와 프레이밍 효과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4)열은 모드 효과와 프레이밍 효과의 상호작용을 보여주고 있으며, (5)열부터 (8)열까지는 인구학적 특성, 성격, 사회적 자본, 가구 및 개인소득 구간을 순차적으로 통제한 것이다. 마지막 (9)열은 모든 통제변수를 투입한 모형이다.

전체적으로 자기응답식 온라인 조사, 행복 측정 문항을 우선 제시하는 방식은 삶의 만족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성격 특성을 통제하는 (6)열과 (9)열을 제외하면, 모드 효과를 반영하는 전화조사 방식의 계수는 0.8~1에 가까운 수준으로, 온라인 조사에 비해 전화조사에서 응답자가 1점 정도 행복 점수를 높게 보고한다고 볼 수 있다. 행복 측정 질문을 우선 제시하는 방식, 즉 소득 문항에 의한 프레이밍 효과는 0.2~0.4점 정도 행복 점수의 차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열부터의 상호작용항을 보면, 전화조사와 행복 질문이 우선 제시되는 방식이 결합될 때, 모드 효과와 프레이밍 효과가 증폭된다. 전반적으로 인구학적 특성과 성격, 사회적 자본과 가구 및 개인 소득을 통제하더라도 삶의 만족으로 행복을 측정하는 데에 모드 효과와 프레이밍 효과가 실증적으로 존재한다.

〈표 3-6〉 조사 방법과 문항 순서가 삶의 만족 응답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2)	(3)	(4)	(5)	(6)	(7)	(8)	(9)
전화조사 (A)	0.998 *** (0.090)		0.998 *** (0.090)	1.072 *** (0.134)	0.976 *** (0.127)	0.567 *** (0.119)	0.847 *** (0.129)	0.883 *** (0.134)	0.390 *** (0.116)
우선제시 (B)		0.256 ** (0.093)	0.256 ** (0.090)	0.330 * (0.136)	0.285 * (0.129)	0.256 * (0.117)	0.374 ** (0.127)	0.265 * (0.129)	0.251 * (0.108)
A×B				1.254 *** (0.129)	1.134 *** (0.124)	0.826 *** (0.115)	1.054 *** (0.123)	1.066 *** (0.128)	0.671 *** (0.111)
인구학적 특성					YES				YES
성격						YES			YES
사회적 자본							YES		YES
가구 및 개인소득								YES	YES
상수항	5.63 *** (0.068)	6.002 *** (0.069)	5.503 *** (0.085)	5.466 *** (0.102)	8.028 *** (0.842)	6.376 *** (0.285)	6.216 *** (0.107)	4.400 *** (0.294)	8.533 *** (0.831)
유효표본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1924	1924
조정 R ²	0.057	0.003	0.060	0.060	0.164	0.300	0.172	0.133	0.405

주: 전화조사(A)의 준거집단은 자기응답식 온라인 조사임. 행복 측정 문항 우선 제시(B, A→D)의 준거집단은 가구/개인소득 문항 후 H문항 제시 집단(D→A)임. 괄호 안 수치는 오차항의 이분산성에 강건한 표준오차임. 통제변수인 인구학적 특성과 성격 특성, 사회적 자본 특성, 가구 월평균 소득 수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표 1〉과 같음. + p<0.1 * p<0.05 ** p<0.01 *** p<0.001.

다음 표는 이성적인 판단이 반영되는 ‘삶의 평가’로 측정하는 행복 결과에 대한 모드 효과와 프레이밍 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삶의 만족에 대한 영향과 동일하게, 전화조사의 경우, 그리고 행복 측정 문항이 가구 및 개인 소득에 대한 질문에 선행될 때 삶의 평가 응답값이 유의하게 높게 보고된다. 다만, 전화조사에 의한 모드 효과의 크기가 모든 통제변수를 투입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진 (9)열을 제외하면 0.2~0.8 정도로 삶의 만족 응답값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보다는 작다. 그리고 소득 문항에

의한 프레이밍 효과는 인구학적 특성과 성격, 사회적 자본과 소득 수준을 모두 통제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한다.

〈표 3-7〉 조사 방법과 문항 순서가 삶의 평가 응답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2)	(3)	(4)	(5)	(6)	(7)	(8)	(9)
전화조사 (A)	0.686 *** (0.089)		0.686 *** (0.089)	0.750 *** (0.129)	0.645 *** (0.122)	0.268 * (0.116)	0.545 *** (0.125)	0.575 *** (0.128)	0.107 (0.112)
우선제시 (B)		0.292 ** (0.090)	0.292 ** (0.089)	0.356 * (0.140)	0.304 * (0.132)	0.286 * (0.121)	0.400 *** (0.132)	0.269 * (0.133)	0.250 * (0.112)
A×B				0.978 *** (0.124)	0.844 *** (0.119)	0.569 *** (0.110)	0.797 *** (0.119)	0.777 *** (0.121)	0.393 *** (0.107)
인구학적 특성					YES				YES
성격						YES			YES
사회적 자본							YES		YES
가구 및 개인소득								YES	YES
상수항	5.550 *** (0.070)	5.747 *** (0.066)	5.404 *** (0.084)	5.372 *** (0.100)	7.568 *** (0.780)	6.257 *** (0.290)	6.048 *** (0.105)	4.112 *** (0.273)	7.673 *** (0.781)
유효표본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1924	1924
조정 R ²	0.028	0.005	0.033	0.033	0.149	0.263	0.133	0.111	0.377

주: 전화조사(A)의 준거집단은 자기응답식 온라인 조사임. 행복 측정 문항 우선 제시(B, A→D)의 준거집단은 가구/개인소득 문항 후 H문항 제시 집단(D→A)임. 괄호 안 수치는 오차항의 이분산성에 강한 표준오차임. 통제변수인 인구학적 특성과 성격 특성, 사회적 자본 특성, 가구 월평균 소득 수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표 1〉과 같음. + p<0.1 * p<0.05 ** p<0.01 *** p<0.001.

다음 표는 행복 측정 문항 중 마지막으로 제시된 ‘어제 행복감’으로 측정한 행복 응답값에 대한 모드 효과와 프레이밍 효과의 실증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어제 느낀 행복감은 삶의 만족이나 삶의 평가에 비해 행복의 정서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삶의 만족과 삶의 평가에 대한 결과와 일관되게, 전화조사에 의한 모드 효과가 실증되었다. 다만, 문항을 제시하는 순서, 즉 가구와 개인소득 문항보다 행복 측정 질

문이 우선 제시되는 방식에 의한 프레이밍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표 3-8〉 조사 방법과 문항 순서가 어제 행복감 응답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2)	(3)	(4)	(5)	(6)	(7)	(8)	(9)
전화조사 (A)	1.045 *** (0.097)		1.045 *** (0.097)	0.998 *** (0.137)	0.923 *** (0.134)	0.462 *** (0.121)	0.789 *** (0.135)	0.846 *** (0.137)	0.342 ** (0.124)
우선제시 (B)		0.151 (0.100)	0.151 (0.097)	0.104 (0.145)	0.067 (0.140)	0.018 (0.124)	0.153 (0.137)	0.042 (0.141)	0.017 (0.119)
A×B				1.196 *** (0.138)	1.085 *** (0.136)	0.738 *** (0.122)	1.016 *** (0.134)	1.032 *** (0.138)	0.607 *** (0.125)
인구학적 특성					YES				YES
성격						YES			YES
사회적 자본							YES		YES
가구 및 개인소득								YES	YES
상수항	5.756 *** (0.073)	6.203 *** (0.071)	5.680 *** (0.088)	5.704 *** (0.104)	9.138 *** (0.890)	6.420 *** (0.299)	6.404 *** (0.113)	4.648 *** (0.289)	8.752 *** (0.920)
유효표본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1924	1924
조정 R ²	0.055	0.001	0.055	0.055	0.123	0.300	0.144	0.106	0.360

주: 전화조사(A)의 준거집단은 자기응답식 온라인 조사임. 행복 측정 문항 우선 제시(B, A→D)의 준거집단은 가구/개인소득 문항 후 H문항 제시 집단(D→A)임. 괄호 안 수치는 오차항의 이분산성에 강건한 표준오차임. 통제변수인 인구학적 특성과 성격 특성, 사회적 자본 특성, 가구 월평균 소득 수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표 1〉과 같음. + p<0.1 * p<0.05 ** p<0.01 *** p<0.001.

3. 모드 효과 작동 기제

여기에서는 모드 효과, 즉 조사 방법에 따라 행복 응답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수식에 따라 인구학적 특성과

성격, 사회적 자본과 가구 및 개인소득의 다차원적 삶의 질(QoL_i)을 통제
한 행복 측정 결과의 기댓값($\hat{Y}_i$)과 실제 응답값의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행복 측정 결과의 기댓값은 성별과 연령, 혼인상태와 교육 수준 등 다차
원적 삶의 질 변수군의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기대되는 행복 점수이다.

$$\hat{Y}_i = \gamma_0 + \gamma_1 QoL_i + v_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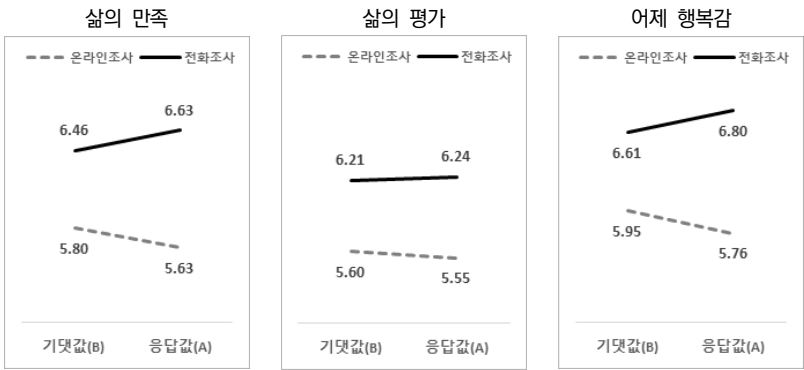
[그림 3-3]은 행복의 측정 도구에 따라 평균 기댓값($\hat{Y}$)과 평균 응답값
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행복 측정 문항 중 가장 먼저 제시된 ‘삶의
만족’의 경우, 온라인 조사 응답자의 평균 기댓값이 5.80점인데 실제 응
답값은 5.63점으로 다소 낮게 확인된 반면, 전화조사는 기댓값 6.46점보다
실제 응답값이 6.63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행복 측정 문항 중 이성적
판단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진 ‘삶의 평가’는 두 번째로 제시되었는데,
온라인 조사 응답자의 기댓값 5.60점 대비 실제 응답값이 5.55점으로 약
간 낮았지만 그 차이가 0.05점에 지나지 않았다. 전화조사 응답자는 기댓
값 6.21점 대비 실제 응답값이 6.24점으로 다소 높았지만 역시 그 차이
가 0.03점에 그쳤다. 반면, 행복 측정 문항 중 정서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어제 행복감’에 대해 온라인 조사 응답자의 기댓값 5.95
점보다 실제 응답값은 5.76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전화조사 응답자
는 기댓값 6.61점보다 실제 응답값이 6.80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조사원에 의한 전화조사의 경우 다차원적 삶의 질을 통제
한 행복의 기댓값보다 실제 응답값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모드 효과가 삶
의 평가에서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삶의 평가에 대한 질문이 삶의 만족과
어제 행복감 사이에 배치되었으므로, 행복 측정 질문의 순서나 주변의 관
련 문항에 오염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조사원에 의한 조사에서 행

복 응답값을 높게 보고하는 경향, 즉 행복 측정에 있어 조사 방법에 의한 모드 효과가 존재하는데, 이성적 판단을 반영하는 삶의 평가는 모드 효과에 상대적으로 강건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3] 조사 방법에 따른 행복 측정 기댓값과 응답값의 차이

(단위: 점)



주: 행복 측정 기댓값은 각 행복 측정 문항의 응답값에 대해 인구학적 특성과 성격 특성, 사회적 자본 특성, 가구 및 개인 월평균 소득 수준을 통제하여 산출한 것임. 통제변수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표 1>과 같음.

<표 3-9> 조사 방법에 따른 행복 측정 응답값과 기댓값의 차이

(단위: 점)

구분	삶의 만족			삶의 평가			어제 행복감		
	기댓값(A)	응답값(B)	차이(A-B)	기댓값(A)	응답값(B)	차이(A-B)	기댓값(A)	응답값(B)	차이(A-B)
온라인조사	5.80	5.63	0.17	5.60	5.55	0.05	5.95	5.76	0.19
전화조사	6.46	6.63	-0.17	6.21	6.24	-0.03	6.61	6.80	-0.19
전체	6.12	6.13	-0.01	5.89	5.89	0.00	6.27	6.28	-0.01

주: 행복 측정 기댓값은 각 행복 측정 문항의 응답값에 대해 인구학적 특성과 성격 특성, 사회적 자본 특성, 가구 및 개인 월평균 소득 수준을 통제하여 산출한 것임. 통제변수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표 1>과 같음.

4. 프레이밍 효과의 작동 기제

이번에는 문항 순서에 의한, 즉 가구와 개인 소득 수준을 상기시키는 문항에 의한 프레이밍 효과의 작동 기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다음 표는 소득 문항 이후에 행복 문항을 나중 제시한 집단과 행복 문항을 우선 제시한 집단에 따른 삶의 만족, 삶의 평가, 그리고 어제 행복감으로 측정하는 행복 응답 간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두 집단 모두 삶의 만족과 삶의 평가 간 상관관계수는 0.78~0.80 수준이고, 삶의 평가와 어제 행복감 간 상관관계수는 0.69~0.71 수준에서 확인된다. 반면, 삶의 만족과 어제 행복감 간 상관관계수는 소득 문항 이후에 행복 문항이 제시된 경우 0.75, 우선 제시된 경우 0.71 정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질문 순서에 따라 행복 응답값을 선택하기 전에 소득 수준을 상기한 경우, 삶의 평가와 달리 삶의 만족과 어제 행복감 간 상관관계수가 다소 높아진 것은 행복의 정서적 측면이 프레이밍 효과에 보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표 3-10〉 문항 순서에 따른 행복 응답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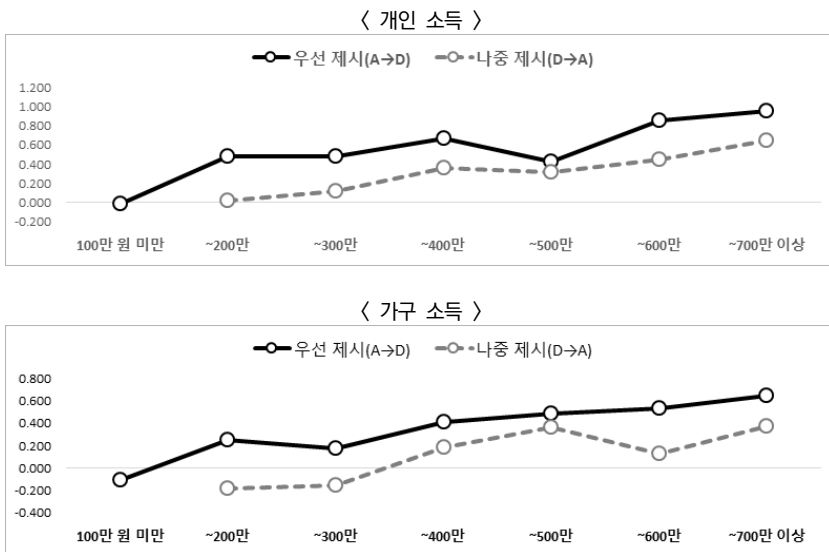
〈 나중 제시(D→A) 〉			〈 우선 제시(A→D) 〉		
구분	삶의 만족	삶의 평가	구분	삶의 만족	삶의 평가
삶의 평가	0.7909 (0.0000)		삶의 평가	0.7826 (0.0000)	
어제 행복감	0.7515 (0.0000)	0.6931 (0.0000)	어제 행복감	0.7085 (0.0000)	0.7076 (0.0000)

주: 우선 제시(A→D)는 행복 측정 문항을 가장 먼저 제시한 집단이고, 나중 제시(D→A)는 소득 및 개인소득 문항 직후에 행복 측정 문항을 제시한 집단임.

여기에서는 개인과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프레이밍 효과가 작동할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그 상호작용을 검증하였다. 유효표본의 크기를 고려해 700만 원 이상 집단은 고소득 집단으로 재범주화하였다. 소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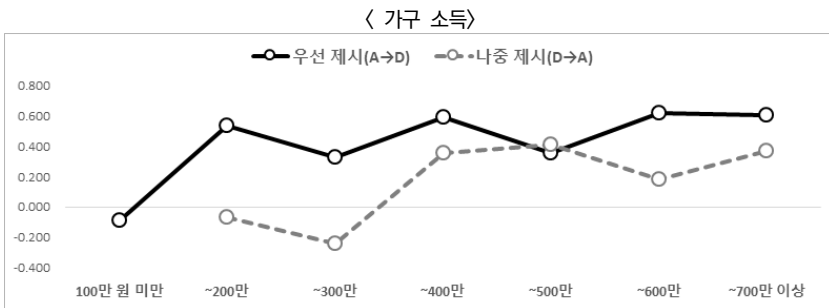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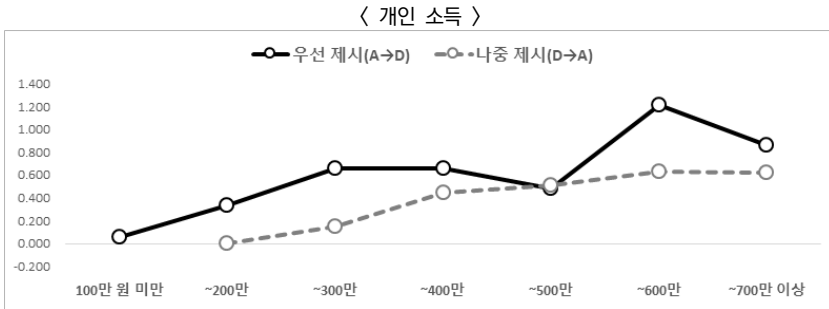
에 따라 행복 응답값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소득 수준이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 프레이밍 효과의 크기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삶의 만족에 대해 개인소득과 가구 소득 구간에 의한 프레이밍 효과의 크기는 행복 측정 질문을 나중에 제시하거나 우선 제시한 집단에 따라 체계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소득 수준에 따른 프레이밍 효과의 체계적인 차이는 삶의 평가나 어제 행복감으로 측정하는 행복 측정 결과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림 3-4] 소득 수준과 프레이밍 효과의 상호작용: 삶의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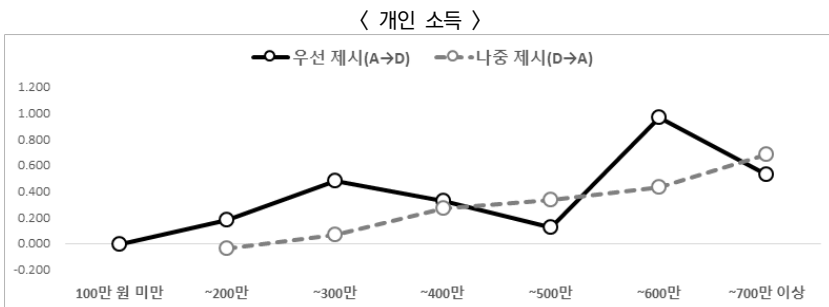
주: 우선 제시(A→D)는 행복 측정 문항을 가장 먼저 제시한 집단이고, 나중 제시(D→A)는 소득 및 개인소득 문항 직후에 행복 측정 문항을 제시한 집단임. 준거집단은 개인 혹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고 행복 측정 문항을 소득 문항 직후에 제시한 '나중 제시(D→A)'임. <부표 1>에서 제시한 인구학적 특성과 성격 특성, 사회적 자본 특성, 개인 월평균 소득 수준을 통제한 회귀 계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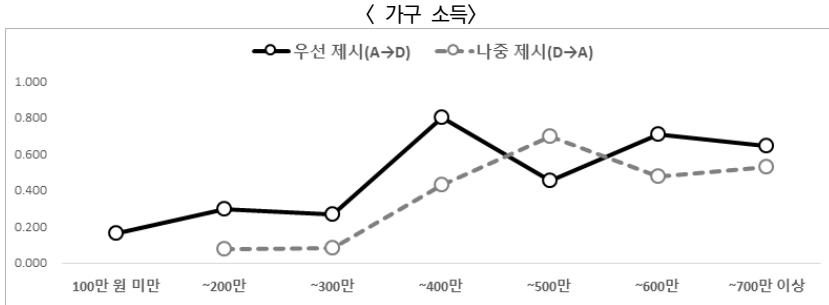
[그림 3-5] 소득 수준과 프레이밍 효과의 상호작용: 삶의 평가



주: 우선 제시(A→D)는 행복 측정 문항을 가장 먼저 제시한 집단이고, 나중 제시(D→A)는 소득 및 개인 소득 문항 직후에 행복 측정 문항을 제시한 집단임. 준거집단은 개인 혹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고 행복 측정 문항을 소득 문항 직후에 제시한 '나중 제시(D→A)'임. <부표 1>에서 제시한 인구학적 특성과 성격 특성, 사회적 자본 특성, 개인 월평균 소득 수준을 통제한 회귀 계수임.

[그림 3-6] 소득 수준과 프레이밍 효과의 상호작용: 어제 행복감





주: 우선 제시(A→D)는 행복 측정 문항을 가장 먼저 제시한 집단이고, 나중 제시(D→A)는 소득 및 개인소득 문항 직후에 행복 측정 문항을 제시한 집단임. 준거집단은 개인 혹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고 행복 측정 문항을 소득 문항 직후에 제시한 '나중 제시(D→A)'임. <부표 1>에서 제시한 인구학적 특성과 성격 특성, 사회적 자본 특성, 개인 월평균 소득 수준을 통제한 회귀 계수임.

제5절 소결

이 장에서는 국민의 행복한 삶 실현이라는 사회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복의 측정 결과를 직접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조사 설계의 영향, 특히 조사 방법에 의한 모드 효과와 문항 순서에 의한 프레이밍 효과를 실험하였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에 의한 전화조사와 자기응답식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였고, 문항 순서는 가구와 개인 소득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문항 세트를 행복 측정 척도 앞뒤에 배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조사업체에서 보유한 온라인 패널에서 성별과 연령대, 거주지역을 고려해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남녀 조사 참여군을 1차 모집한 후, 조사 방법과 문항 순서를 교차한 4개 집단을 무작위로 할당하였다. 4개 집단별 성별과 연령대, 거주지역을 모니터링하여 개인적 특성에 따른 응답 경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화조사에 한해 응답시간과 응답 요일을 유의할당하였다. 조사는 2024년 5월 30일부터 6월 12일까지 2주간 이루어졌다.

조사에 참여한 최종 응답자의 성별, 나이, 가구원 수, 교육 수준, 주택 점유 형태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일부와 신경성, 비교성향, 가족이나 친척과의 사회적 교류,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지지 체계는 조사 방법과 문항 순서를 무작위 할당한 4개 집단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혼인상태와 소득, 외향성과 가족이나 친척 외 사회적 교류,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지지체계는 4개 집단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주로 조사 방법에 의한 차이로 보인다.

분석 결과, 삶의 만족이나 삶의 평가, 어제 행복감의 세 가지 행복 측정 척도에 대해 자기응답식 온라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에 비해 조사원에 의한 전화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평균 응답값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났다. 조사원에 의한 전화조사에서 행복 측정 결과의 평균값이 일관되게 높은 경향은 문항 순서나 문항 순서와의 상호작용,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성격, 사회적 자본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유지된다. 또한 행복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성격, 사회적 자본을 고려한 행복 측정 결과의 기댓값과 비교하면, 삶의 만족이나 어제 행복감의 실제 응답값이 조사원에 의한 전화조사에서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지만 삶의 평가는 기댓값과 응답값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삶의 평가로 행복을 측정하는 경우, 조사 방법에 의한 모드 효과에 비교적 강건한 결과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항 순서에 따라서는, 조사 참여 직후 행복 측정 문항을 우선 제시하거나, 가구와 개인 소득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 문항 세트를 먼저 질문한 후 행복 측정 문항을 제시하는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였다. 후자는 소득 자체, 혹은 소득 수준에 의한 계층을 상기시키는 프레이밍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조사 결과, 행복 문항을 우선 제시한 경우에 소득

문항 이후에 제시한 경우보다 행복 응답 결과가 일관되게 높게 나타났다. 행복 문항을 우선 제시한 경우 행복 측정 결과의 평균값이 소득 문항 이후에 제시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은 조사 방법이나 조사 방법과의 상호작용,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성격, 사회적 자본을 통제한 모형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소득 문항의 프레이밍 효과가 소득 수준에 의한 계층 효과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 및 소득 수준 구간과 문항 순서 유형 간 상호작용을 검증하였으나, 소득 수준에 따른 응답 결과가 체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소득 문항에 의한 프레이밍 효과가 계층의 영향이라기보다 소득이라는 경제력을 떠올리는 자극 자체의 영향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조사실험 결과를 종합하면, 행복 응답 결과는 조사 방법에 의한 모드 효과와 조사표 문항 순서에 의한 프레이밍 효과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득 문항에 의한 프레이밍 효과는 소득 수준 혹은 계층에 의한 영향이라기보다 소득을 상기시키는 문항 자체의 영향일 수 있다. 그럼에도 어떤 조사 방법과 문항 순서의 조합에 따른 응답 결과가 행복의 참값(true values)인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시점에 조사를 실시하여 행복 추이를 추적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조사 방법과 문항 순서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삶의 만족이나 삶의 평가, 어제 행복감과 같이 행복을 측정하는 다양한 측정 도구 중에서 조사 방법에 의한 모드 효과에 비교적 강건한 것은 캔트릴 사다리로 측정해 이성적 판단을 반영하는 삶의 평가일 수 있다.



제4장

2차 자료를 활용한 행복과 삶의 질 측정 신뢰성 검증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연령과 행복의 U자형 관계

제3절 분석자료와 분석모형

제4절 분석 결과

제5절 소결

제4장

2차 자료를 활용한 행복과 삶의 질 측정 신뢰성 검증

제1절 문제 제기

제1장에서 조사자료에 따라 동일 연도의 행복 수준이 다를 수 있고, 연도별 추세 또한 다를 수 있음을 그림으로 확인하였다. 제2장에서 행복과 삶의 질의 관련성과 정책 활용을 염두에 둔 측정 방식을 검토하였고, 제3장에서 조사 방법과 문항 순서에 따라 측정 결과의 수준(level)이 실제값(true-score)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실험하였다. 이 장에서는 다양한 조사자료 간 행복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조사자료의 신뢰성(reliability)은 서베이로 생산한 2종 이상의 데이터에서 측정한 변수 간 통계적 관계의 일관성을 의미한다(Alwin, 1989, pp.284-286). Alwin(1989)은 비표집 오류(non-sampling error)로서 측정 오류(measurement error)를 서베이를 통해 참값(true score)을 포착할 수 있는지에 주목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미국에서 1978년에 수행된 삶의 질 조사(Quality of Life surveys), 1952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된 중앙선거연구패널(National Election Studies panels), 그리고 1972년부터 시작된 일반사회조사의 재조사 데이터(General Social Surveys reinterview data)를 이용해 조사자료의 종류별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사 설계에 의한 서베이에서 교육 수준이나 가구의 경제력, 인식과 행복 측정 결과 간 신뢰성을 확인하였다(Alwin, 1989).

행복 수준과 관련된 변수 간 신뢰성도 다양한 조사자료에서 검증된 정형화된 관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연구에서 주요 선

진국에서 연령에 따라 중장년 시기에 행복 수준이 가장 낮은 U자형을 보인다는 명제를 지지하는 연구 결과가 축적되고 있다(Blanchflower & Oswald, 2004; Blanchflower & Oswald, 2008; Frijters & Beaton, 2012; Cheng et al., 2015; Blanchflower & Oswald, 2019; Blanchflower, 2021; Giuntella et al., 2023).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연령과 행복 측정 결과 간에는 신뢰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처럼 특정 변수와 행복 측정 결과 간 관계에 대해 축적된 연구가 있지만, 국내 조사자료를 활용해 행복 측정 결과와 다차원적 삶의 질 관련 문항 간 신뢰성은 아직 체계적으로 실증되지 않았다.

이 장에서는 국내에서 수행된 대표성 있는 반복 횡단면조사(repeated cross-sectional survey)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행복 측정 결과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삶의 질 변수 간 통계적 관계의 일관성, 즉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사회조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생산하는 승인통계 사회통합실태조사, 그리고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생산하는 한국인의 행복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연령과 행복의 U자형 관계

이 절에서는 주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연령과 행복 측정 결과 간 정형화된 경향, 즉 연령에 따른 행복의 U자형을 중심으로 다양한 조사자료에서 확인하는 행복과 삶의 질 변수의 측정 신뢰성을 검증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검토한다.

연령에 따른 행복의 U자형을 공식적으로 실증한 초창기 연구자인 Blanchflower와 Oswald(2004)는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와

미국 일반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GSS)를 이용해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영국과 미국의 국민 행복 수준의 추세를 확인하였다. 미국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행복 수준이 감소하는 반면, 영국은 평탄한 추세를 보이는 행복 측정 수준(level)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행복한 삶의 맥락으로서 삶의 질 변수군, 즉 소득과 연령, 실업이나 이혼, 결혼의 영향을 두 개 나라 자료를 통해 분석하여 삶의 질 변수군과 일관된 관계를 검증했다. 즉, 소득은 높을수록 행복하고, 상대소득은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동했다. 연령에 따른 행복의 U자형을 발견하면서 실업이나 이혼의 부정적 영향과 사별 대비 지속되는 결혼 생활의 긍정적 영향을 실증했다(Blanchflower & Oswald, 2004).

Blanchflower와 Oswald는 연령과 행복 간 U자형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였다. 2008년 연구에서는 미국의 일반사회조사와 유로바로미터, 라틴바로미터, 아시아바로미터, 세계가치관조사를 분석하여, 72개 선진국에서 연령에 따른 행복의 U자형, 동유럽이나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국가에서는 유사 U자형이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했다. 또한, 우울이나 불안 등 병리적 특성은 연령에 따라 역U자형의 경향을 보이는 사실을 확인하여, 상관성이 높은 측정 결과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신뢰성을 보여주었다(Blanchflower & Oswald, 2008).

그런데 이러한 Blanchflower와 Oswald(2004, 2008)의 발견을 지지하는 기제에 대해서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았다. Glenn(2009)의 질문처럼 인구사회학적 특성 통제 여부가 행복 측정 결과와 삶의 질 측정 변수 간 통계적 관계의 경향이나 유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령으로 특정하면,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삶의 질 관련 변수를 통제했을 때 연령과 행복의 통계적 관계가 중장년기에 저점을 보이는 U자형을 보인다는 건 연령과 행복의 실제값 간 관계의 형태와 무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Blanchflower와 Oswald(2009)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지 않

은 모형에서도 연령에 따른 행복의 U자형이 존재함을 실증하여, 두 특성의 통계적 관계가 일관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령과 행복 간 일관된 통계적 관계를 실증하는 연구 흐름에서 Frijters와 Beaton(2012)은 일련의 선행연구에서 검증한 연령에 따른 행복의 U자형 경향을 실현하는 기제를 확인하기 위해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였다(Blanchflower & Oswald, 2004, Blanchflower & Oswald, 2008). 독일의 독일사회경제패널(German Socioeconomic Panel, GSOEP), 영국의 영국가구패널조사(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BHPS), 그리고 호주의 호주가구소득노동역동조사(Household Income Labour Dynamics Australia, HILDA)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주된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에 따라 20~60세 구간에는 행복의 U자형이 비교적 완만한 반면, 60세 이후에 행복이 상대적으로 급증하는 경향을 확인했으며, 연령과 행복의 측정 결과 간에 통계적 관계의 일관성을 지지하였다. 또한 세 가지 패널데이터 각각에서 행복에 대한 소득, 고용된 상태, 그리고 배우자 있는 결혼상태의 긍정적 영향의 존재를 확인하여, 특정 척도로 측정하는 삶의 질 영역과 행복 간 관계의 통계적 일관성을 검증하였다(Frijters & Beaton, 2012).

이어 Blanchflower와 Oswald(2019)는 연령과 행복 측정 결과 간 일관된 통계적 관계, 즉 신뢰할 만한 측정 결과 간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비교 대상 국가의 범위를 더욱 넓혀 51개 국가를 포함하는 7개 조사자료를 이용했다. 이 연구에서는 영국 통계청 데이터(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data), 미국 행동위험요소감시시스템(US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BRFSS), 유럽의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Surveys) 및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s, ESS), 국제사회조사 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ISSP), 그리고 라틴 바로미터(Latino Barometers)를 활용했다. 연령에 따른 행복의 U

자형을 검증함으로써 두 변수 간 통계적 관계의 일관성을 검증했다(Blanchflower & Oswald, 2019).

Blanchflower(2021)는 연령과 행복 측정 결과 간 통계적 관계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비교 대상 국가의 범위를 145개 국가로 더욱 확장하였다. 이때 다양한 반복 횡단면조사에서 다양한 범위의 척도로 측정한 행복 측정 결과를 수집하여 활용했다. 미국 1972~2018년 일반사회조사(GSS)의 3점 행복감, 미국 2005~2010년 행동위험요소 감시 시스템(BRFSS)의 4점 삶의 만족, 미국 2008~2018년 갤럽 일간 추적(Gallup US Daily Tracker)의 10점 삶의 평가, 영국 2016~2018년 연간인구조사(Annual Population Survey for the UK)의 11점 삶의 만족, 삶의 가치, 행복감, 1973~2019년 유로바로미터 조사의 4점 삶의 만족, 2002~2016년 유럽사회조사의 행복감, 2003~2016년 유럽 삶의 질 조사(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의 10점 삶의 질과 행복감, 2017년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의 7점 삶의 만족, 2012년 자료의 7점 행복감, 1990~2014년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WVS)의 10점 삶의 만족, 2014년 자료의 3점 재정적 만족, 2005년 아시아 바로미터(Asia Barometers)의 5점 행복감, 2016년과 2017년의 라틴 바로미터의 4점 삶의 만족, 2008~2017년 갤럽 월드 폴(Gallup World Poll)의 11점 삶의 평가, 2010년, 2019년, 2002~2016년 유로바로미터의 4점, 10점 가구 생활 수준 만족, 그리고 2016년과 2019년 아프로 바로미터(Afro Barometers)의 4점 생활 수준 만족이 그것이다. 다양한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통제 여부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연령에 따른 행복의 U자형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는 관련 문헌에서 반복 횡단면조사를 주로 이용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Cheng et al.(2015)은 독일의 독일사회경제패널(GSOEP), 영국의 영국가구패널조사(BHPS), 그리고 호주의 호주가구

소득노동역동조사(HILDA), 그리고 호주 고용과 삶 균형 의학 종단 조사(Medicine in Australia Balancing Employment and Life (MABEL) longitudinal study)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반복 횡단면뿐만 아니라 종단적으로 연령과 행복 간 U자형으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통계적 관계를 검증하였다(Cheng et al., 2015).

Giuntella와 그의 동료들(2023)은 연령과 행복 측정 결과의 U자형 관계에서 취약한 집단으로 등장한 중장년에 주목하면서 행복 측정 방식을 확장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에서 중장년이 생애 최고 소득 수준을 획득하며 건강 문제가 적은 반면, 삶의 만족뿐만 아니라 수면 장애, 알코올 의존, 집중 장애, 기억 문제, 직업 긴장감, 두통, 자살 생각과 극심한 우울감으로 위기 징후가 나타난다. 그들은 연령에 따른 중장년의 위기를 삶의 만족으로 측정하는 행복 관련 지표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통계적 경향을 검증한 것이다. 이때 지표의 특성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데이터, 영국 성인 정신과적 이환율 조사(Adult Psychiatric Morbidity Survey, APMS), 개선 임상 인터뷰 스케줄(Clinical Interview Schedule-Revised, CIS-R), 주요국의 시간조사(Time-use data), 호주가구소득노동역동조사(HILDA), 영국가구패널조사(BHPS)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조사자료 간 행복 관련 지표와 연령의 일관된 통계적 관계, 즉 행복 측정 결과와 삶의 질 관련 변수 간 신뢰성을 실증하였다(Giuntella et al., 2023).

행복은 중장년기에 가장 낮은 2차 함수 형태를 보이는 행복과 연령 간 통계적 관계의 일관성이 일련의 연구를 통해 다종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검증되면서, 연령에 따른 행복의 U자형 관계는 신뢰할 수 있는(reliable)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로 받아들여져 왔다. 연령과 정신 건강이나 수면의 질 등 행복과 관련된 변수와도 일관된 통계적 관계가 검증되면서, 두 변수 간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기제를 발견하려는 시도로

확장되었다. 광범위한 시공간을 아우르는 다종의 분석자료에서 일관되게 검증되는 변수 간 통계적 관계를 통해 신뢰성을 축적해왔다.

제3절 분석자료와 분석모형

이 장에서는 전국 대표성을 가지는 주요 반복 횡단면 서베이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변수 간 통계적 관계의 일관성, 특히 행복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행복 측정 결과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질 변수군을 주로 활용한다.

서베이 응답의 비표집 오류에 의한 신뢰성을 검증하는 데에는 반복 횡단면 데이터(repeated cross-sectional studies)와 반복 측정하는 패널 데이터(panel designs)를 활용할 수 있다(Alwin, 1989). 조사 대상자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측정하는 패널 데이터는 응답자의 관측할 수 없는 특성(unobservable)을 통제하는 데에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장기 시계열을 포괄하는 패널 데이터의 표본 탈락(attrition)의 문제와 분석자료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면 반복 횡단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이로울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국내 전국 대표성을 가지는 반복 횡단면 서베이 자료로서 사회조사와 사회통합실태조사, 그리고 한국인의 행복조사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주된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1. 분석자료

1996년부터 시작한 사회조사는 통계청에서 매년 5~6월 중 생산하며, 사회지표로서 국민 인식 지형을 포착하기 위해 2년을 주기로 조사 주제를 교차한다. 통계법에 의한 지정통계이며,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는 면

접조사를 주된 조사 방법으로 하며, 자기응답식 유치조사를 병행한다. 2011년부터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인터넷조사를 일부 도입하였다. 2007년까지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동일한 표본인 33,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표본 구성의 변동을 겪으며 2021년에는 2019년 등록센서스의 일반조사구를 활용해 약 18,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주 조사와 가구원 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 시점 기준 전국 만 13세 이상 일반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모집단으로 하며, 가중치를 제공하여 표집오차를 보완함으로써 전국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통계청, 2024.1.12.).

행복 측정 척도로는 1점부터 5점까지 범위의 삶의 만족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사회조사에서는 1점을 ‘매우 만족’, 5점을 ‘매우 불만족’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역코딩해야 한다. 2년 주기의 조사 주제와 별도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질문은 매년 유지하고 있다. 성별과 연령,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 혼인상태, 교육 수준, 주거 점유 형태, 종사상 지위, 가구 월평균 소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 문항은 조사연도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선택지를 조정하고 있다. 가구원 수는 2010~2011년에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2012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으로, 2013년부터는 1인, 2인, 3인, 4인 이상으로 재분류하였다. 2011년부터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던 연령 범위를 13세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100만 원 단위의 가구 소득 집단은 2016년까지 700만 원 이상이 최고액 집단이었으나, 이후 800만 원 이상 집단으로 고소득 집단을 세분화하였다.

이 장에서 활용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생산하며, 통계법에 의한 승인통계이다.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 인식 수준과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고, 2011년부터 시작되면서 1년 주기로 매년 9~10월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

문하는 면접조사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응답자가 희망하는 경우 자기응답식 유치조사를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여, 2016년부터 8,000명 표본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 일반조사구를 표본추출틀로 표본을 설계하며, 사회조사와 마찬가지로 표집오차를 보완하는 가중치를 제공하여 전국 대표성을 확보한다(한국행정연구원, 2021.2.28.)

행복 측정 문항으로는 최저 1점부터 최대 10점 범위의 삶의 만족과 행복감을 포함하고 있다. 그 외 우울이나 걱정 같은 정서적 경험을 함께 질문하고 있다. 성별과 연령,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 혼인상태, 교육 수준, 주거 점유 형태, 종사상 지위, 가구 월평균 소득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역시 조사하고 있다. 사회조사와 유사하게 사회 변화에 따라 일부 문항의 선택지를 조정하고 있는데, 2013~2018년 혼인상태는 기혼과 사별, 이혼, 미혼으로 구별해 온 반면, 2019년부터는 별거와 동거를 포함한다. 100만 원 구간으로 조사하는 2013년 가구 소득 최고액 집단이 700만 원 이상이었던 것을 2014년부터는 소득이 없는 집단과 최고 1,000만 원 이상 집단으로 세분화하였다.

한국인의 행복조사는 2020년부터 행복을 주된 주제로 하여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매년 생산하고 있다. 조사를 시행하는 월은 조사연도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조사연도 기준 국내 15세 이상 일반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통계청 집계구를 표본틀로 활용하고 있다.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를 주된 조사 방법으로 하며, 응답자의 상황에 따라 자기응답식 유치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응답하는 요일이나 가구 특성에 따라 행복 응답값이 상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주중과 주말의 조사 참여 요일을 할당하고, 1인 가구나 저소득 빈곤가구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구의 비율을 모니터링한다(허종호 외, 2022, pp.3-25).

행복 측정 문항으로는 삶의 만족과 칸트릴 사다리로 측정하는 삶의 평가, 그리고 행복감을 포함하며, 최소 0점부터 최대 10점의 범위를 가진다. 사회통합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우울이나 걱정 같은 정서적 경험을 질문한다. 성별과 연령,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 혼인상태, 교육 수준, 주거 점유 형태, 종사상 지위, 가구 월평균 소득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응답 여부에 따라 모름이나 무응답을 허용하고 있다.

〈표 4-1〉 분석자료별 행복과 삶의 질 측정 도구와 조사 방법

측정 도구		서베이		
		사회조사 (2010~2023)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3~2023)	한국인의 행복조사 (2020~2022)
행복	삶의 만족	○	○	○
	삶의 평가			○
	행복감		○	○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	○	○	○
	연령	○	○	○
	거주지역	○	○	○
	가구원 수	○	○	○
	혼인상태	○	○	○
	교육 수준	○	○	○
	주거 점유 형태	○	○	○
	종사상 지위	○	○	○
	가구 월평균 소득	○	○	○
조사 시기		5.16.~6.1.	9~10.(2020)	10.24.~12.18.(2021) 8.21.~10.27.(2022) 7.1.~8.25.(2023)
조사 방법	조사원 면접	36.7%(2023)	○	88%(2021~2022)
	조사표 유지	57.5%(2023)	○	12%(2021~2022)
	온라인 조사	0.3%(2017) 0.8%(2018) 0.6%(2019) 6.1%(2020) 8.2%(2021) 7.2%(2022) 5.9%(2023)		2022년 1건

측정 도구		서베이		
		사회조사 (2010~2023)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3~2023)	한국인의 행복조사 (2020~2022)
조사 기간	시작 및 종료 연월일	○	○	○
	조사 소요 기간	○	○	○
특이사항		지정통계/ 2년 주기로 모듈 변경	승인통계	주중 및 주말 응답 요일 배분

출처: “사회조사 통계정보보고서”, 각 연도, 통계청; “사회통합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각 연도,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 허종호, 민보경, 이상직, 이채정, 각 연도, 국회미래연구원.

2 분석모형

여기에서는 다종의 서베이로 측정한 행복의 신뢰성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분석자료에 따라 조사연도별 행복 응답값의 추세를 비교한다. 그리고 성별과 연령,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 혼인상태, 교육 수준, 주거 점유 형태, 종사상 지위, 가구 월평균 소득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질 변수군과 행복 간 통계적 관계의 일관성을 확인하는데에 다음의 분석모형을 활용한다.

$$Hap_{ijt,k} = \beta_{0,k} + \beta_k QoL_{ijt,k} + \delta_k m_{i,jt,k} + \nu_j + v_t + \omega_{jt} + \epsilon_{ijt,k}$$

$Hap_{ijt,k}$ 는 분석자료 k 에서 측정한 지역 j 에 거주하는 개인 i 의 측정 시점 t 의 삶의 만족, 삶의 평가, 혹은 행복감으로 측정하는 행복 응답값이다. 분석하는 자료에 따라 걱정이나 우울 같은 정서적 경험을 포함할 수 있다. $QoL_{ijt,k}$ 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측정 벡터, ν_j 는 광역 단위 지역 고정 효과, v_t 는 연도 고정 효과, ω_{jt} 는 지역별 연도 추세, 그리고 $\epsilon_{ijt,k}$ 는 오차항이다. 여기에서는 분석자료에 따른 δ 의 추정치에 주목한다. 특히 동

일하거나 유사한 설명변수에 의한 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복 측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 즉 β_k 가 분석자료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면 그 차이에 내재한 요인, 특히 조사 설계($m_{i,jt,k}$)에 의한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응답 측정 결과 간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질문이 동일해야 한다(Alwin, 1989, p.286). 이 장에서 다루는 사회조사와 사회통합실태조사, 그리고 한국인의 행복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에서 연도별 혹은 조사 간 차이가 있는 경우, 문항의 구성을 통일하고자 한다. 다만, 조사 설계의 정보는 조사 기간 이외의 자료에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기는 어렵다.

제4절 분석 결과

1. 분석자료별 행복 측정 결과의 추세

[그림 4-1]은 사회조사,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인의 행복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사연도별 행복 측정 결과의 추세이다. 분석하는 자료에 따라 선택지의 범주가 상이하기 때문에 각 점수의 수준을 비교하기보다 2개 연도 이상의 추세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조사에서 확인되는 삶의 만족 수준은 2010년 3.09점부터 2023년 3.37점까지 등락을 보이며 다소 증가한 추세이다. 2013~2023년의 시계를 가지는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확인되는 삶의 만족 수준 역시 5.73점에서 6.41점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팬데믹 이후인 2021년부터 최근까지 6.3~6.5점으로 증가했다. 한국인의 행복조사에서 확인되는 삶의 만족 수준은 2020년 4.90점에서 2022년 4.72점으로 다소 감소했

다. 주목할 것은 세 분석자료가 공유하는 2020~2022년의 시기에서,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일관되게 삶의 만족 수준이 증가하는 반면, 사회조사에서는 3.42점에서 3.16점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3.39점으로 증가하는 등락을 보인다. 그런데 한국인의 행복조사에서는 일관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삶의 평가는 국내 분석자료에서는 한국인의 행복조사에서만 조사하고 있어, 여기에서는 세계행복보고서의 추세와 비교하였다. 한국인의 행복조사에 의한 삶의 평가는 2020년 6.51점에서 2021년 6.19점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에 6.34점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반면, 세계행복보고서의 원자료에서는 같은 기간 5.79점에서 6.11점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5.95점으로 감소하는 반대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행복감은 사회통합실태조사와 한국인의 행복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다.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행복감은 2013년 6.31점부터 등락을 보이지만 2023년 6.68점으로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한국인의 행복조사에서는 2020년 6.83점에서 2021년 6.56점, 2022년 6.53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같은 기간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주요 행복 측정 결과에 이어 사회통합실태조사와 한국인의 행복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걱정이나 우울 같은 부정적인 정서적 경험의 추세를 보자.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걱정은 2013년 4.45점에서 2023년 3.39점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해왔다. 한국인의 행복조사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걱정 수준은 3.95점, 3.55점, 3.04점으로 감소해온 반면, 같은 기간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4.00점, 4.31점, 3.58점으로 증가와 감소 추세를 보이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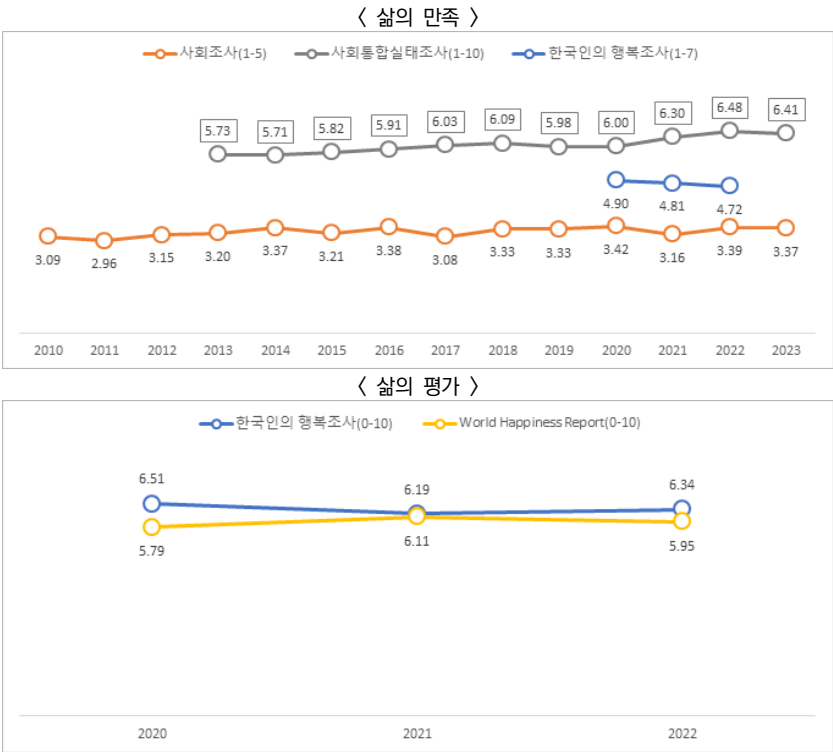
우울은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2013년 3.38점에서 2023년 2.84점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의 행복조사에서

는 우울 수준은 2020년 3.10점에서 2021년 2.41점, 2022년 2.04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같은 기간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걱정 수준과 유사하게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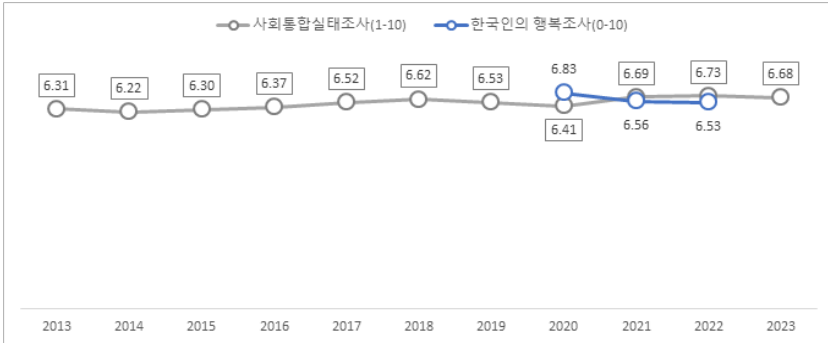
삶의 만족과 삶의 평가, 행복감으로 측정하는 행복 수준, 그리고 우울, 걱정으로 측정하는 정서적 경험의 조사시점에 따른 추세는 조사자료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분석자료별 조사 방법에 의한 모드 효과, 조사 표 구성에 의한 프레이밍 효과 혹은 시점이나 표본선택 등에 의한 영향일 수 있으나 이용할 수 있는 정보로 검증하기는 어렵다.

[그림 4-1] 분석자료별 행복 측정 결과의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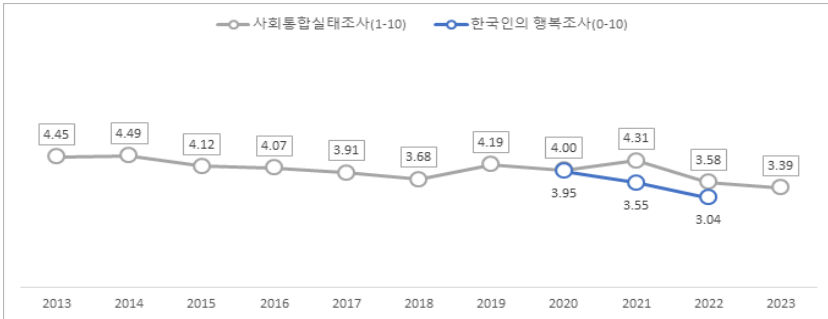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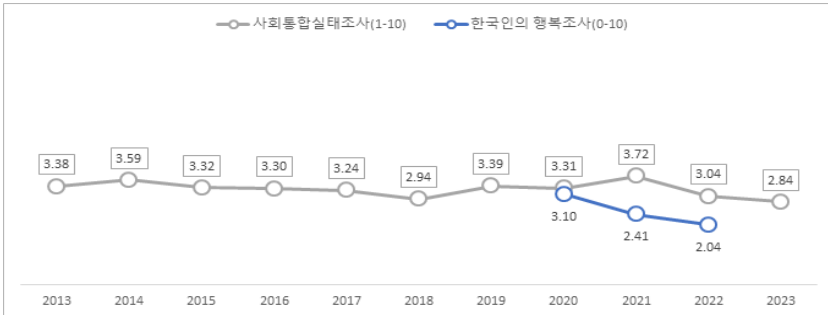
〈 행복감 〉



〈 걱정 〉



〈 우울 〉



주: 사회조사는 매우 만족(1)부터 매우 불만족(5)의 리커트 척도를 역코딩함.

출처: “사회조사”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20R&conn_path=I3. 통계청;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한국행정연구원, 각 연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02&conn_path=I3.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 원자료, 각 연도. <https://kossda.snu.ac.kr/handle/20.500.12236/28199#metadata>. 국회미래연구원; “World Happiness Report 2024”, Helliwell, J. F., Layard, R., Sachs, J. D., De Neve, J.-E., Aknin, L. B., & Wang, S., 2024, <https://worldhappiness.report/data/>. 부록 및 자료의 Data for Table 2.1에서 자료 획득 후 저자 작성.

2.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영향

가. 기초통계량

〈표 4-2〉는 분석모형을 준용해 행복 측정 결과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통계적 관계의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분석자료의 기초통계량을 보여준다. 2010~2023년의 시간적 범위를 가지는 사회조사에서 변수값을 갖는 총유효표본은 388,040명이고, 여성의 비율은 42.4%이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2013~2023년의 시간적 범위를 가지지만, 여기에서는 활용하는 변수값을 모두 가지는 총유효표본을 중심으로 2019~2023년 자료를 활용한다. 총유효표본은 40,928명이고, 그중 여성은 50.2%이다. 2020~2022년 시간적 범위의 한국인의 행복조사의 총유효표본은 47,685명이고, 여성은 50.2%이다. 사회조사 표본의 평균 연령은 47.1세이고, 한국인의 행복조사에서 표본의 평균 연령은 47.4세로 비슷하다. 연령을 구간 정보로 제공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19~29세가 16.8%, 30대 16.0%, 40대 19.3%, 50대 20.4%, 60세 이상 27.5%이다.

분석자료별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있거나 동거하는 비율이 60~66% 정도이고, 이혼이나 별거, 사별한 비율은 9~15% 범위에 있다. 미혼의 비율은 24~28% 정도이다. 교육 수준에서 중학교는 12~23%인데, 시간적 범위가 가장 넓은 사회조사에서의 해당 집단 비율이 높은 편이다. 고등학교는 32~35%이고, 대학교 이상은 44~54% 범위에 있다.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가 44~51% 범위에 있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1~16%, 무급가족종사자는 2~3%, 그리고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는 27~38% 범위에 있다. 주거 점유 형태는 자가 61~80% 범위인데, 역시 시간적 범위가 가장 넓은 사회조사에서 해당 집단 비율이 낮은 편이다. 전세는 15~19%이고, 보증금 있는 월세는

5~16%인데, 사회조사에서 해당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다. 보증금 없는 월세와 무상은 0.3~3% 범위에 있다. 마지막으로 가구 소득 집단은 소득이 없거나 100만 원 미만이 4~15%이다. 100~200만 원 집단은 6~19%, 200~300만 원 집단은 11~21%, 300~400만 원 집단은 15~18%, 400~500만 원 집단은 11~17%, 500~600만 원 집단은 7~19%, 600~700만 원 이상 집단은 4~12%, 700만 원 이상 집단은 7~16% 범위에 있다. 전반적으로 시간적 범위가 가장 넓은 사회조사에서 소득이 낮은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조사시점별 물가가 반영된 것일 수 있다.

〈표 4-2〉 분석자료별 기초통계량

구분		사회조사 (2010~2023)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9~2023)		한국인의 행복조사 (2020~2022)	
통합데이터 유효표본(명)		388,040		40,928		47,685	
성별 (×100=%)	여성	0.424	(0.494)	0.502	(0.500)	0.502	(0.500)
연령 (세, %)	19~29세	47.1	(17.65)	16.8		47.4	(16.99)
	30대			16.0			
	40대			19.3			
	50대			20.4			
	60세 이상			27.5			
혼인상태 (%)	배우자 있음(동거)	60.9		65.5		63.4	
	이혼/별거/사별	14.2		10.5		9.1	
	미혼	24.9		24.0		27.5	
교육 수준 (%)	중학교	22.5		12.6		12.3	
	고등학교	32.7		33.7		34.8	
	대학교 이상	44.8		53.7		52.9	
종사상 지위 (%)	임금근로자	44.5		50.4		46.8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4.4		3.4		3.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1.2		16.0		13.0	
	무급가족종사자	2.0		2.7		3.0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38.0		27.6		33.5	

구분		사회조사 (2010~2023)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9~2023)		한국인의 행복조사 (2020~2022)	
주거 점유 형태 (%)	자가	61.4		71.8		79.3	
	전세	17.3		19.0		15.3	
	보증금 있는 월세	15.7		8.0		5.0	
	보증금 없는 월세	2.7		0.4		0.3	
	무상	2.9		0.8		0.3	
가구 소득 (%)	100만 원 미만(소득없음)	14.7		5.2		4.1	
	100~200만 원 미만	18.8		7.1		6.5	
	200~300만 원 미만	20.4		12.3		11.7	
	300~400만 원 미만	15.7		16.5		17.5	
	400~500만 원 미만	11.3		16.4		17.0	
	500~600만 원 미만	7.4		18.1		17.3	
	600~700만 원 미만	4.0		11.7		10.4	
	700만 원 이상	7.8		12.7		15.5	

주: 분석자료 간 비교가능성을 위해 범주를 통일함. 괄호 안 숫자는 표준편차임. 가중치를 적용함.
출처: “사회조사”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20R&conn_path=I3. 통계청: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한국행정연구원, 각 연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1_0002&conn_path=I3.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 원자료, 각 연도, <https://kossda.snu.ac.kr/handle/20.500.12236/28199#metadata>. 국회미래연구원.

나. 회귀분석 결과

여기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행복 측정 변수값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삶의 질 변수와 행복의 통계적 관계에서 분석자료들이 나타내는 일관성, 즉 행복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 분석모형을 준용해 조사가 수행된 연도와 응답자의 거주지역, 그리고 지역별 시간 추세를 통제하였다. 최종 표본이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표집오차를 보정하는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표 4-3〉은 삶의 만족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영향을 보여준다. 3개 자료에서 일관되게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성별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다.

연령의 영향은 제2절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선행연구에서 중장년 시기에 최저점을 보이는 2차 함수, 즉 U자형을 보인다. 사회조사와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인의 행복조사에서 모두 선행연구와 같이 연령에 따른 삶의 만족 수준이 아래가 볼록한 2차 함수, 혹은 40대에 가장 낮은 수준인 U자형의 일관된 패턴을 보인다.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 이혼했거나 별거, 사별한 집단, 그리고 미혼 집단의 삶의 만족 수준이 일관되게 낮다. 교육 수준에 따라서는 중학교 집단보다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집단의 삶의 만족 수준이 일관되게 높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회귀계수의 절댓값이 커지는 경향 또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임금근로자 대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 수준이 높는데,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은 임금근로자 대비 사회조사에서는 낮고,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한국인의 행복조사에서는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인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임금근로자 대비 사회조사에서는 삶의 만족 수준이 높고, 사회통합실태조사와 한국인의 행복조사에서는 낮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세 분석자료에서 일관되게 임금근로자 대비 삶의 만족 수준이 유의하게 낮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의 영향이 비일관적으로 보이는 것은 준거집단인 임금근로자가 상용직 임금근로자와 임시직 임금근로자, 일용직 임금근로자의 이질적인 집단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주거 점유 형태에 따라서는 자가 집단보다 모든 분석자료에서 전세나 월세, 무상 집단의 삶의 만족 수준이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의 경향은 집단이나 분석자료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가구소득은 준거집단인 100만 원 이하 집단보다 소득이 높은 집단의 삶의 만족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회귀 계수의 절댓값이 커지는 경향 또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변수에서 하위 집단에 따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경향이나 통계적 유의성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와 임금근로자의 비교와 같이 준거집단의 이질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는 두 변수 간 통계적 관계의 신뢰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표 4-3〉 삶의 만족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영향

	사회조사 (2010~2023)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9~2023)	한국인의 행복조사 (2020~2022)
여성(남성=0)	0.035*** (0.004)	0.123*** (0.019)	0.062*** (0.011)
연령	-0.039*** (0.001)		-0.015*** (0.002)
연령제곱/100	0.035*** (0.001)		0.013*** (0.002)
연령집단(19~29세=0)			
30대		-0.121** (0.037)	
40대		-0.220*** (0.040)	
50대		-0.213*** (0.043)	
60세 이상		-0.144** (0.047)	
혼인상태(배우자 있음=0)			
이혼/별거/사별	-0.225*** (0.006)	-0.210*** (0.035)	-0.230*** (0.022)
미혼	-0.217*** (0.007)	-0.298*** (0.034)	-0.211*** (0.021)

	사회조사 (2010~2023)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9~2023)	한국인의 행복조사 (2020~2022)
교육 수준(중학교=0)			
고등학교	0.050*** (0.005)	0.283*** (0.036)	0.068** (0.023)
대학교 이상	0.210*** (0.006)	0.560*** (0.041)	0.224*** (0.026)
종사상 지위(임금근로자=0)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0.047*** (0.009)	0.034 (0.050)	0.080** (0.03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0.012* (0.006)	-0.022 (0.027)	0.042* (0.017)
무급가족종사자	0.022* (0.011)	-0.122* (0.054)	-0.054+ (0.033)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0.017*** (0.005)	-0.044+ (0.024)	-0.073*** (0.014)
주거 점유 형태(자가=0)			
전세	-0.067*** (0.005)	-0.165*** (0.025)	-0.089*** (0.016)
보증금 있는 월세	-0.192*** (0.006)	-0.271*** (0.039)	-0.128*** (0.028)
보증금 없는 월세	-0.292*** (0.012)	-0.684*** (0.207)	-0.147 (0.111)
무상	-0.078*** (0.010)	0.058 (0.092)	-0.071 (0.119)
가구소득(100만 원 미만=0)			
100~200만 원 미만	0.125*** (0.006)	0.326*** (0.055)	0.178*** (0.035)
200~300만 원 미만	0.239*** (0.007)	0.369*** (0.054)	0.257*** (0.034)
300~400만 원 미만	0.333*** (0.007)	0.455*** (0.054)	0.361*** (0.034)
400~500만 원 미만	0.413*** (0.008)	0.436*** (0.055)	0.387*** (0.034)
500~600만 원 미만	0.516*** (0.009)	0.429*** (0.056)	0.431*** (0.035)
600~700만 원 미만	0.576*** (0.011)	0.450*** (0.059)	0.494*** (0.036)
700만 원 이상	0.702*** (0.010)	0.545*** (0.059)	0.564*** (0.036)

	사회조사 (2010~2023)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9~2023)	한국인의 행복조사 (2020~2022)
지역 고정 효과	YES	YES	YES
연도 고정 효과	YES	YES	YES
지역별 연도 추세	YES	YES	YES
상수항	4.646 (4.314)	-127.004 (90.587)	765.214*** (109.198)
유효표본	388040	40928	47685
adj. R-sq	0.133	0.080	0.075

주: 사회조사는 매우 만족(1)부터 매우 불만족(5)의 리커트 척도를 역코딩함. 결과변수 및 설명변수가 모두 존재하는 분석 대상 자료의 시간적 범위는 자료에 따라 상이함. 사회조사는 2010~2023년 범위의 1년 주기 자료임. 사회통합실태조사는 2019~2023년 범위의 1년 주기 자료임. 한국인의 행복조사는 2020~2022년 범위의 1년 주기 자료임. 가중치를 적용함. 괄호 안 수치는 오차항의 이분산성에 강건한 표준오차임.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출처: “사회조사”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20R&conn_path=I3. 통계청: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한국행정연구원, 각 연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02&conn_path=I3.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 원자료, 각 연도, <https://kossda.snu.ac.kr/handle/20.500.12236/28199#metadata>. 국회미래연구원.

다음 표는 행복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영향을 사회통합실태조사와 한국인의 행복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것이다. 삶의 만족에 대한 영향 분석과 같이, 여성의 행복감이 남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고 이러한 경향은 사회통합실태조사와 한국인의 행복조사에서 일관된다. 연령이 연속변수인 한국인의 행복조사에서 연령에 따른 행복감이 2차 함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과 함께 범주변수인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19~29세 집단 대비 50대가 가장 낮은 U자 형태를 보이는 것도 또한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 이혼, 별거, 사별했거나 미혼 집단의 행복감이 두 개 분석자료에서 낮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경향 또한 일관되게 나타난다. 사회통합실태조사의 경우, 임금근로자 대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나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행복감은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인의 행복조사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행복감이 임금근로자 대비 유의하게 높고, 무급가족종사자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행복감이 유의하게 낮다. 이러한 비일관적인 경향 역시 준거집단인 임금근로자의 이질성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주거 점유 형태에 따라서는 자가인 집단에 비해 전세나 월세 집단의 행복감이 유의하게 낮고, 무상 집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가구소득별로는 100만 원 미만 집단보다 소득이 높은 집단의 행복이 유의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회귀계수의 절댓값 역시 높게 나타나는 일관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4〉 행복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영향

	사회통합실태조사 (2019~2023)	한국인의 행복조사 (2020~2022)
여성(남성=0)	0.155*** (0.020)	0.119*** (0.014)
연령		-0.027*** (0.003)
연령제곱/100		0.021*** (0.003)
연령집단(19~29세=0)		
30대	-0.140*** (0.038)	
40대	-0.312*** (0.041)	
50대	-0.348*** (0.045)	
60세 이상	-0.310*** (0.050)	
혼인상태(배우자 있음=0)		
이혼/별거/사별	-0.204*** (0.037)	-0.326*** (0.028)
미혼	-0.309*** (0.035)	-0.354*** (0.026)

94 행복 및 삶의 질 측정과 정책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

	사회통합실태조사 (2019~2023)	한국인의 행복조사 (2020~2022)
교육 수준(중학교=0)		
고등학교	0.293*** (0.038)	0.179*** (0.030)
대학교 이상	0.521*** (0.045)	0.382*** (0.033)
종사상 지위(임금근로자=0)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0.086 (0.056)	0.121*** (0.03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0.045 (0.028)	-0.006 (0.023)
무급가족종사자	-0.050 (0.056)	-0.083+ (0.043)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0.011 (0.025)	-0.088*** (0.018)
주거 점유 형태(자가=0)		
전세	-0.143*** (0.027)	-0.153*** (0.020)
보증금 있는 월세	-0.247*** (0.040)	-0.181*** (0.037)
보증금 없는 월세	-1.178*** (0.263)	-0.199 (0.169)
무상	0.051 (0.097)	-0.087 (0.169)
가구소득(100만 원 미만=0)		
100~200만 원 미만	0.188*** (0.056)	0.228*** (0.049)
200~300만 원 미만	0.273*** (0.054)	0.327*** (0.048)
300~400만 원 미만	0.350*** (0.055)	0.416*** (0.048)
400~500만 원 미만	0.351*** (0.056)	0.472*** (0.049)
500~600만 원 미만	0.311*** (0.057)	0.550*** (0.049)
600~700만 원 미만	0.356*** (0.059)	0.560*** (0.051)
700만 원 이상	0.461*** (0.060)	0.670*** (0.050)

	사회통합실태조사 (2019~2023)	한국인의 행복조사 (2020~2022)
지역 고정 효과	YES	YES
연도 고정 효과	YES	YES
지역별 연도 추세	YES	YES
상수항	-268.801** (95.184)	1158.004*** (152.653)
유효표본	40928	47685
adj. R-sq	0.068	0.118

주: 결과변수 및 설명변수가 모두 존재하는 분석 대상 자료의 시간적 범위는 자료에 따라 상이함. 사회조사는 2010~2023년 범위의 1년 주기 자료임. 사회통합실태조사는 2019~2023년 범위의 1년 주기 자료임. 한국인의 행복조사는 2020~2022년 범위의 1년 주기 자료임. 가중치를 적용함. 괄호 안 수치는 오차항의 이분산성에 강건한 표준오차임. + $p<0.1$ * $p<0.05$ ** $p<0.01$ *** $p<0.001$.

출처: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한국행정연구원, 각 연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02&conn_path=I3.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 원자료, 각 연도, <https://kossda.snu.ac.kr/handle/20.500.12236/28199#metadata>. 국회미래연구원.

긍정적인 경험으로서 행복과 부정적 경험으로서 걱정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영향은 앞에서 확인한 삶의 만족이나 행복감에 대해 보이는 경향과 반대되거나 다를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남성보다 여성의 삶의 만족, 행복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던 이전 분석 결과에 비해, 남성보다 여성이 보고하는 걱정 수준이 유의하게 낮다. 연령이 연속변수인 한국인의 행복조사에서 걱정 수준은 연령에 따라 역U자 형태를 보이고, 범주변수인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50대의 걱정 수준이 가장 높은 일관된 형태를 보인다. 혼인상태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집단보다 이혼, 별거, 사별한 집단이나 미혼 집단의 걱정 수준이 높은 경향도 사회통합실태조사와 한국인의 행복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교육 수준에 따른 걱정 수준의 경향은 다소 상이한데,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중학교 집단과 비교했을 때 고등학교 집단의 걱정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대학교 이상 집단은 유의하게 낮다. 한국인의 행복조사에서는 중학교 집단에 비해 고등학교 집단의 걱정 수준의 유의하게

높다.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임금근로자보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걱정 수준이 두 분석자료에서 일관되게 높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집단의 영향은 사회통합실태조사를 분석자료로 썼을 때 유의하지 않지만, 한국인의 행복조사를 썼을 때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다만, 걱정에 대해 종사상 지위 영향의 경향이 삶의 만족이나 행복감에 대한 경향과는 상이하다.

주거 점유 형태에 따라서는 자가 집단에 비해 전세, 월세, 무상 집단의 걱정 수준이 유의하게 높다. 분석자료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이 다소 상이하게 드러나나 전반적인 경향은 일관되게 보인다. 가구소득에 따라 100만 원 미만 집단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걱정 수준이 일관되게 낮게 나타난다. 다만, 삶의 만족이나 행복을 결과변수로 한 분석 결과에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회귀계수의 절댓값이 점증하는 경향이 걱정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표 4-5〉 걱정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영향

	사회통합실태조사 (2019~2023)	한국인의 행복조사 (2020~2022)
여성(남성=0)	-0.046+ (0.027)	-0.108*** (0.026)
연령		0.021*** (0.006)
연령제곱/100		-0.024*** (0.006)
연령집단(19~29세=0)		
30대	0.102+ (0.054)	
40대	0.173** (0.059)	
50대	0.203** (0.063)	
60세 이상	0.045 (0.069)	

	사회통합실태조사 (2019~2023)	한국인의 행복조사 (2020~2022)
혼인상태(배우자 있음=0)		
이혼/별거/사별	0.227*** (0.048)	0.190*** (0.045)
미혼	0.169*** (0.049)	0.092+ (0.047)
교육 수준(중학교=0)		
고등학교	-0.020 (0.050)	0.160*** (0.048)
대학교 이상	-0.113+ (0.058)	0.049 (0.054)
종사상 지위(임금근로자=0)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0.325*** (0.074)	0.338*** (0.06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0.007 (0.039)	0.115** (0.040)
무급가족종사자	0.066 (0.073)	-0.066 (0.075)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0.007 (0.035)	0.122*** (0.032)
주거 점유 형태(자가=0)		
전세	0.187*** (0.036)	0.137*** (0.035)
보증금 있는 월세	0.173*** (0.050)	0.065 (0.062)
보증금 없는 월세	0.185 (0.234)	1.044*** (0.213)
무상	-0.024 (0.116)	0.623** (0.195)
가구소득(100만 원 미만=0)		
100~200만 원 미만	-0.146* (0.073)	-0.261*** (0.075)
200~300만 원 미만	-0.213** (0.071)	-0.180* (0.073)
300~400만 원 미만	-0.358*** (0.072)	-0.354*** (0.074)
400~500만 원 미만	-0.274*** (0.075)	-0.291*** (0.075)
500~600만 원 미만	-0.271*** (0.076)	-0.446*** (0.076)

	사회통합실태조사 (2019~2023)	한국인의 행복조사 (2020~2022)
600~700만 원 미만	-0.196* (0.080)	-0.422*** (0.081)
700만 원 이상	-0.145+ (0.081)	-0.489*** (0.078)
지역 고정 효과	YES	YES
연도 고정 효과	YES	YES
지역별 연도 추세	YES	YES
상수항	329.529** (119.951)	1828.948*** (183.871)
유효표본	40928	47685
adj. R-sq	0.069	0.051

주: 결과변수 및 설명변수가 모두 존재하는 분석 대상 자료의 시간적 범위는 자료에 따라 상이함. 사회조사는 2010~2023년 범위의 1년 주기 자료임. 사회통합실태조사는 2019~2023년 범위의 1년 주기 자료임. 한국인의 행복조사는 2020~2022년 범위의 1년 주기 자료임. 가중치를 적용함. 괄호 안 수치는 오차항의 이분산성에 강건한 표준오차임. + $p<0.1$ * $p<0.05$ ** $p<0.01$ *** $p<0.001$.

출처: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한국행정연구원, 각 연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02&conn_path=I3.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 원자료, 각 연도, <https://kossda.snu.ac.kr/handle/20.500.12236/28199#metadata>. 국회미래연구원.

다음 표는 우울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영향이 보이는 일관성을 사회통합실태조사와 한국인의 행복조사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이다. 부정적인 정서적 경험이 우울 수준은 한국인의 행복조사를 분석자료로 했을 때 남성보다 여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반면, 사회통합실태조사를 분석자료로 하면 성별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다. 한국인의 행복조사를 분석한 결과에서 연령에 따른 우울 수준이 역 U자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고,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도 50대에서 가장 높은 역 U자 형태를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다.

혼인상태별로는 두 분석자료를 이용한 모형에서 모두 배우자가 있는 집단보다 이혼, 별거, 사별한 집단과 미혼 집단의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높다. 우울 수준에 대한 교육 수준의 영향은 두 분석자료에서 다소 상이

한데,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쓴 모형에서는 중학교 집단보다 대학교 이상 집단의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반면, 한국인의 행복조사를 쓴 모형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임금근로자보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높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우울 수준이 낮다. 임금근로자보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우울 수준은 한국인의 행복조사를 쓴 모형에서 유의하게 높은데, 이 경향은 사회통합실태조사와 일관되지는 않은 것이다. 가구소득이 100만 원 미만 집단에 비해 소득이 많을수록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한다. 다만 걱정 수준에 대한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삶의 만족이나 행복을 결과변수로 한 분석 결과에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회귀계수의 절댓값이 점증하는 경향이 우울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표 4-6〉 우울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영향

	사회통합실태조사 (2019~2023)	한국인의 행복조사 (2020~2022)
여성(남성=0)	0.005 (0.027)	-0.050* (0.026)
연령		0.031*** (0.006)
연령제곱/100		-0.026*** (0.006)
연령집단(19~29세=0)		
30대	0.105* (0.052)	
40대	0.225*** (0.057)	
50대	0.243*** (0.061)	
60세 이상	0.174** (0.067)	

	사회통합실태조사 (2019~2023)	한국인의 행복조사 (2020~2022)
혼인상태(배우자 있음=0)		
이혼/별거/사별	0.324*** (0.047)	0.402*** (0.046)
미혼	0.242*** (0.048)	0.207*** (0.046)
교육 수준(중학교=0)		
고등학교	-0.039 (0.050)	0.308*** (0.047)
대학교 이상	-0.119* (0.058)	0.302*** (0.053)
종사상 지위(임금근로자=0)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0.289*** (0.079)	0.160* (0.06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0.112** (0.037)	-0.052 (0.038)
무급가족종사자	-0.157* (0.072)	-0.248*** (0.068)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0.009 (0.033)	0.191*** (0.032)
주거 점유 형태(자가=0)		
전세	0.169*** (0.036)	0.078* (0.035)
보증금 있는 월세	0.045 (0.051)	-0.023 (0.060)
보증금 없는 월세	0.399+ (0.219)	1.042*** (0.237)
무상	-0.126 (0.125)	0.504* (0.203)
가구소득(100만 원 미만=0)		
100~200만 원 미만	-0.213** (0.073)	-0.412*** (0.079)
200~300만 원 미만	-0.266*** (0.071)	-0.416*** (0.075)
300~400만 원 미만	-0.447*** (0.073)	-0.656*** (0.076)
400~500만 원 미만	-0.421*** (0.074)	-0.625*** (0.077)
500~600만 원 미만	-0.409*** (0.075)	-0.789*** (0.078)

	사회통합실태조사 (2019~2023)	한국인의 행복조사 (2020~2022)
600~700만 원 미만	-0.372*** (0.079)	-0.839*** (0.082)
700만 원 이상	-0.299*** (0.080)	-1.012*** (0.080)
지역 고정 효과	YES	YES
연도 고정 효과	YES	YES
지역별 연도 추세	YES	YES
상수항	409.137*** (112.160)	1120.280*** (185.196)
유효표본	40928	47685
adj. R-sq	0.070	0.073

주: 결과변수 및 설명변수가 모두 존재하는 분석 대상 자료의 시간적 범위는 자료에 따라 상이함. 사회조사는 2010~2023년 범위의 1년 주기 자료임. 사회통합실태조사는 2019~2023년 범위의 1년 주기 자료임. 한국인의 행복조사는 2020~2022년 범위의 1년 주기 자료임. 가중치를 적용함. 괄호 안 수치는 오차항의 이분산성에 강건한 표준오차임. + $p<0.1$ * $p<0.05$ ** $p<0.01$ *** $p<0.001$.

출처: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한국행정연구원, 각 연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02&conn_path=I3.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 원자료, 각 연도, <https://kossda.snu.ac.kr/handle/20.500.12236/28199#metadata>. 국회미래연구원.

제5절 소결

이 장은 반복 횡단면 조사자료를 이용해 행복 측정 결과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심의 삶의 질 문항에서 통계적 관계의 일관성, 즉 신뢰성이 어떠한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지정통계인 사회조사 2010~2023년 마이크로데이터,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생산하는 승인통계인 사회통합실태조사 2019~2023년 마이크로데이터, 그리고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생산하는 한국인의 행복조사 2020~2022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조사자료에 따른 행복 측정 문항과 삶의 질 문항, 그리고 조사 설계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행복 응답 결과의 추이를 확인한

결과, 조사자료에 따라 상이한 추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각 조사자료는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와 조사표 유치조사, 그리고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였음에도 응답자별 조사 방법을 특정하기 어려워 모드 효과를 세밀하게 검증하기는 어렵다. 하나의 조사표를 활용하므로 문항 순서에 의한 프레이밍 효과 또한 검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 수준, 종사상 지위, 주거 점유 형태, 가구 소득을 중심으로 한 변수와 삶의 만족, 행복감과의 통계적 관계의 경향은 세 가지 조사자료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남성보다 여성의 행복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고, 해외 문헌과 같이 연령에 따른 U자형의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혼, 별거, 사별하거나 미혼인 경우보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행복 수준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하다. 종사상 지위가 전세나 월세 거주자보다 자가 소유자의 행복 수준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하다. 종사상 지위에 따른 영향은 준거집단으로 설정한 임금근로자가 상용직과 임시, 일용직을 포함하는 이질성을 내재하여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향 또한 비교적 일관적이다. 행복과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정적인 정서 경험으로서 걱정과 우울에 대한 영향은 행복에 대한 영향과 상반되는 경향으로 나타나 역시 조사자료에 따른 변수 간 통계적 관계가 일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종합하면, 대표성 있는 반복 횡단면조사 중 행복 측정 결과는 신뢰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사자료별 행복 측정 결과의 통계적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사 방법이나 조사 시기 등의 파라미터 정보의 접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야 모드 효과와 같이 행복 응답 결과를 오염시킬 수 있는 기제를 통제할 수 있다. 조사자료에 따라 모집단의 연령 분포나 조사 시점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서는 연령과 연도를 통제하였는데, 신뢰성 있는 결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표본의 특성에 의한 영향을 역시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5장

정책 활용 사례: 뉴질랜드

제1절 웰빙 예산의 도입 배경과 경과

제2절 웰빙의 개념과 측정

제3절 웰빙 증진을 위한 정책 설계와 활용 사례

제4절 웰빙 증진을 위한 정책 평가

제5절 소결

제5장 정책 활용 사례: 뉴질랜드

제1절 웰빙 예산의 도입 배경과 경과

1. 도입 배경

뉴질랜드의 웰빙 예산 도입 결정은 독창적이라기보다 UN이 제시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실현하기 위해 일국 차원에서 진행된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United Nations, 2024b). 그 이유는 후술할 뉴질랜드 웰빙 예산에서 담고 있는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대시보드, 예산 목표와 우선순위,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항목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UN은 미래정상회의 2024(SOFT: Summit of the Future - 2024)를 기획하면서, 11개의 정책 브리프(Policy Briefs)를 발간하였는데, 그중 네 번째 정책 브리프가 ‘GDP를 넘어(Beyond Gross Domestic Product)’이다(United Nations, 2024a, p. 4). GDP를 넘는 대안 지표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2025년 완결을 목표로 1968년, 1993년, 2008년 세 번에 걸쳐 수정해왔던 지속적 과정이었으며, 이제는 행동할 때이고, 그 행동은 ‘중요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프레임워크(A framework to ‘value what counts’)의 개발이라고 제안하였다(United Nations, 2023, pp. 6-9). 이와 같이 GDP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 지표 개발의 모색은 뉴질랜드가 독창적으로 개척한 것이 아니며, 반세기가 훌쩍 넘은 UN의 미래지향적 공식 의제였던 것이다.

그러나 뉴질랜드만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 예산의 명칭을 ‘웰빙 예산’으로 정하고, 5년간 추진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시 37세라는 세계 최연소 여성 총리였던 저신다 아던(Jacinda Ardern)의 재임 기간(2017년 10월 26일 ~ 2023년 1월 25일) 동안, 뉴질랜드 웰빙 예산(Wellbeing Budget)이 도입되었고, 꾸준히 추진되었다. 저신다 아던과 함께하였던 재무부 장관 그랜트 로버트슨(Hon-Grant Robertson)은 “옛말에 GDP에 가장 좋은 것은 전쟁이고, 그다음으로 좋은 것은 자연 재해라는 말이 있다. 왜냐하면 전쟁과 자연재해에서 회복하려면 경제 활동이 창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 활동의 양은 GDP로 측정되지만, 경제 활동의 질은 GDP로 측정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Walters, 2024. 3. 22.). 이렇듯 “경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노동당의 일관된 입장이 부재했다면(Walters, 2024. 3. 22.), 웰빙 예산 도입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뉴질랜드라는 국가 그리고 노동당 중심의 중도좌파연합 정권이 부재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웰빙 예산’과 만나지는 못했을 것이다. 요컨대, 예산 목표로서 웰빙 도입 주장은 독창적이거나 새롭지 않았으나, 그 행동은 뉴질랜드 노동당만이 독자적으로 실행했다.

2. 경과

뉴질랜드 재무부(The Treasury) 홈페이지에서는 1997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1년 단위로 예산을 공개해 왔다(The Treasury of New Zealand, 2024a). 웰빙 예산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2018년 12월에 공개된 ‘2019년도 예산: 예산정책성명서(Budget 2019: Budget Policy Statement)’였다. 이후 2019년 5월 국회에서 2019년도 웰빙 예산(The Wellbeing Budget 2019)이 통과되었다. 웰빙 예산이 도입되기 이전에

는 ‘예산(Budget)’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웰빙 예산(Wellbeing Budget)’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2023년 1월 저신다 아던 총리의 사임 발표 이후, 그 바통을 이어 노동당 대표로 선출된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가 2023년 1월 25일부터 총리직 수행을 시작하였고, 그해 5월 발표된 예산안도 ‘웰빙 예산’이었다. 그러나 웰빙 예산은 2023년까지였다.

2023년 10월 14일 열린 총선에서, 그동안 웰빙 예산을 주도했던 집권 좌파 정당인 노동당은 우파정당인 국민당에 참패하였다. 2023년 11월 27일 국민당 대표인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Mark Luxon)이 뉴질랜드의 새로운 총리로 취임하였고, 새로운 보수 정부가 등장한 이후인 2024년 5월에 발표된 예산안에서는 웰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과거(2019년 이전)와 마찬가지로 예산이라는 명칭만 사용하고 있다(New Zealand Government, 2023a, 2024).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뉴질랜드의 정권 변화와 웰빙 예산 연혁은 <표 5-1>과 같다. 본 장에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뉴질랜드 정부가 발표한 ‘웰빙 예산’에 주목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표 5-1> 뉴질랜드의 정권 변화와 웰빙 예산 연혁: 2019~2024년

총리	제1당	기간	웰빙 예산 연혁	웰빙 예산
저신다 아던	노동당 (좌파)	2017년 10월 26일 ~ 2023년 1월 25일	- 2018년 12월 예산정책성명서에서 웰빙 예산 도입 최초 발표 - 2019년도 웰빙 예산 최초 심의·의결 - 2020년도 웰빙 예산안 심의·의결 - 2021년도 웰빙 예산안 심의·의결 - 2022년도 웰빙 예산안 심의·의결	○
크리스 힙킨스	노동당 (좌파)	2023년 1월 25일 ~ 2023년 11월 27일	- 2023년도 웰빙 예산안 심의·의결	○
크리스토퍼 럭슨	국민당 (우파)	2023년 11월 27일 ~ 2024년 현재	- 2022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예산안에서 웰빙 용어의 삭제	×

출처: 저자 작성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뉴질랜드 웰빙 예산안 제목을 연도순으로 살펴보면 <표 5-2>와 같다. 연도별 웰빙 예산안 제목은 2019년도 뉴질랜드 웰빙 예산(The Wellbeing Budget 2019), 2020년도 웰빙 예산: 다함께 재건(Wellbeing Budget 2020: Rebuilding Together), 2021년도 웰빙 예산: 안전한 회복(Wellbeing Budget 2021: Securing Our Recovery), 2022년도 웰빙 예산: 안전한 미래(Wellbeing Budget 2022: A Secure Future), 2023년도 웰빙 예산: 현재를 위한 지원, 미래를 위한 건설(Wellbeing Budget 2023: Support for Today, Building for Tomorrow)이다(The Treasury of New Zealand, 2024a). 웰빙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매해 5월에 거치고 있으며, 당해 연도 하반기부터 차기 연도 상반기까지로 회계 연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웰빙 예산안과 함께, 다양한 핵심 보고서(Key Documents)도 제시되고 있다. 2023년을 예로 들면, 2022년 12월 차기 연도 예산안에 대한 사전 발표 성격의 예산정책성명서(Budget Policy Statement 2023), 예산안을 요약한 문서인 한 눈에 보는 예산(Budget at a Glance 2023), 재무부 장관이 국회 논의를 위해 발표하는 예산안 연설(Budget Speech 2023), 항목별 주요 예산액을 연도별 증감으로 제시하는 주요 예산 계획 요약(Summary of Initiatives 2023) 등이다(The Treasury of New Zealand, 2024a).

〈표 5-2〉 뉴질랜드 웰빙 예산안 제목: 2019~2023년

회계연도	공표	제목
2019/ 2020	2019년 5월 30일	2019년도 웰빙 예산 (The Wellbeing Budget 2019)
2020/ 2021	2020년 5월 14일	2020년도 웰빙 예산: 다함께 재건 (Wellbeing Budget 2020: Rebuilding Together)
2021/ 2022	2021년 5월 20일	2021년도 웰빙 예산: 안전한 회복 (Wellbeing Budget 2021: Securing Our Recovery)
2022/ 2023	2022년 5월 19일	2022년도 웰빙 예산: 안전한 미래 (Wellbeing Budget 2022: A Secure Future)
2023/ 2024	2023년 5월 18일	2023년도 웰빙 예산: 현재를 위한 지원, 미래를 위한 건설 (Wellbeing Budget 2023: Support for Today, Building for Tomorrow)

출처: “21세기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복지국가의 제도 개혁 사례 연구”, 김기태, 노현주, 김성욱, 김아래미, 민기채, 송아영, 김보영, 류진아, 20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18에서 저자가 2023년도를 추가하여 수정함; “The Treasury of New Zealand” 주요 예산계획서, New Zealand Government, 2023, Wellbeing Budget Publication.

제2절 웰빙의 개념과 측정

1. 웰빙의 개념

뉴질랜드 웰빙 예산 도입 시, 웰빙을 어떻게 규정하였을까? 웰빙에 대한 개념은 뉴질랜드 정부가 최초로 웰빙 예산 도입을 공표하였던, ‘2019년도 예산: 예산정책성명서(Budget 2019: Budget Policy Statement)’에서 등장한다. ‘웰빙’이란 “사람들이 목적, 균형, 의미를 갖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규정하였으며(New Zealand Government, 2019a, p. 3; 김기태 외, 2022, p.114, 재인용), ‘웰빙 관점(wellbeing approach)’은 “사람들이 목적, 균형, 의미를 갖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현 능력(capabilities)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New Zealand Government, 2018, p. 3; 김기태 외, 2022, p. 114, 재인용). 뉴질랜드 정부가 웰빙 예산 도입을 천명한 초기 문서 이후에, 웰빙 및 웰빙 관점에 대한 의미 있는 변화가 제시된 공식적 수정 논의는 부재하므로, 여전히 위와 같은 기존의 웰빙 개념 및 웰빙 관점 개념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뉴질랜드 정부가 웰빙의 개념을 설명할 때, 주목할 점은 GDP에 대한 비판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웰빙이 정책 결정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성장은 기회를 창출하는 데 중요하지만, 최근의 역사는 경제성장에만 집중하면 역효과가 있고 불평등과 환경오염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뉴질랜드 정부는 비판한다(New Zealand Government, 2018, p. 3). 물론 경제성장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뉴질랜드 정부는 강력한 경제를 웰빙의 중요한 측면으로 인정하고 있데, 예를 들어 더 높은 소득은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New Zealand Government, 2022b, p. 14). 그러나 GDP 같은 기존 척도가 웰빙을 대신할 수는 없으며, 새로운 위험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 해결을 위해서는 웰빙 관점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웰빙 관점은 장기적으로 볼 때, 뉴질랜드인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세대 간 접근법이며, 특히 기후 변화, 아동 빈곤, 불평등 같은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넘어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지 않는다면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없다고 진단하였다(New Zealand Government, 2018, p. 3).

2. 웰빙의 측정

뉴질랜드의 웰빙 및 웰빙 관점에 대한 정의에 기초할 때, 웰빙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 해답으로 뉴질랜드 정부는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Living Standards Framework, LSF)’와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대시보드(Living Standards Framework Dashboard, LSFD)’를 개발 및 개선해왔다.

먼저 생활 기준 프레임워크는 현재와 미래의 웰빙에 중요한 항목들을 포착하기 위해 개발한 틀로서, 다차원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사고를 촉구하는 유연한 프레임워크이다(New Zealand Government, 2022b). 다시 말하여, 뉴질랜드 재무부가 개발한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는 모든 뉴질랜드인의 생활 수준 향상이라는 비전, 즉 웰빙을 실현하기 위해 변경 가능한 정책적 사고의 틀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대시보드는 재무부의 웰빙 보고 및 웰빙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에 대하여 조언을 제공하는 측정 도구로서, 접근 가능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생산된 지표를 사용하고 국제 비교에도 활용된다(New Zealand Government, 2022c, p. 5). 다시 말하여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대시보드는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에서 제시된 영역들을 달성하기 위한 지표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대시보드는 웰빙 보고서 작성에도 사용된다. 2020년 「공공재정법」(Public Finance Act) 제26조 개정으로, 재무부는 4년에 한 번 이상 웰빙 보고서(Wellbeing Reports)를 작성하도록 요구 받았는데, 2022년 11월에 뉴질랜드에서는 최초로 법률에 근거한 웰빙 보고서인 「물의 생명,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 웰빙 2022년」(Te Tai Waiora, Wellbeing in Aotearoa New Zealand 2022)이 발간되었고, 이때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① 뉴질랜드 웰빙 상태,

② 시간에 따른 뉴질랜드 웰빙 상태의 변화, ③ 뉴질랜드 웰빙 상태의 지속 가능성과 위험에 대해 서술하였다(New Zealand Government, 2022b, p. 14). 즉 동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이 3가지 사항을 보고서에서 구체화 하였으며, 이때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대시보드에서 제시한 지표들이 활용되었다.

이와 같이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는 뉴질랜드인의 웰빙 실현을 위한 구조이자 구체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대시보드는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를 현실 세계에서 실현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및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대시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표들은 제3절에서 다룬다.

제3절 웰빙 증진을 위한 정책 설계와 활용 사례

1. 웰빙 증진을 위한 정책 설계

뉴질랜드는 ‘웰빙 증진을 위한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서 ‘예산’에 주목하였다. 일반적으로 ‘예산’이란 국가 또는 단체에서 한 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여 정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 예산은 일정 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국가 수입과 지출을 계획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기획재정부 e-재정배움, 2024). 정책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Titmuss(1974, pp. 23-24)는 ‘정책’이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이며, 이러한 정의에 따라 정책의 특성은 행동 지향적 및 문제해결 지향적 특징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예산과 정책에 대한 각각의 정의에 따라, 본 장에서는 뉴질랜드 웰빙 예산 정책을 “뉴질랜드 웰빙 예산안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수

입과 지출에 대한 행동 원칙”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절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뉴질랜드의 웰빙 증진을 위한 정책 설계는 결국 ‘뉴질랜드 웰빙 예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뉴질랜드 웰빙 예산에서는 예산 정책을 전략적으로 설계하였는데, 이 설계에서 활용한 것이 바로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와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대시보드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뉴질랜드 정부는 국가의 예산을 보다 가치 있게 지출하기 위한 논의 끝에 예산은 ‘웰빙’ 실현이라는 목표하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때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와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대시보드가 웰빙 개선을 위한 예산 결정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차지한다. 뉴질랜드 정부는 예산 지출을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에 기초하면, 어떻게 뉴질랜드인의 웰빙을 개선할 것인가를 보여 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New Zealand Government, 2018, p. 5). 이를 위해 정부의 예산 정책을 구체화시킨 정부 예산안에, 웰빙 실현을 목표로 한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와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대시보드’를 명시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웰빙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설계라고 할 수 있다.

2. 웰빙 증진을 위한 정책 활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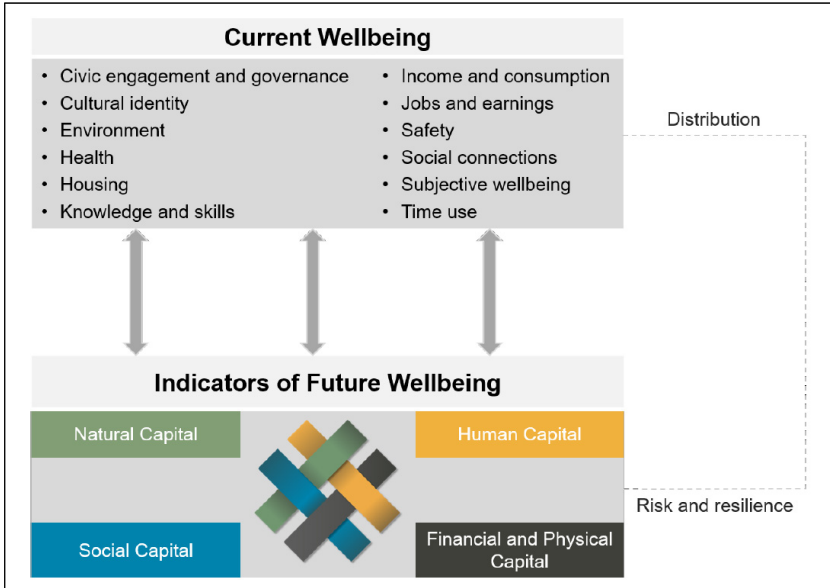
웰빙 증진을 위한 정책 활용 사례는 뉴질랜드의 국가 예산안을 웰빙 예산으로 변모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국가 예산 정책 수립에서 웰빙 관점의 적용’인 것이다. 국가 예산 정책 수립에서 웰빙 관점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뉴질랜드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와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대시보드’의 개발 및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개발과 개선을 살펴보자.

가. 최초의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2018년

뉴질랜드 재무부는 차기 연도인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전 발표 성격의 예산정책성명서(2018년 12월 13일)에서 ‘재무부의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The Treasury’s Living Standards Framework)’를 최초로 제시하였다(New Zealand Government, 2018, p. 7)([그림 5-1] 참조). 그 역할을 재무부에서 담당할 배경으로는, 정부가 재무부에 공식적으로 그간 수행해 온 세계적 수준의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작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가속화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재무부는 OECD의 웰빙 접근 방식과 같이, 30년간 축적된 프레임워크 개발 노력을 기반으로 하여 세대 간 웰빙 달성이라는 목표하에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뉴질랜드 재무부가 개발한 당시의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에서는 ‘현재의 웰빙(Current Wellbeing)’과 ‘미래의 웰빙 지표(Indicators of Future Wellbeing)’가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미래의 위험 및 회복탄력성(risk and resilience)을 예견하여, 현재의 웰빙에 적절히 분산(distribution)함으로써, 제시된 웰빙 영역과 그 영역별 지표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현재의 웰빙은 총 12개 영역으로서, 시민 참여 및 거버넌스, 문화적 정체성, 환경, 건강, 주거, 지식과 기술, 소득과 소비, 노동과 급여, 안전, 사회적 관계, 주관적 웰빙, 시간 사용이며, 미래의 웰빙에 해당하는 4대 자본은 자연 자본, 인적 자본, 사회 자본, 금융 및 물적 자본이다(New Zealand Government, 2018, p. 7). 한편 2018년 최초의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에서는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대시보드를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는 2018년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는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대시보드와 유사하다고 한 바 있다(New Zealand Government, 2022c, p. 6).

[그림 5-1] 뉴질랜드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2018년



출처: “Budget Policy Statement”, New Zealand Government, 2018, <https://www.treasury.govt.nz/sites/default/files/2018-12/bps-2019.pdf>, p.7.

나. 수정된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와 대시보드: 2019년

2019년도 웰빙 예산(2019년 5월 30일)에서는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가 보다 구체화되었다. 2018년 12월 뉴질랜드 재무부에서 최초로 제시한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를 일부 수정한 것이다. 12대 웰빙 영역과 4대 자본은 그대로 반영되었지만, 전반적으로 프레임워크를 구체화하였는데, 특히 프레임워크의 각 요소의 기능과 관계(예, 회복탄력성, 4대 자본)를 명확하게 제시하였다([그림 5-2] 참조).

주요한 변화를 살펴보면, 첫째, 분산의 과정을 구체화하였다. 2018년 최초의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에서는 미래의 위험을 현재의 12대 웰빙 영역에 분산하는 방식이었다면, 2019년에 수정된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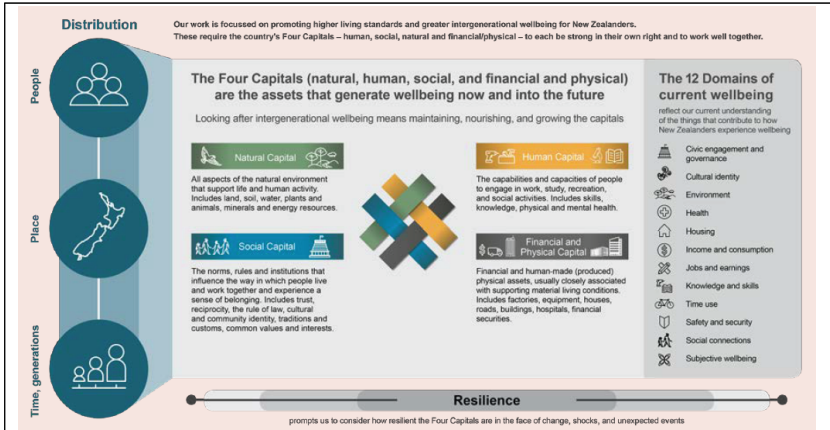
서는 분산 시 12대 웰빙 영역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쳐야 하는 과정이자 중분류(midium category)의 개념으로서, 사람(people), 장소(place), 시간과 세대(time, generations)를 추가한 것이다. 분산의 과정에 사람(주체), 장소(공간), 시간과 세대(시간)를 추가함으로써, 각 웰빙 영역이 추구해야 할 3가지 중요 가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둘째, 회복탄력성의 기능을 구체화하였다. 뉴질랜드인이 변화, 충격 및 예기치 못한 사건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한 4대 자본이 회복탄력성 측면에서 얼마나 강한지(New Zealand Government, 2019b, p. 9)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회복탄력성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뉴질랜드인이 위험에 직면했다면, 그것을 극복해나가야 하는데, 이때 회복탄력성은 4대 자본을 통해 그 위험을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극복해 나가는 작동 원리가 되며, 프레임워크의 지향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셋째, 4대 자본은 미래에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도 그 기능이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변화하였다. 2018년 최초의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에서는 4대 자본을 ‘미래 웰빙의 지표’라고 하였다(New Zealand Government, 2018, p. 7). 반면, 2019년 수정된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에서는 ‘4대 자본은 현재 및 미래 웰빙을 창출하는 자산’이라고 규정하였다(New Zealand Government, 2019b, p. 9).

기존 버전과 마찬가지로 2019년에 수정된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는 현재의 12대 웰빙 영역(The 12 Domains of Current Wellbeing) 및 4대 자본(The Four Capitals)으로 구분되며, 그 하위 내용은 동일하다. 12대 웰빙 영역은 뉴질랜드인이 현재 어떻게 웰빙을 경험하고 있는지, 동시에 각 영역이 뉴질랜드인들에게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대 자본은 현재 및 미래 웰빙을 창출하는 자산이자, 위험에 빠졌을 때 회복탄력성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림 5-2] 뉴질랜드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2019년



출처: “The Wellbeing Budget 2019”, New Zealand Government, 2019b, p.9. <https://www.treasury.govt.nz/sites/default/files/2019-06/b19-wellbeing-budget.pdf>

또한 재무부는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현재의 12대 웰빙 영역 및 4대 자본 각각에 대한 지표를 선정하여 웰빙을 측정하는 대시보드를 <표 5-3>과 같이 개발하였다(New Zealand Government, 2019b, p. 10). 단일 지표 세트로는 뉴질랜드인에게 중요한 모든 것을 포착할 수 없으므로,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영역에 있는 주요 웰빙 지표를 포착하는 것을 목표로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대시보드가 개발된 것이다(New Zealand Government, 2018, p. 7). 한마디로,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대시보드는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에 해당하는 웰빙 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종합한 것이다. 2018년 12월 예산정책성명서에서는 대시보드가 구체화되지 못하였으나, 2019년도 웰빙 예산안에서 처음으로 공식화된 것이다.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대시보드에서 제시하는 웰빙 지표를 보면, 먼저 12대 웰빙 영역 중 시민 참여 및 거버넌스에서 투표율, 정부기관 신뢰, 부패 인식, 문화적 정체성에서 마오리 언어 사용, 정체성 표현력, 환경에서 대기의 질, 자연환경에 대한 접근, 수질(수영 가능성), 인지된 환경의 질,

건강에서 건강한 기대수명, 건강 상태, 정신건강, 자살률, 주거에서 주거 밀도, 주거 비용, 주거의 질, 소득과 소비에서 가처분소득, 재정 상태, 소비, 노동과 급여에서 실업률, 고용률, 시간당 급여, 지식과 기술에서 교육 성취도(고등교육), 교육 성취도(중등교육 이하), 15세의 인지능력, 안전과 보장에서 의도적 살인율, 가정폭력, 작업장 사고율, 안정감, 사회적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망 지원, 외로움, 차별, 마오리족의 사법 연결성, 주관적 웰빙에서 일반적인 삶의 만족, 인생의 목적의식성, 시간 사용에서 여가와 자기돌봄, 유급노동, 무급노동이다(New Zealand Government, 2019b, p. 10). 다음으로 4대 자본 중 금융 및 물적 자본에서 총순자산, 무형 순자산, 가계 순자산, 다원적 생산성(multifactor productivity: MFP), 순 해외투자 포지션(net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NIIP), 총 크라운 순자산(total crown net worth), 인적 자본에서 교육 성취도(고등교육), 교육 성취도(중등교육 이하), 예상 교육 성취도, 비전염성 질병, 15세의 인지능력, 기대수명, 자연 자본에서 자연재해 통제, 기후 규제,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식수, 생물 다양성 및 유전자원, 폐기물 관리, 사회 자본에서 타인 신뢰, 부패 인식, 차별, 정부기관 신뢰, 소속감이다(New Zealand Government, 2019b, p. 10).

〈표 5-3〉 뉴질랜드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대시보드의 웰빙 지표: 12대 웰빙 영역 및 4대 자본 (2019년)

대분류	소분류	제목
영역	시민 참여 및 거버넌스	투표율, 정부기관 신뢰, 부패 인식
	문화적 정체성	마오리 언어 사용, 정체성 표현력
	환경	대기의 질, 자연환경에 대한 접근, 수질(수영 가능성), 인지된 환경의 질
	건강	건강한 기대수명, 건강 상태, 정신건강, 자살률
	주거	주거 밀도, 주거 비용, 주거의 질
	소득과 소비	가처분소득, 재정 상태, 소비
	노동과 급여	실업률, 고용률, 시간당 급여
	지식과 기술	교육 성취도(고등교육), 교육 성취도(중등교육 이하), 15세의 인지능력
	안전과 보장	의도적 살인율, 가정폭력, 작업장 사고율, 안정감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망 지원, 외로움, 차별, 마오리족의 사법 연결성
	주관적 웰빙	일반적인 삶의 만족, 인생의 목적의식성
	시간 사용	여가와 자기돌봄, 유급노동, 무급노동
자본	금융 및 물적 자본	총순자산, 무형 순자산, 가계 순자산, 다원적 생산성 (multifactor productivity, MFP), 순 해외투자 포지션 (net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NIIP), 총 크라운 순자산(total crown net worth)
	인적 자본	교육 성취도(고등교육), 교육 성취도(중등교육 이하), 예상 교육 성취도, 비전염성 질병, 15세의 인지능력, 기대 수명
	자연 자본	자연재해 통제, 기후 규제,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식수, 생물 다양성 및 유전자원, 폐기물 관리
	사회 자본	타인 신뢰, 부패 인식, 차별, 정부기관 신뢰, 소속감

주: New Zealand Government(2019b) p.10, 〈표 2〉를 바탕으로 김기태 외(2022)에서 번역하여 재구성한 표임.

출처: “The Wellbeing Budget 2019”, New Zealand Government, 2019b, <https://www.treasury.govt.nz/sites/default/files/2019-06/b19-wellbeing-budget.pdf>, p.10, 〈표 2〉; “21세기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복지국가의 제도 개혁 사례 연구”, 김기태, 노현주, 김성욱, 김아래미, 민기채, 송아영, 김보영, 류진아, 20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16-117, 〈표 4-2〉.

다. 수정된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와 대시보드: 2021년

뉴질랜드 정부는 2021년에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의 새 버전을 [그림 5-3]과 같이 발표했다. 2019년의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로부터 일정한 변화를 가한 것이었다. 그 취지로는 2018년에 최초 공개한 이후, 첫째, 더 나은 지표가 제공되거나, 둘째,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의 변경에 대응해야 하며, 셋째, 재정의된 영역에 보다 잘 부합할 지표로 구성하기 위함이었다(New Zealand Government, 2022c, p. 1).

주요한 변화를 살펴보면, 첫째,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를 전반적으로 재구성하였다. 먼저 ‘우리의 개인적 및 집단적 웰빙’, ‘우리의 기관과 거버넌스’, ‘뉴질랜드 아오테아로아의 부’라는 3가지 대분류로 새롭게 재편하였다. 기존에는 12대 웰빙 영역과 4대 자본으로 구성되었던 프레임워크를 3가지 대분류로 재편한 것이다. 보다 명확하게는, 12대 웰빙 영역은 ‘우리의 개인적 및 집단적 웰빙’ 및 ‘우리의 기관과 거버넌스’로 분산되었고, 4대 자본은 ‘뉴질랜드 아오테아로아의 부’로 재탄생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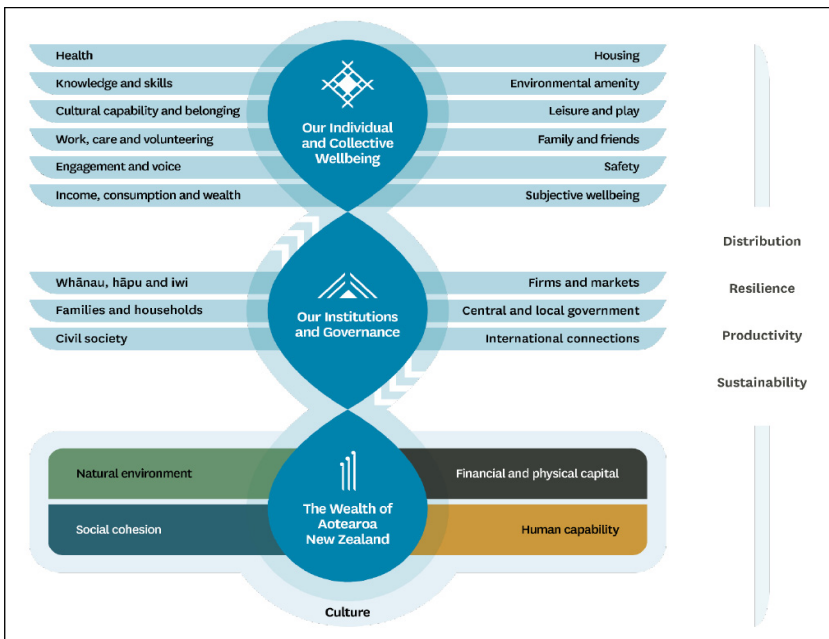
둘째,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의 작동 원리로서 분산과 회복탄력성 이외에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추가하였다. 기존에는 분산과 회복탄력성이라는 용어만 존재하였으나, 효율성을 가미한 생산성과 미래 세대까지를 포괄하는 지속가능성의 개념까지 포괄하였다. 또한 4가지 작동 원리는 특정 요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예컨대, 2019년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에서 회복탄력성은 4대 자본에 초점을 두고 서술되었음), ‘우리의 개인적 및 집단적 웰빙’, ‘우리의 기관과 거버넌스’, ‘뉴질랜드 아오테아로아의 부’라는 3가지 대분류 모두에 해당되는 메커니즘으로 제시되었다.

셋째, 2019년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에서 강조되었던, 사람, 장소, 시간과 세대는 2021년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에서 삭제되고, 문화(culture)가 추가되었다. 사람(주체), 장소(공간), 시간과 세대(시간)의 강조는 사라지

고, ‘우리의 개인적 및 집단적 웰빙’, ‘우리의 기관과 거버넌스’, ‘뉴질랜드 아오테아로아의 부’를 맥락적으로 관통하는 문화를 제시한 것이다.

넷째, 4대 자본이 뉴질랜드 아오테아로아의 부로 변경되었다. 4대 자본 하위 영역의 명칭도 금융 및 물적 자본을 제외하고는 새 프레임워크에서 일부 변경되었다. 인적 자본은 인적 실현 능력(human capability)으로, 자연 자본은 자연환경(natural environment)으로, 사회 자본은 사회통합(social cohesion)으로 변경되었다.

[그림 5-3] 뉴질랜드 재무부의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2021년



출처: “The Living Standards Framework Dashboard”, New Zealand Government, 2022c, https://www.treasury.govt.nz/sites/default/files/2022-03/lstf-dashboard-apr22_2.pdf, p.9.

뉴질랜드 정부는 최신 버전(2021년)의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와 일치하도록 2019년 버전에서 수정된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대시보드를 <표 5-4>와 같이 새롭게 제시하였다. 새로운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대시보드는 2021년 버전의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와 일치하도록 2019년 버전을 진화시킨 것이다(New Zealand Government, 2022c, pp. 12-27). 2019년 버전의 주관적 웰빙 및 그 하위 지표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삶의 만족, 인생의 목적의식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이 전체적으로 변화 및 재구성되었다. 지표의 재구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의된 영역에 보다 잘 일치시키기 위하여, 관련 지표를 추가, 재정의 및 재명명, 타 영역으로 이동시켰다. 즉, 기존의 웰빙 영역을 재정의하면서, 기존에는 부재했던 지표를 신규로 추가하거나, 기존 지표를 새롭게 정의하고 재명명하거나, 재구성된 프레임워크에 기초하여 새로운 영역으로 이동시켰다. 그렇다고 하여 기존 지표를 새로운 지표로 전면 재구성하였다기보다는 대체로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새롭게 구성된 2021년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대시보드를 살펴보면, 먼저 ‘우리의 개인적 및 집단적 웰빙’의 경우, 문화적 실현 능력 및 소속감에서는 정체성 표현력, 예술 참여(신규), 마오리족의 마라이(marae: 마오리 부족의 전통적인 만남의 장소)에 대한 연결, 다언어 사용(신규), 성인의 뉴질랜드 소속감, 청년의 뉴질랜드 소속감(신규), 마오리 언어 사용, 참여 및 의사표현에서는 정부에 대해 말하기(신규), 대중의 영향력 자각(신규), 중앙선거 투표율, 지방선거 투표율(신규), 쾌적한 환경에서는 자연환경에 대한 접근, 식수 관리, 가뭄(신규), 대기의 질로 인한 건강 영향(신규), 인지된 환경의 질, 수영 가능성(강), 가족과 친구에서는 머물 곳(신규), 대면 접촉, 사랑받는 느낌(신규), 외로움, 사회적 관계망 지원, 의지할 사람(신규), 건강에서는 건강 상태, 기대수명, 정신건강, 자살률, 미

총족 건강 욕구(신규), 주거에서는 주거 밀도, 주거비-보증금 부담 능력(신규), 주거비-주택담보대출 부담 능력(신규), 주거비-임대료 부담 능력(신규), 주거비-총소득 대비, 주거의 질, 소득·소비·자산에서는 아동 빈곤-물질적 곤궁, 소비, 가처분소득, 재정 상태, 식품 불안정(신규), 가계 순자산, 지식과 기술에서는 15세의 인지능력, 성인 교육 성취도(고등교육), 성인 교육 성취도(중등교육 이하), 정기적 학교 출석(신규), 여가와 놀이에서는 여가와 자기돌봄,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참여(신규), 일·삶 균형 만족도, 안전에서는 아동기 부상(신규), 가정폭력, 안정감, 의도적 살인율, 도로사고 사망(신규), 작업장 사고율, 주관적 웰빙에서는 일반적인 삶의 만족, 인생의 목적의식성, 일·돌봄·자원봉사에서는 고용률, 시간당 급여, 지역사회 참여(신규), 실업률, 무급노동, 자원봉사(신규), 청년 니트 비율이 있다(New Zealand Government, 2022c, pp. 12-21).

다음으로 ‘우리의 기관과 거버넌스’의 경우,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는 중앙정부 순부채(신규), 부패 인식, 정부기관 신뢰, 시민사회에서는 비영리 부문 영업잉여(신규), 자원봉사(신규), 가족과 가구에서는 가족 웰빙, 가계 부채(신규), 기업과 시장에서는 활동 전망(신규), 은행 시스템 자본(신규), 영업 실적(신규), 다원적 생산성, 연구개발비, 국제적 연결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신규), 외국인 직접투자 유출(신규), 교역 조건(신규), GDP 대비 무역 비중(신규), 마오리 가족·부족·민족에서는 마오리족의 마라이(marae: 마오리 부족의 전통적인 만남의 장소)에 대한 연결(신규), 마오리 가족의 웰빙(신규)이 있다(New Zealand Government, 2022c, pp. 22-24).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아오테아로아의 부’의 경우, 금융 및 물적 자본에서는 총고정 자본 형성(신규), 순무형고정자산, 순 해외투자 포지션, 총 순고정자산, 인적 실현 능력에서는 15세의 인지능력, 성인 교육 성취도

(고등교육), 건강한 기대수명, 비전염성 질병, 마오리 언어 사용(신규), 자연환경에서는 평균 기온(신규), 생물다양성 및 유전자원, 연안 해수면 상승(신규), 순 온실가스 배출량, 재생에너지, 강 환경 상태(신규), 토양 품질, 어획량(신규), 지하수 재고량(신규), 목재 재고량(신규), 사회통합에서는 정체성 표현력(신규), 차별, 소속감, 타인 신뢰가 있다(New Zealand Government, 2022c, pp. 25-27).

〈표 5-4〉 뉴질랜드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대시보드의 웰빙 지표 : 2021년

대분류	소분류	제목
우리의 개인적 및 집단적 웰빙	문화적 실현 능력 및 소속감	정체성 표현력, 예술 참여(신규), 마오리족의 마라이(marae: 마오리 부족의 전통적인 만남의 장소)에 대한 연결, 다언어 사용(신규), 성인의 뉴질랜드 소속감, 청년의 뉴질랜드 소속감(신규), 마오리 언어 사용
	참여 및 의사표현	정부에 대해 말하기(신규), 대중의 영향력 자각(신규), 중앙선거 투표율, 지방선거 투표율(신규)
	쾌적한 환경	자연환경에 대한 접근, 식수 관리, 가뭄(신규), 대기의 질로 인한 건강 영향(신규), 인지된 환경의 질, 수명 가능성(강)
	가족과 친구	머물 곳(신규), 대면 접촉, 사랑받는 느낌(신규), 외로움, 사회적 관계망 지원, 의지할 사람(신규)
	건강	건강 상태, 기대수명, 정신건강, 자살률, 미충족 건강 욕구(신규)
	주거	주거 밀도, 주거비-보증금 부담 능력(신규), 주거비-주택담보대출 부담 능력(신규), 주거비-임대료 부담 능력(신규), 주거비-총소득 대비, 주거의 질
	소득·소비·자산	아동 빈곤-물질적 곤궁, 소비, 가처분소득, 재정 상태, 식품 불안정(신규), 가계 순자산
	지식과 기술	15세의 인지능력, 성인 교육 성취도(고등교육), 성인 교육 성취도(중등교육 이하), 정기적 학교 출석(신규)
	여가와 놀이	여가와 자기돌봄,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참여(신규), 일-삶 균형 만족도
	안전	아동기 부상(신규), 가정폭력, 안정감, 의도적 살인율, 도로 사고 사망(신규), 작업장 사고율
	주관적 웰빙	일반적인 삶의 만족, 인생의 목적의식성
	일·돌봄·자원봉사	고용률, 시간당 급여, 지역사회 참여(신규), 실업률, 무급노동, 자원봉사(신규), 청년 니트 비율

대분류	소분류	제목
우리의 기관과 거버넌스	중앙 및 지방 정부	중앙정부 순부채(신규), 부패 인식, 정부기관 신뢰
	시민사회	비영리 부문 영업잉여(신규), 자원봉사(신규)
	가족과 가구	가족 웰빙, 가계 부채(신규)
	기업과 시장	활동 전망(신규), 은행 시스템 자본(신규), 영업 실적(신규), 다원적 생산성, 연구개발비
	국제적 연결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신규), 외국인 직접투자 유출(신규), 교역 조건(신규), GDP 대비 무역 비중(신규)
	마오리 가족·부족·민족	마오리족의 마라이(marae: 마오리 부족의 전통적인 만남의 장소)에 대한 연결(신규), 마오리 가족의 웰빙(신규)
뉴질랜드 아오테 아로아의 부	금융 및 물질 자본	총고정 자본 형성(신규), 순무형 고정자산, 순 해외투자 포지션, 총순고정자산
	인적 실현 능력	15세의 인지능력, 성인 교육 성취도(고등교육), 건강한 기대수명, 비전염성 질병, 마오리 언어 사용(신규)
	자연환경	평균 기온(신규), 생물다양성 및 유전자원, 연안 해수면 상승(신규), 순 온실가스 배출량, 재생에너지, 강 환경 상태(신규), 토양 품질, 어획량(신규), 지하수 재고량(신규), 목재 재고량(신규)
	사회통합	정체성 표현력(신규), 차별, 소속감, 타인 신뢰

출처: “The Living Standards Framework Dashboard”, New Zealand Government, 2022c, https://www.treasury.govt.nz/sites/default/files/2022-03/lsf-dashboard-apr22_2.pdf, pp.9-27.

제4절 웰빙 증진을 위한 정책 평가

1. 웰빙 증진을 위한 예산 정책 목표

‘정책 평가’란 정책을 실행한 이후에 그 정책에 대한 결과물에 대하여 평가하는 작업이며, 기본적으로 시행한 정책에 따른 사업이 정책목표에 부합하여 수행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손병덕, 2020, p. 165). 정책 평가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대표적인 유형은 2가지이다. 그것들은 목표지향적 평가인 총괄평가와 과정 지향적 평가인 형성평가인데, 총괄평

가는 정책이 목표로 한 바에 대한 결과를 한눈에 제공해 준다는 장점이 있으며, 형성평가는 실행상의 구체적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장점을 갖는다(Chatterji, 2003). 사회과학 분야에서 ‘정책 평가 기준’은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적절성, 반응성 등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평가 기준은 효과성이라고 할 수 있다. 효과성은 “정책이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평가하는 정책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The W.K. Kellogg Foundation(1998, p. 101)은 정책 평가의 목적이 3가지인데, 그것들은 프로그램 개선,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새로운 지식 창출이라고 한 점에서도 ‘효과성’ 평가 기준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목표지향적 평가인 총괄평가에 기초하되, 정책 평가 기준으로서 효과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뉴질랜드 웰빙 예산 5년에 대한 평가는 어떠할까? 그 해답을 위해 먼저 뉴질랜드에서 실행한 웰빙 예산의 목표를 파악하고, 다음으로 웰빙 예산의 효과성, 즉 목표 달성에 따른 정책 평가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뉴질랜드에서는 1989년에 제정된 「공공재정법」(Public Finance Act)에 의거하여, 정부는 ‘예산정책성명서’를 통해 웰빙 목표(wellbeing objectives)를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웰빙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제시하여야 한다(New Zealand Government, 2022a, p. 15). 매해 12월 발간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예산정책성명서’의 웰빙 목표를 종합하면 다음의 <표 5-5>와 같다.

전반적으로 볼 때, 뉴질랜드 웰빙 예산의 목표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주요한 특징을 보면, 첫째, 2019년을 제외하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웰빙 예산 목표의 영역은 5개(2020년 기준으로 보면, 환경, 노동, 소수민족, 아동, 건강)로 동일하다. 둘째, 2019년의 건강 인프라 투자, 2021년과 2022년의 COVID-19 이슈를 제외하면, 5년간 웰빙 예산 목표는 내용상 거의 동일하다. 셋째, 2022년과 2023년의 목표 우선순위

는 동일한데, 그것들은 환경, 건강, 노동, 마오리족과 태평양 지역주민, 아동의 순이다.

〈표 5-5〉 뉴질랜드 웰빙 예산 목표 변화: 2019~2023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	■ 정신건강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고려	■ 환경 기후 탄력적, 지속가능한, 공해 제한적 경제로의 전환 지원	■ 환경 COVID-19로 부터 일상을 회복하는 가운데, 기후 탄력적, 지속 가능한, 공해 제한적 경제로의 전환 지원	■ 환경 기후 탄력적, 지속가능한, 공해 제한적 경제로의 전환 지원	■ 환경 기후 탄력적, 지속가능한, 공해 제한적 경제로의 전환 지원
2	■ 아동 아동 웰빙 개선	■ 노동 모든 뉴질랜드 국민의 산출 혜택 및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지원	■ 노동 모든 뉴질랜드 국민과 기업의 산출 혜택 및 혁신을 통해 COVID-19로 영향을 받은 일반노동자, 여성노동자, 청년노동자의 생산성과 임금 향상 지원	■ 건강 모든 뉴질랜드인의 건강 개선 및 COVID-19 최소화로 지역사회 보호 지원	■ 건강 모든 뉴질랜드인의 건강 개선 및 청년의 정신건강 개선
3	■ 소수민족 마오리족과 태평양 지역주민의 열망 지원	■ 소수민족 마오리족과 태평양 지역주민의 소득, 기술, 기회 향상 지원	■ 건강 모든 뉴질랜드인의 건강 개선 및 COVID-19 퇴치	■ 노동 모든 뉴질랜드 국민과 기업의 산출 혜택 및 혁신을 통한 생산성과 임금 향상 지원	■ 노동 모든 뉴질랜드 국민과 기업의 산출 혜택 및 혁신을 통한 생산성과 임금 향상 지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4	■ 노동 생산적 국가 건설	■ 아동 빈곤 감소 및 아동 웰빙 개선	■ 소수민족 마오리족과 태평양 지역주민의 소득, 기술, 기회 향상 및 COVID-19 대응하기	■ 소수민족 마오리족과 태평양 지역주민의 소득, 기술, 기회 향상 및 저렴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주택 지원	■ 소수민족 마오리족과 태평양 지역주민의 소득, 기술, 기회 향상 및 저렴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주택 지원
5	■ 환경 경제 전환	■ 건강 모든 뉴질랜드인의 건강 개선 지원	■ 아동 빈곤 감소 및 아동 웰빙 개선	■ 아동 빈곤 감소, 아동 웰빙 개선, 저렴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주택 지원	■ 아동 빈곤 감소, 아동 웰빙 개선, 저렴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주택 지원
6	■ 건강 인프라 뉴질랜드 투자				

주: New Zealand Government의 각 연도별 예산 목표를 바탕으로 김기태 외(2022)에서 번역하고 저자가 2023년을 추가하여 재구성한 표임.

출처: “21세기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복지국가의 제도 개혁 사례 연구”, 김기태, 노현주, 김성욱, 김아래미, 민기재, 송아영, 김보영, 류진아, 20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30-131 <표 4-8>; “The Wellbeing Budget 2023”, New Zealand Government, 2023.

2. 웰빙 증진을 위한 예산 정책 평가의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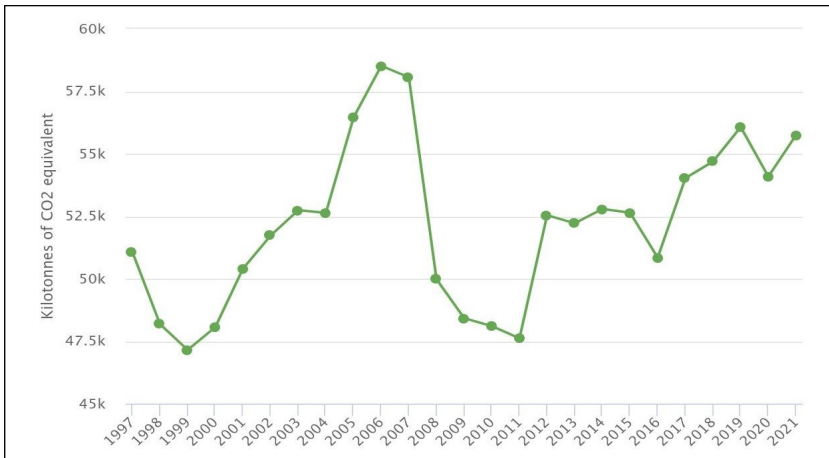
가. 환경: 정의로운 전환

2023년도 웰빙 예산의 환경 분야 웰빙 목표는 ‘정의로운 전환: 기후 탄력적, 지속가능한, 공해 제한적 경제로의 전환 지원’이다(New Zealand Government, 2022a, p. 15).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대시보드의 환경 관련 지표들은 다양한데, 뉴질랜드 아오테아로아의 부 중에서 자연환경에 해당하는 순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를 살펴보았다.

[그림 5-4]와 같이 순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1997년부터 2021년까지 살펴본 결과, 1997년 51.1kt으로 시작하여, 1999년에 47.1kt으로 가장 낮았다가, 2006년은 58.5kt으로 가장 높았으며, 2010년대부터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뉴질랜드 웰빙 예산이 도입된 첫해인 2019년에는 58.5kt, 2020년에는 54.1kt으로 소폭 낮아졌다가, 2021년에는 55.7kt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순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의 변화를 볼 때, 웰빙 예산의 첫 번째 목표인 ‘정의로운 전환’ 달성을 위한 정책 효과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4] 뉴질랜드 순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1997~2021년

(단위: kt)



주: 1. 기간은 1997년부터 2021년까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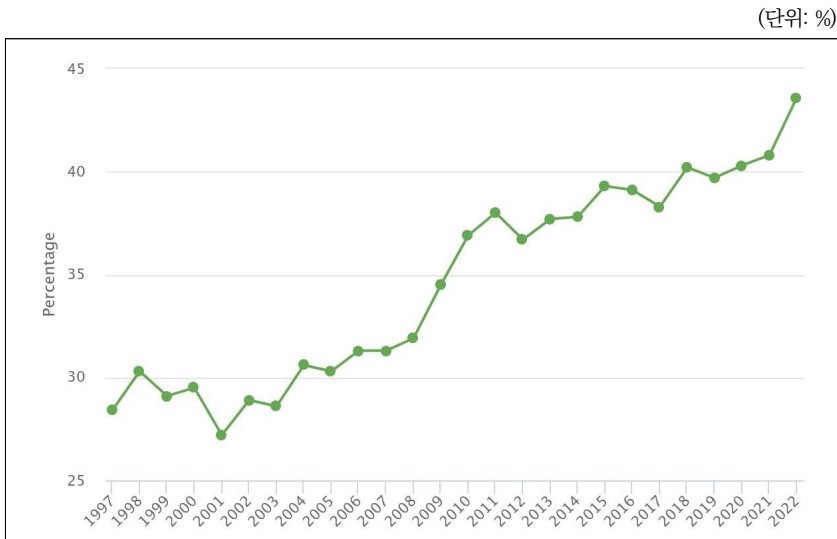
2. 단위인 kt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단위를 의미하여, 1kt = 1,000ton을 의미함.

출처: “The Treasury of New Zealand”, Living Standards Framework Dashboard, 2024b.
<https://lsfdashboard.treasury.govt.nz/wellbeing/>.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함.

다음으로, 총 에너지 공급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로 측정된 재생에너지 지표를 살펴보았다. [그림 5-5]와 같이 총 에너지 공급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 변화를 1997년부터 2022년까지 살펴본 결과, 1997년에 28.4%로

시작하여, 2001년에는 27.2%로 가장 낮았다가, 2000년대와 2010년대 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뉴질랜드 웰빙 예산이 도입된 이후를 보면, 2019년 39.7%, 2020년 40.3%, 2021년 40.8%, 2022년 43.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재생에너지 지표의 변화를 볼 때, 웰빙 예산의 첫 번째 목표인 ‘정의로운 전환’ 달성을 위한 정책 효과성이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5] 뉴질랜드 재생에너지 변화: 1997~2022년



주: 1. 기간은 1997년부터 2022년까지임.

2. 단위인 %는 총 에너지 공급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의미함.

출처: “The Treasury of New Zealand”, Living Standards Framework Dashboard, 2024b.
<https://lsfdashboard.treasury.govt.nz/wellbeing/>.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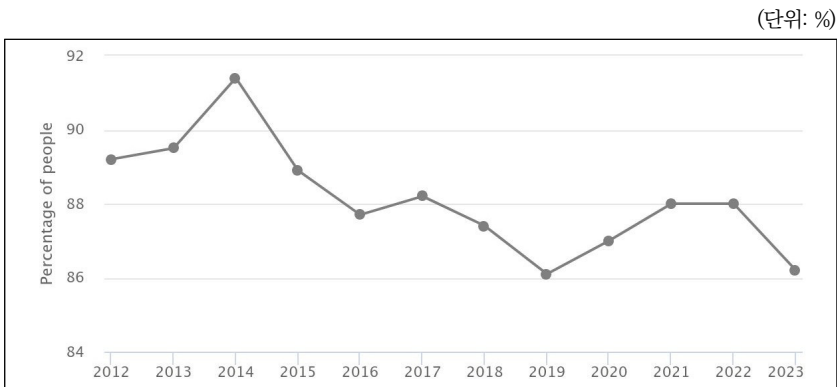
나. 건강: 신체적·정신적 웰빙

2023년도 웰빙 예산의 건강 분야 웰빙 목표는 ‘신체적·정신적 웰빙: 모든 뉴질랜드인의 건강 개선 및 청년의 정신건강 개선’이다(New Zealand

Government, 2022a, p. 15).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대시보드의 건강 관련 지표들은 다양한데, 우리의 개인적 및 집단적 웰빙 중 건강 영역에 해당하는 건강 상태 지표를 살펴보았다. 건강 상태 지표는 전체 응답자 중 ‘건강 상태가 좋다’ 또는 ‘건강 상태가 매우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로 측정되었다.

[그림 5-6]과 같이 건강 상태 변화를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살펴본 결과, 2012년 89.2%로 시작하여, 2014년 91.4%로 가장 높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뉴질랜드 웰빙 예산이 도입된 이후를 보면, 2019년 86.1%, 2020년 87.0%, 2021년 88.0%, 2022년 88.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가 가장 최근인 2023년 86.2%로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 지표의 변화를 볼 때, 웰빙 예산의 두 번째 목표인 ‘신체적·정신적 웰빙’ 달성을 위한 정책 효과성에는 큰 변화가 없이, 정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6] 뉴질랜드 건강 상태 변화: 2012~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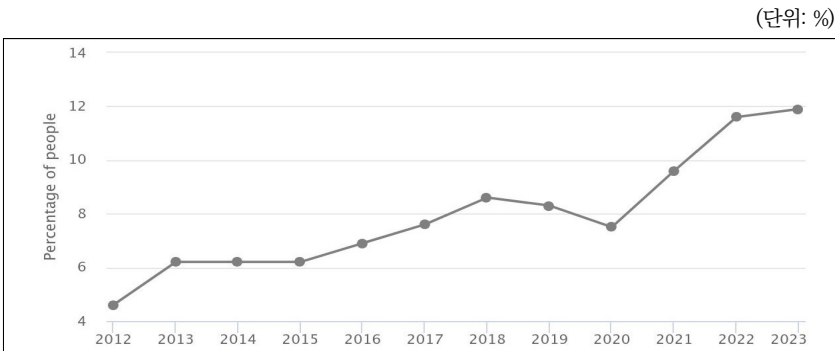
주: 1. 기간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임.

2. 단위인 %는 전체 응답자 중 ‘건강 상태가 좋다’ 또는 ‘건강 상태가 매우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함.

출처: “The Treasury of New Zealand”, <https://lsfdashboard.treasury.govt.nz/wellbeing/>.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함.

다음으로, 전체 응답자 중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다’ 또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매우 높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로 측정된 정신건강 지표를 살펴 보았다. [그림 5-7]과 같이 정신건강의 지표 변화를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살펴본 결과, 2012년에 4.6%로 시작하여, 2018년 8.6%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뉴질랜드 웰빙 예산이 도입된 이후를 보면, 2019년 8.3%, 2020년 7.5%로 심리적 스트레스가 소폭 감소하였다가, 2021년 9.6%, 2022년 11.6%, 2023년 11.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정신건강 지표의 변화를 볼 때, 웰빙 예산의 두 번째 목표인 ‘신체적·정신적 웰빙’ 달성을 위한 정책 효과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7] 뉴질랜드 정신건강 변화: 2012~2023년



주: 1. 기간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임.

2. 단위인 %는 전체 응답자 중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다’ 또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매우 높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함.

출처: “The Treasury of New Zealand”, <https://lsfdashboard.treasury.govt.nz/wellbeing/>.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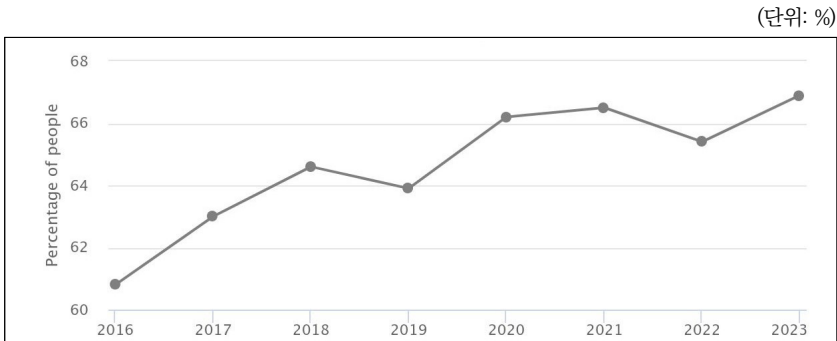
다. 노동: 노동의 미래

2023년도 웰빙 예산의 노동 분야 웰빙 목표는 ‘모든 뉴질랜드 국민과 기업의 신기술 채택 및 혁신을 통한 생산성과 임금 향상 지원’이다(New

Zealand Government, 2022a, p. 15).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대시보드의 노동 관련 지표들은 다양한데, 우리의 개인적 및 집단적 웰빙 중 지식과 기술 영역에 해당하는 성인 교육 성취도(고등교육) 지표를 살펴보았다. 성인 교육 성취도(고등교육) 지표는 고등교육을 받은 25세 이상 인구의 비율로 측정되었다.

[그림 5-8]과 같이 성인 교육 성취도(고등교육) 변화를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살펴본 결과, 2016년 60.8%로 시작하여, 2018년 64.6%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뉴질랜드 웰빙 예산이 도입된 이후를 보면, 2019년 63.9%, 2020년 66.2%, 2021년 66.5%, 2022년 65.4%, 2023년 66.9%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성인 교육 성취도(고등교육) 지표의 변화를 볼 때, 웰빙 예산의 세 번째 목표인 ‘노동의 미래’ 달성을 위한 정책 효과성이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8] 뉴질랜드 성인 교육 성취도(고등교육) 변화: 2016~2023년



주: 1. 기간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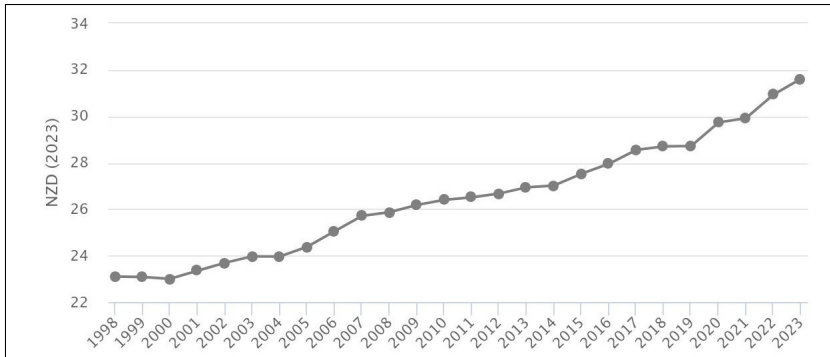
2. 단위인 %는 고등교육을 받은 2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의미함.

출처: “The Treasury of New Zealand”, <https://lsfdashboard.treasury.govt.nz/wellbeing/>.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함.

다음으로,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대시보드의 노동 관련 지표들은 다양한데, 우리의 개인적 및 집단적 웰빙 중 일·돌봄·자원봉사 영역에 해당하는 시간당 급여 지표를 살펴보았다. 시간당 급여(NZ\$; 뉴질랜드 달러) 지표는 중위값으로 산출되었다. [그림 5-9]와 같이 시간당 급여 지표의 변화를 1998년부터 2023년까지 살펴본 결과, 1998년 23.10 NZ\$로 시작하여, 2006년 25.05 NZ\$로 25 NZ\$를 돌파하였고, 2018년 28.70 NZ\$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뉴질랜드 웰빙 예산이 도입된 이후를 보면, 2019년 28.72 NZ\$, 2020년 29.73 NZ\$, 2021년 29.92 NZ\$, 2022년 30.93 NZ\$, 2023년 31.61 NZ\$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시간당 급여 지표의 변화를 볼 때, 웰빙 예산의 세 번째 목표인 ‘노동의 미래’ 달성을 위한 정책 효과성이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9] 뉴질랜드 시간당 급여 변화: 1998~2023년

(단위: NZ\$)



주: 1. 기간은 1998년부터 2023년까지임.

2. 단위인 NZ\$는 뉴질랜드 달러이며, 시간당 급여는 중위값으로 산출함.

출처: "The Treasury of New Zealand", <https://lsfdashboard.treasury.govt.nz/wellbeing/>.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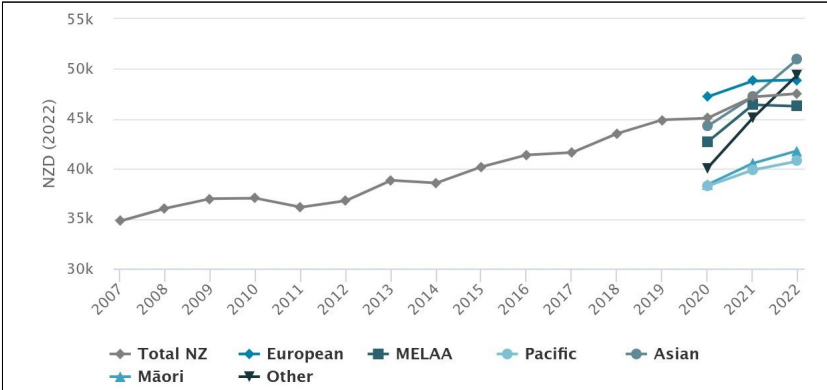
라. 소수민족: 마오리족과 태평양 지역주민의 웰빙

2023년도 웰빙 예산의 소수민족 분야 웰빙 목표는 ‘마오리족과 태평양 지역주민의 소득, 기술, 기회 향상 및 저렴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주택 지원’이다(New Zealand Government, 2022a, p. 15).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대시보드의 소수민족 관련 지표들은 다양한데, 우리의 개인적 및 집단적 웰빙 중 소득·소비·자산 영역에 해당하는 가처분소득 지표를 살펴보았다. 가처분소득 지표는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하고 주거비 지출 전의 세후 중위 균등화 실질가구소득으로 측정되었다.

[그림 5-10]과 같이 소비자물가 지수를 반영한 가처분소득 변화를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살펴본 결과, 2007년부터 2019년까지는 민족 집단별 값이 제공되지 않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제공되고 있었다. 뉴질랜드 웰빙 예산이 도입된 이후를 보면, 뉴질랜드 전체 국민 가처분소득의 경우 2020년 45,100 NZ\$, 2021년 47,200 NZ\$, 2022년 47,500 NZ\$로 상승하였으며, 마오리족 가처분소득의 경우 2020년 38,400 NZ\$, 2021년 40,500 NZ\$, 2022년 41,800 NZ\$로 상승하였고, 태평양 지역주민 가처분소득의 경우 2020년 38,300 NZ\$, 2021년 39,900 NZ\$, 2022년 40,800 NZ\$로 상승하였다. 전반적으로 가처분소득 지표의 변화를 볼 때, 웰빙 예산의 네 번째 목표인 ‘마오리족과 태평양 지역주민의 웰빙’ 달성을 위한 정책 효과성이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10] 뉴질랜드 가처분소득 변화: 2007~2022년

(단위: NZ\$)



주: 1. 기간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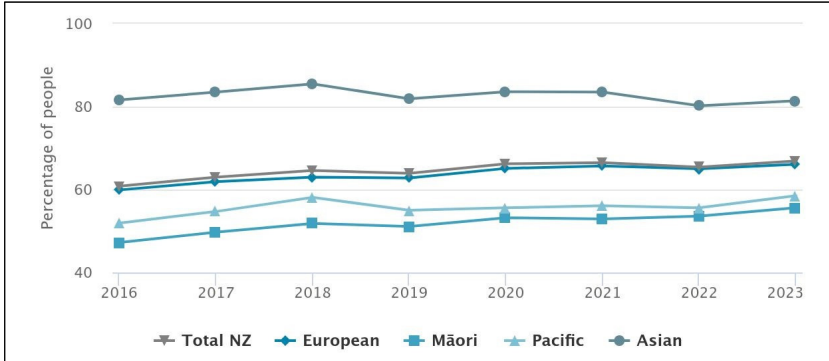
2. 단위인 NZ\$는 뉴질랜드 달러이며, 가처분소득은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하고 주거비 지출 전의 세후 중위 균등화 실질가구소득이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함.

출처: "The Treasury of New Zealand", <https://lsfdashboard.treasury.govt.nz/wellbeing/>.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함.

다음으로, 우리의 개인적 및 집단적 웰빙 중 지식과 기술 영역에 해당하는 성인 교육 성취도(중등교육 이하) 지표를 살펴보았다. [그림 5-11]과 같이 성인 교육 성취도(중등교육 이하) 지표 변화를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살펴본 결과, 뉴질랜드 전체 국민의 경우, 2016년 60.8%로 시작하여, 2019년 63.9%, 2023년 66.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마오리족의 경우 2016년 47.2%로 시작하여, 2019년 51.1%, 2023년 55.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태평양 지역주민의 경우 2016년 51.9%로 시작하여, 2019년 55.0%, 2023년 58.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성인 교육 성취도(중등교육 이하) 지표의 변화를 볼 때, 웰빙 예산의 네 번째 목표인 '마오리족과 태평양 지역주민의 웰빙' 달성을 위한 정책 효과성이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11] 뉴질랜드 성인 교육 성취도(중등교육 이하) 변화: 2016~2023년

(단위: %)



주: 1. 기간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임.

2. 단위인 %는 중등교육을 받은 2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의미함.

출처: “The Treasury of New Zealand”, <https://lsfdashboard.treasury.govt.nz/wellbeing/>.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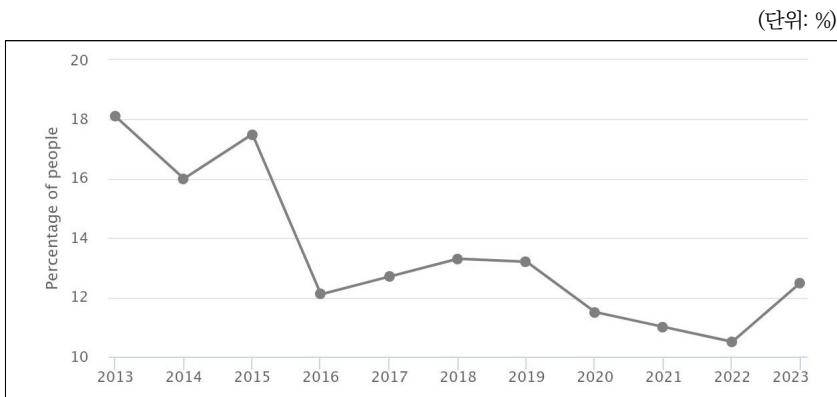
마. 아동: 아동 웰빙

2023년도 웰빙 예산의 아동 분야 웰빙 목표는 ‘아동 빈곤 감소, 아동 웰빙 개선, 저렴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주택 지원’이다(New Zealand Government, 2022a, p. 15).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대시보드의 아동 관련 지표들은 다양한데, 우리의 개인적 및 집단적 웰빙 중 소득·소비·자산 영역에 해당하는 아동 빈곤-물질적 곤궁 지표를 살펴보았다. 아동 빈곤-물질적 곤궁은 물질적 곤궁을 경험한 가구에서 살아가는 아동의 비율로 측정되었다.

[그림 5-12]와 같이 아동 빈곤-물질적 곤궁의 변화를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살펴본 결과, 2013년에 18.1%로 가장 높았다가, 2016년에 12.1%까지 감소한 후, 2017년 12.7%, 2018년 13.3%로 소폭 증가하였다. 뉴질랜드 웰빙 예산이 도입된 이후를 보면, 2019년 13.2%, 2020년 11.5%, 2021년 11.0%, 2022년 10.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가

가장 최근인 2023년 12.5%로 다시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아동 빈곤-물질적 곤궁 지표의 변화를 볼 때, 웰빙 예산의 다섯 번째 목표인 ‘아동 웰빙’ 달성을 위한 정책 효과성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없이, 정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12] 뉴질랜드 아동 빈곤-물질적 곤궁 변화: 2013~2023년



주: 1. 기간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임.

2. 단위인 %는 물질적 곤궁을 경험한 가구에서 살아가는 아동의 비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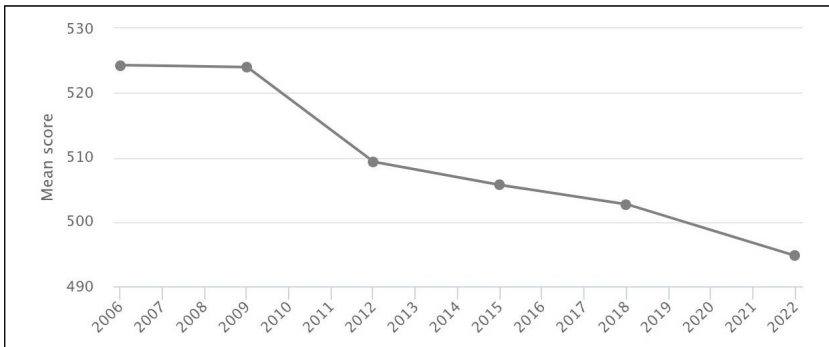
출처: “The Treasury of New Zealand”, <https://lsfdashboard.treasury.govt.nz/wellbeing/>.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함.

다음으로, 우리의 개인적 및 집단적 웰빙 중 지식과 기술 영역에 해당하는 15세의 인지능력 지표를 살펴보았다. 15세의 인지능력 지표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의 읽기, 수학, 과학 과목의 합산 점수로 측정되었다. [그림 5-13]과 같이 15세의 인지능력 지표 변화를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살펴본 결과, 2006년에 524점으로 시작하여, 2009년에도 524점을 유지한 이후, 2012년 509점, 2015년 506점, 2018년 503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뉴질랜드 웰빙 예산이 도입된 이후를 보면, 2022년 495점으로 500점 이하로 떨어졌다. 전반적으로 15세의 인지능력 지표의

변화를 볼 때, 다섯 번째 목표인 ‘아동 웰빙’ 달성을 위한 정책 효과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13] 뉴질랜드 15세의 인지능력 변화: 2006~2022년

(단위: 점)



주: 1. 기간은 2006년부터 2022년까지임.

2. 단위인 점은 국제학업성취도평가의 읽기, 수학, 과학 과목의 합산 점수를 의미함.

출처: “The Treasury of New Zealand”, <https://lsfdashboard.treasury.govt.nz/wellbeing/>.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함.

제5절 소결

여기에서는 뉴질랜드 웰빙 예산이 실제 정책으로서 활용되었는데, 어떻게 접근하여야 정책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관한 시사점 도출에 집중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첫째, 새롭게 고안된 획기적인 정책이 현실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뉴질랜드 웰빙 예산이 5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공식 예산 문서에서 “GDP는 더 이상 국가의 성공 척도가 될 수 없으며, 웰빙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는 점이다(New Zealand Government, 2018, p. 3). 주류 경제학 또는 주류 복지 자본주의론에

입각한다면, 이 주장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뉴질랜드인의 웰빙 실현을 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국가의 성공 기준이지, GDP의 총량 증가가 국가의 성공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과감한 선언이었다. 결국 정책 결정과 활용의 승패 여부는 국가 차원에서 결심하여 기존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새로운 대안을 현실 정치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하는 것이다.

둘째, 웰빙 측정을 위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에 주목할 수 있다. 특정 시점의 웰빙 프레임워크는 만고불변하지 않다. 뉴질랜드는 2018년 12월 예산정책성명서에서부터 프레임워크와 프레임워크 대시보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성명서에서는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대시보드는 첫 번째 버전이며, 향후 버전에서는 파악된 격차와 한계가 드러난 영역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마오리 문화의 관점, 아동 복지 및 문화 정체성을 보다 완전하고 풍부하게 표현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하였다(New Zealand Government, 2018, p. 7).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력 있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발맞추어 뉴질랜드 재무부는 예산 수립 과정에서 6개월마다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대시보드의 지표 관련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있다(New Zealand Government, 2022c, p. 5).

셋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네트워킹과 참여라는 웰빙 예산 수립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총리였던 저신다 아던과 재무부 장관 그랜트 로버트슨은 2019년 웰빙 예산은 세계 최초로 도입된 것이라고 밝히며, 언론의 협조를 구하였다. 2019년 5월, 웰빙 예산 발표에 앞서 기자들을 재무부 사무실로 초대하여, 웰빙 접근 방식이 기존의 전통적 접근 방식과 다른 이유, 예산 우선 분야, 공무원들이 성공을 측정하는 방법의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하였다(Walters, 2024. 3. 22.). 특히 장애인에게 자기 삶에 대한 더 큰 통제권을 부여했던 Enabling Good Lives와 마오리족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마오리족 대표단의 예

산 참여 보장은 사회적 약자를 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시킨 대표적 예시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재무부가 주도하고 재무부가 모든 부처의 조정자가 되어 웰빙 예산을 집행해왔다.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의 최초 명칭도 ‘재무부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The Treasury’s Living Standards Framework)’였다. 일반적으로 ‘예산’ 집행의 주무부처는 재무부이지만, ‘웰빙’의 주무부처는 노동사회부일 것이다. 이러한 상식을 깨고, 재무부가 ‘웰빙 예산’에 대한 센터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갖고, 모든 부처와의 협업을 진행해 온 것이다.

다섯째, 웰빙 예산 우선순위를 다년간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했다는 점이다. 단년 반짝 예산이 아닌 다년 계속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관련 부처가 장기적 관점에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이슈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정책으로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년간의 중장기적 관점이 중요할 것이다.

여섯째, 웰빙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전 국민적 합의, 미래지향적 의제 선정이 요청된다. 뉴질랜드 웰빙 예산에서는 첫 번째 우선순위로서 환경 분야를 선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천명하였다. 우리나라도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를 미래 세대를 위한 방향으로 선정한다면, 정책적 합의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9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6조(예산의 원칙)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6개의 호(號)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재정건전성 확보, 국민 부담 최소화,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 성과 제고, 예산 과정의 투명성과 예산 과정에의 국민참여 제고, 성별 영향평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의무규정 또는 노력의 의무규정이다. 이 호들 중 주목할 것은 제6호로서, 해당 호에서는 “정부는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뉴질랜드 웰빙 예산에서는 예산 목표의 우선순위로서, ‘기후 탄력적, 지속가능한, 공해 제한적 경제로의 전환 지원’을 제1의 과제로 제시하였다. 한국의 웰빙 실현을 위해서, 뉴질랜드의 환경 분야에 대한 최우선적 예산 배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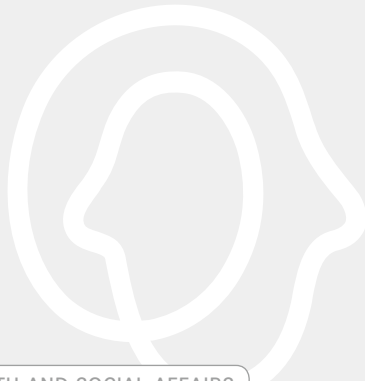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웰빙 예산의 효과 평가이다. 뉴질랜드 웰빙 예산에서는 주요 지표를 모니터링하여 웰빙 예산에 의한 정책 설계와 시행이 실제 국민의 웰빙을 증진하는 성과를 드러내었다. 그러나 지표값의 변화에 정책이 기여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캐나다 퀘벡의 보편적 아동 돌봄 프로그램이 실제 아동의 삶의 만족과 다차원적 삶의 질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한 것처럼(Baker et al., 2008; Baker et al., 2019), 예산이 투입된 정책이 실제 국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와 메커니즘을 검증하는 행복영향평가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영향을 받는 인구 집단의 행복과 삶의 질 수준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검증된 평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뉴질랜드 웰빙 예산은 종말을 고한 것일까? 웰빙 예산이라는 명칭은 진보 정부의 선거 참패로 인해, 그 이름이 국가 예산안에서 삭제되었다. 새롭게 등장한 보수 정부는 더 이상 웰빙 예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뉴질랜드 일부 언론은 “웰빙 예산은 죽었다(The Wellbeing Budget is dead)”라고 평가하기도 하였지만, 뉴질랜드 재무부 장관이었던 그랜트 로버트슨은 “웰빙 예산이라는 이름만 빼고는 계속 살아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Walters, 2024. 3. 22.). ‘긴 하얀 구름의 땅(Aotearoa, The Land of the Long White Cloud)’은 웰빙 예산의 실현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6장

결론과 정책 활용 방안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정책 활용 방안

제6장 결론과 정책 활용 방안

제1절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사회정책의 궁극적인 지향으로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증진이 갖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이 추상적이고도 다차원적이어서 해당 개념의 측정 결과에 대한 주요 질문 혹은 쟁점에 상응하는 근거를 찾아 정책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로 출발했다. 이를 위해 문헌 검토와 조사실험, 2차 자료 분석, 정책 사례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해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행복을 개념화하고 측정하는 방안, 다차원적인 삶의 질과의 관계, 행복 측정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 그리고 실제 정책에 활용된 해외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의 출발 지점에서 답을 찾고자 한 첫 번째 질문은 “추상적인 행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였다. 철학, 심리학, 경제학 등에서 ‘행복’에 대한 연구를 축적해 왔다. 종합하면, 행복은 단순히 불편하지 않거나 고통스럽지 않은 상태를 넘어 자족할 수 있는 삶의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은 ‘다차원적인 삶의 질과 행복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해석할 것인가?’이다. 다수의 문헌에서 삶의 질과 행복의 관계를 병렬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다차원적인 삶의 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처럼 일방향의 관계로 설정하기도 한다. 소득이나 자산 등 경제력, 교육 수준이나 건강 등 인적 자본, 사회적 교류나 도움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 등 사회적 자본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양질의 삶을 누리며 행복을 경험하는 일련의 궤적이 있을 수 있다.

세 번째 질문은 ‘행복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이다. 여러 문헌에서 시도한 경험을 종합한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 수준, 최악의 상태와 최상의 상태 중 현재 삶에 대한 평가 수준, 정서적 측면을 반영하는 행복감 등의 방식을 통해 수치로 측정한다. 이 중에서 정서적 행복감 이외 삶의 만족의 경험적 지표를 행복 측정의 표준적인 척도로 쓰는 반면(Helliwell, Layard, & Sachs, 2023, p.17, OECD, 2024), 삶의 평가는 인지적 평가를 반영하는 특성을 가진다(Esterlin, 2021/2022)

네 번째 질문은 ‘측정 결과가 행복을 대표할 수 있는가?’이다.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같은 척도를 이용하더라도 서베이에 따라 측정 결과가 상이한 현상에 주목해, 조사 설계, 특히 조사 방법에 의한 모드 효과와 조사표 내 문항의 순서에 따른 프레이밍 효과를 검증하였다. 조사 방법에 따라서는 자기응답식 조사보다 조사원에 의한 조사에서 행복 측정 결과가 일관되게 높았다. 문항 순서에 따라서는, 행복에 관한 문항이 가구와 개인 소득 문항에 뒤이어 제시되지 않고, 가장 먼저 제시된 경우에 행복 측정 결과가 일관되게 높았다. 서베이에서 행복 척도의 응답 값은 조사 방법이나 프레이밍 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같은 척도를 쓰더라도 조사에 따라 결과가 다른데 측정 결과 간 관계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이다. 전국 대표성을 확보한 반복 횡단면 조사자료(repeated cross-sectional data)를 2차 자료로 활용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삶의 질’ 측정 변수와 ‘행복’ 측정 결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이나 연령, 혼인 상태와 교육 수준, 종사상 지위, 주거 점유 형태와 가구 소득 수준 등 인적 자본 차원과 경제적 차원의 삶의 질 측정 요소가 삶의 만족과 행복감의 행복 측정 결과와 일관된 통계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걱정과 우울의 부정적인 정서 경험에 대한 영향으로 확인한 삶의 질 요소와 행복 측정 결과 간 통계적 관계 또한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전국

대표성 있는 조사자료에 한해서는 행복 측정 결과를 신뢰할 만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마지막 질문은 ‘주관적인 경험인 행복을 삶의 질 차원의 투입(input) 단위 설계 중심의 사회정책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이다. 이 연구에서는 개정 재정법을 법적 근거로 하여 실시된 뉴질랜드의 웰빙 예산제의 도입 배경과 경과, 제도에 의한 웰빙 개념과 측정 방식, 실제 정책에의 활용 사례와 웰빙에 대한 정책 평가를 중심으로 정책 사례를 검토하였다. 검토한 결과, 뉴질랜드의 사례는 사회정책 설계와 운영에 웰빙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재무부에 의한 예산 분배에 웰빙 실태가 반영되면서 정책의 실효성이 담보되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웰빙의 개념과 측정 방식, 그리고 정책에 활용하는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했다는 점에서 주효했다. 다만, 정책이 실제 웰빙 증진에 얼마만큼의 실증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정책 효과 평가가 비어 있다는 점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종합하면, 사회정책의 궁극적인 지향으로서 행복과 삶의 질을 활용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다만, 추상적인 개념인 행복과 다차원적인 삶의 질을 정책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측정 방법의 일관성이나 결과의 정책 활용 등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있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행복과 삶의 질 개념을 사회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제2절 정책 활용 방안

여기에서는 행복과 삶의 질 측정 결과를 사회정책에 직접 활용하기 위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축은 서베이를 활용해 추상적인 행복과 다차원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는 방

안이다. 이를 위해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기 위한 OECD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요소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OECD, 2013, pp.151-178). 첫째, 목표 모집단은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인구 집단으로서, 전 국민 혹은 정책의 표적 집단(target group)을 조사 대상으로 포괄해야 한다(OECD, 2013, pp.151-152). 다만, 행복 응답 결과가 조사 방법에 의한 모드 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동일한 조사 방법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제4장에서 분석한 2차 자료에서 조사 대상자 범위를 설정한 것과 같이(〈표 4-1〉 참조), 조사원에 의한 대면 혹은 전화 조사가 아닌 자기응답식 조사라면 질문을 이해하고 적절한 응답을 할 수 있는 성인이 적절할 수 있다. 이때, 아동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나 스스로 응답하기 어려운 지적 문제를 가진 응답자는 조사 대상자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조사를 실시하는 시점 및 주기는 일정해야 한다(OECD, 2013, pp.153-155). 예를 들어, 제4장에서 분석한 2차 자료는 1년에 1회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조사를 수행하는 시기는 매년 상이해 10~12월 정도의 간격을 가질 수 있다(〈표 4-1〉 참조). 그렇다면 조사를 실시하는 주기가 일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뜻한 기후의 지역에 산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Schkade & Kahneman, 1998), 경험적 지표의 응답 결과의 수준은 계절 영향을 받을 수 있다(Murray, 2003). 그렇다면 행복과 삶의 질 실태를 조사할 때는 조사를 실시하는 시점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하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 동일한 조사자료 내에 상이한 응답 시점으로 인한 체계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사 기간을 축소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파라미터를 관리, 공개하여 조사 시점에 의한 영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사의 응답 대상자 규모, 즉 유효표본의 크기는 적절한 수준에서 확보해야 한다(OECD, 2013, p.155). 일반적으로 큰 규모의 표본

(large sample)을 확보해야 응답 결과의 평균 등 통계치가 중심극한정리(Central Limit Theorem, CLT)를 충족하거나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수 있다. 중심극한정리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집된 표본을 충분히 크게 확보했다면,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에 수렴한다는 것이다. 정규 분포에 수렴한다는 것은 표본을 활용해 산출한 통계치를 이용해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정규 분포에 수렴하는 최소한의 표본 크기에 대해 합의된 바는 없지만, 크면 클수록 좋다는 데에 이견은 거의 없다. 제4장에서 분석한 2차 자료는 모두 전 국민을 조사 모집단으로 하여, 표집 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크기의 표본을 확보하고 있다(〈표 4-1〉 참조).

넷째, 조사 방법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OECD, 2013, p.156). 이 연구의 제3장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조사원에 의한 조사와 비교했을 때 자기응답식 조사에서 행복의 응답 결과가 일관되게 높게 나타났다(〈그림 3-2〉 참조). 정서적 측면을 반영하는 행복감과 포괄적인 삶의 만족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지는 반면, 인지적 판단을 반영하는 삶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조사 방법의 차이에 강건하다(〈그림 3-3〉 참조). 현재 한국에서 행복 측정 척도를 포함하는 주요 조사는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와 조사표 유치를 통한 자기응답식 조사, 그리고 자기응답식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표 4-1〉 참조). 그런데 응답자별 조사 방법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조사 시점에 대한 파라미터와 함께 응답자 개인의 조사 방법에 대한 정보를 함께 관리, 공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조사표를 설계하는 데에 있어 다양한 행복 측정 척도를 포함하면서도 프레이밍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OECD, 2013, pp.159-172). 추상적인 행복을 측정하는 데에는 삶의 만족, 삶의 평가, 행복감 등의 척도를 주로 쓴다. 행복이 다차원적인 삶의 영역에서 획득하는 경험의 총합이라면, 행복의 다양한 측면을 측정하는 척도뿐만 아니라 다차원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를 조사표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이전에 소득 등 경제력을 상기하는 경험의 행복 수준을 응답하는 데에 체계적 차이를 유발하는 프레이밍 효과를 고려한다면, 행복 측정 척도를 조사표의 가장 앞부분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 문항을 직전에 물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른 체계적인 차이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그림 3-4]~[그림 3-6] 참조), 다른 질문과의 조합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Benjamin, Cooper, Heffetz, Kimball(2023)은 측정 결과의 타당성을 우려하는 경제학에서 행복 개념을 활용하기 위해 서베이에 활용한 측정 방안을 다음 표와 같이 제안하였다. 경제학에서 효용(utility)의 대리변수로 활용하는 선호(preference)와 비교했을 때, 행복의 응답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사항과 기존 조사자료에 의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에 고려할 사항과 새로운 조사자료를 생산할 때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였다(〈표 6-1〉 참조). 특히 응답자 간 행복 측정 척도 이질성(scale use heterogeneity)을 통제하기 위해 조정 문항(CQs)을 개발하였으나(Benjamin, Cooper, Heffetz, Kimball, Zhou, 2023), 아직 신뢰성이 검증되지는 않았다.

〈표 6-1〉 행복 측정 결과의 경제적 활용을 위한 고려 사항

구분			활용	
			즉시 적용 가능한 사항	향후 개선할 사항
해석/ 데이터 수집	선호 대비 해석		- 중요한 결정 반영 - 비화폐적 가치 반영 - 포괄적>평가적>정서적 - 가족 웰빙 포함 - 주관적 웰빙 기반 가격 - 생애 기대 vs. 자기 인식	
	데이터 수집	기존 조사자료 활용	- 질문 순서 무작위 배치 - 보완적 질문 활용 - 파라데이터 수집과 공개	- 시간 범위 및 소속 집단 - 유사(quasi-) 연속 척도
		새로운 조사자료 생산	- 다회(multiple) 조사 - 다양한 행복 척도 활용(가족, 건강, 안정성, 삶의 의미, 삶의 평가, 자유, 실현 능력)	- 조정 문항(CQs_ 활용 - 자기 반성적 문항 활용 - 가중치 활용

출처: “From Happiness Data to Economic Conclusion”, Benjamin, D. J., Cooper, K., Heffetz, O., & Kimball, M. S. 2023, Annual Review of Economics, 16(3), 359-391. p.385에서 번역하여 제시함.

여섯째,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행복 측정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OECD, 2013, pp.172-174). 예를 들어, 조사원에 의한 대면 혹은 전화조사 시 자기응답식 조사에 비해 행복 응답 결과가 일관되게 낮게 나타났다. 이 경우, 조사원의 태도나 말투가 응답자에게 비언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사원에 의한 조사가 조사 문항을 설명하는 등 조사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에 유효할 수 있지만, 응답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통제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조사원 교육 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의 언어적, 비언어적 소통 방식을 통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여기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두 번째 축은 행복과 삶의 질 측정 결과를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측정에 대한 첫 번째 축에 이어 몇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측정 결과의 사회정책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사회정책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

자체가 사회정책의 궁극적인 지향이지만, 개별 사업 단위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상자 집단을 표적하거나 정책 수단, 혹은 전달체계를 구상해야 한다. 행복 수준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결과는 삶의 질이 저하된 취약계층을 추적하거나 사회경제적 변화로 등장하는 새로운 취약계층을 발견하는 데에 쓸 수 있다. 팬데믹으로 도시를 봉쇄한다는 발표 직후 영국인들의 삶의 만족 수준이 현저히 낮아졌고, 2008년 이후 다른 아랍 국가 지역 국민의 행복 수준이 개선된 것과 달리 아랍의 봄이 일어난 국가에서 국민의 행복 수준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그림 2-4) 참조). 청년의 고립이나 은둔이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이행 과정에서 누적한 실패의 결과로서 삶의 질을 저해하는 새로운 취약성이라는 사실은 고립·은둔 청년의 현저히 낮은 행복 수준으로 확인되었다(김성아 외, 2023, pp.158-161). 행복 수준이 현저히 낮은, 혹은 급격히 낮아지는 추세를 모니터링하여 새로운 행복 취약계층을 발견하고, 사회정책을 통한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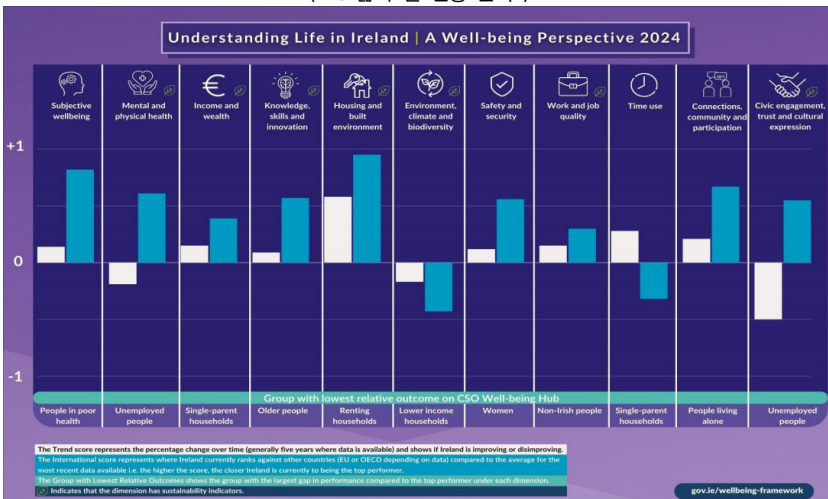
이를 위해서는 조사 주기를 분기, 월, 혹은 주 단위로 단축해야 한다. 국내에서 행복과 삶의 질 측정 문항을 포함하는 대표성 있는 서베이는 대부분 1년을 주기로 시행된다(표 4-1) 참조). 조사표 수정과 조사 설계와 실사 준비, 실사와 분석 등 일련의 과정이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후 마이크로 데이터가 공개된다면, 계절 등 조사 시점이나 갑작스러운 사회적 사건의 영향을 통제하기 어렵다. 한편, 영국에서는 행복과 삶의 질 측정 질문 세트, 조사 설계를 유지하면서 분기 혹은 주 단위로 국민의 행복 수준을 조사하고 결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사회적 사건 혹은 정책 변화의 즉시적인 영향을 발견하는 데에 활용한다(ONS, 2024.8.8., YouGov, n.d.). 분기별 자료는 영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의 연간인구조사(Annual Population Survey)의 일환으로 구축하여 통계치를 공개한다(ONS, 2024.8.8.). 주 단위 자료는 조사업체에서 연령, 성별, 교육 수준, 거주지역, 사회적 계층, 투표

경험, 정치적 지향 등의 측면에서 전국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패널을 구축하여 전화, 대면,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생산하고, 가중치로 표집 오차를 보정한 통계치를 즉시 공개한다. 2024년 10월 29일 기준, 최근 자료는 2024년 10월 23일에 조사된 것이다(YouGov, 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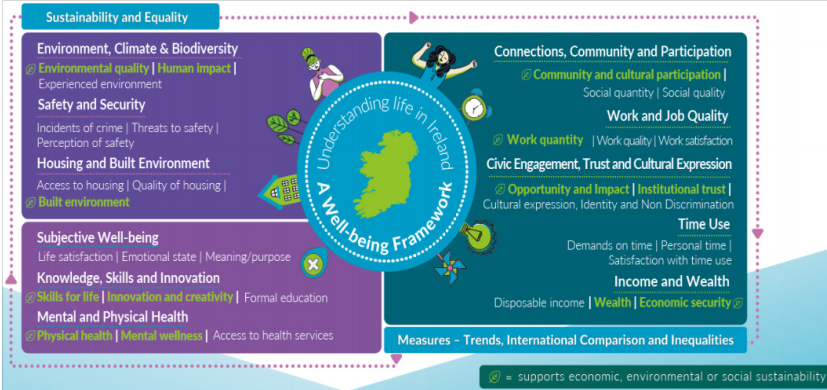
둘째, 국민 행복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정책 설계와 운영이 필요하다. 다차원적인 삶의 질 영역에 따라 생활 수준이 보다 개선되어야 할 영역에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할 수 있다. 제5장에서 뉴질랜드의 개정 재정법에 의한 웰빙 예산 제도를 검토하였다. 아일랜드에서는 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삶의 질 현황을 평가하고 영역별 표적 취약계층과 주요 정책을 나열한다(Department of Finance, 2024, [그림 6-1]의 A, B). 그리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량 목표를 설정하고, 영역별 정책 패키지를 종합하여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지원 수준과 효과를 시뮬레이션한다.

[그림 6-1] 아일랜드 2025년 삶의 질 재정운용계획 수립

〈 A. 삶의 질 현황 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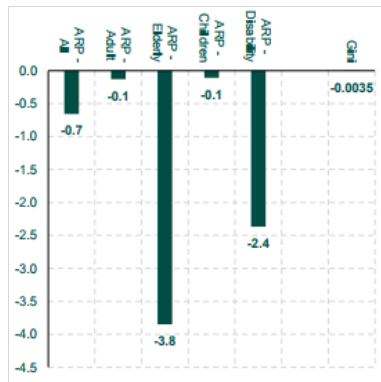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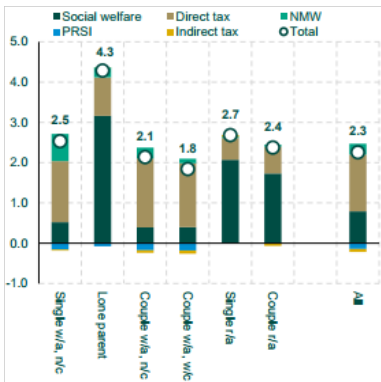
〈 B. 삶의 질 영역별 정책 〉



〈 C. 소득보장 패키지에 의한 빈곤 및 불평등 완화 효과 시뮬레이션 〉

취약집단 유형별 처분가능소득 변화 추정

취약집단 유형별 빈곤 및 불평등 완화 효과



주: 시뮬레이션에서 취약집단 유형은 왼쪽부터 순서대로 전체, 성인, 노인, 아동, 장애인 빈곤율, 지니계수임. ARP(at-risk-of-poverty)는 빈곤 집단임.

출처: “Budget 2025: Beyond GDP: Quality of Life Assessment”, Department of Finance, 2024, Government of Ireland, p.10, p.13, p.23, p.24.

예를 들면, 아일랜드 재무부에서 평가하기를 환경과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영역의 삶의 질 수준이 현저히 낮고, 이 영역의 핵심 취약계층은 저소득 가구이다. 이들의 회복력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처분가능소득을 보상하고자 할 때 아동부조나 돌봄자 수당 등 소득보장 및 조세 패키지를 종합한다. 2025년 재정을 반영한 공적이전소득을 시뮬레이션하여 저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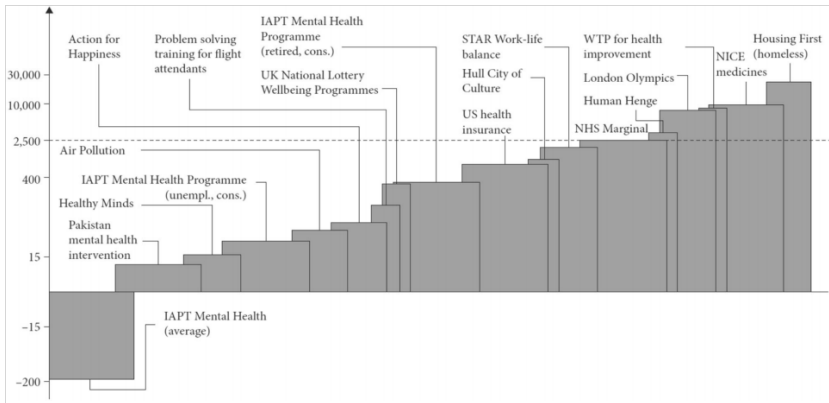
가구에 배분하고, 이로 인한 빈곤과 불평등 완화 효과를 추정한다(Department of Finance, 2024, [그림 6-1]의 C).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시나리오를 종합하여 2025년도의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뉴질랜드와 아일랜드에서 웰빙 예산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한 것은 재정 배분 기능을 담당하는 재무부의 역할이 주효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행복 수준이 현저히 낮은 취약계층 혹은 급격히 낮아지는 새로운 취약계층을 발견하고 사회정책을 통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들을 표적하는 정책 개발, 특히 재정 배분과 운용이 필요하다. 행복과 삶의 질 취약계층으로서 소수민족인 마오리족과 아동에 주목한 뉴질랜드의 웰빙 예산,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핵심 취약계층으로서 저소득 가구에 주목한 뉴질랜드의 웰빙 예산의 경험이 이를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행복과 삶의 질 수준이 현저히 낮지만 기존 취약계층의 프레임으로 포착하지 못한 고독사 위험 집단이나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정책화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보건복지부, 2024.6.30., 2024.2.21.) 한국의 시도가 일시적이라면, 뉴질랜드와 아일랜드의 선례와 같이 행복과 삶의 질을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는 제도화를 고려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행복 수준뿐만 아니라 행복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는 행복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재정운용정책에 행복과 삶의 질 측정 결과를 직접 활용할 것은 주장한 OECD(2024)에서는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과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CEA)을 제안하였다. CBA에서는 최종 성과를 화폐 가치화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의 경험으로서 행복을 계량화한 측정 결과를 화폐 가치로 전환하는 것은 또 다른 이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시한 CEA는 삶의 질 혹은 행복을 개선한 성과 자체를 정책의 성과로 활용할 수 있다(OECD, 2024, pp.4-5).

다차원적 삶의 질 영역에서 정책 변화를 경험한 국민이 시차를 두고 응답한 행복의 점수가 1단위 증가했다면, 그 정책은 국민 행복을 증진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행복의 1단위 변화가 얼마만큼의 사회적 가치를 가지는지, 혹은 행복의 점수 변화가 정책 변화에 기인하는 것 인지는 검증할 문제이다. WELLBY(Wellbeing-Year)는 정책 목표로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를 산출하는 데에 행복 점수의 변화를 활용하는 계량적인 모형으로 제안된 것이다(Frijters et al., 2024). 이 방식에서는 가장 낮은 사회적 가치 단위를 산출하는 정책을 비교군으로 하여 개별 정책의 공적인 가치를 산출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행복 개선 효과가 큰 정책을 도출할 수 있다. 아래 그림에 따르면, 노숙인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의 행복 개선 효과가 가장 크다.

[그림 6-2] WELLBY 모형에 의한 영국 15개 정책의 행복 개선 효과



주: Y축은 로그로 변환한 영국 파운드 기준임.

출처: "The WELLBY: a new measure of social value and progress", Frijters, P., Krekel, C., Sanchis, R., Santini, Z. I., 2024, Humanities &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 11, p.3.

뉴질랜드의 웰빙 예산제는 국가의 사회정책을 설계하는 재정운용계획에 행복과 삶의 질 개념을 직접 활용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정

책 효과를 평가하고 차년도 사업 설계에 반영하는 데에는 지표의 모니터링에 그쳤다는 한계를 가진다. 아일랜드의 웰빙 예산제에서는 차년도 재정운용계획에서 삶의 질 개선 효과를 추정하였으나, 실제 정책 효과 평가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WELLBY는 재정정책으로 유발된 사회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평가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나, 국내에서 시도한 바는 없다.

이 연구는 사회정책을 통해 복지국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국민 행복 수준을 증진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상적 경험으로서 행복을 측정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 검토와 조 사실험, 2차 자료 분석과 정책 사례 분석을 시도하여, 주요 쟁점에 따른 근거를 확보했다는 데에 의의를 가진다. 그럼에도 전 국민과 주요 행복 취약계층의 행복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모니터링하고, 실제 정책 단위에서 행복영향평가를 시도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관계부처합동. (2023).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2024~2028). 관계부처 합동.
- 국가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9호, 2023. 8. 8. (타법개정)
- 국립국어원. (n.d.). 표준국어대사전. 2024.6.10. 검색, <https://stdict.korean.go.kr/>
- 국회미래연구원. (각 연도). 한국인의 행복조사[데이터 세트]. KOSSDA. <https://kossda.snu.ac.kr/handle/20.500.12236/28199#metadata>.
- 기획재정부 e-재정배움. (2024). 예산소개. https://finedu.moef.go.kr/html.do?menu_code=010201.
- 김기태, 노현주, 김성욱, 김아래미, 민기채, 송아영, 김보영, 류진아. (2022). 21세기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복지국가의 제도 개혁 사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doi.org/10.23060/kihasa.a.2022.18>
- 김성아, 김문길, 임덕영, 노혜진, 노현주. (2023).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아, 이태진, 채수미, 유한별, 정소희, 남재현, 심수진. (2021). 국가사회 발전 측정을 위한 삶의 질 지수 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성아, 정해식. (2020). 행복 측정의 프라이밍 효과와 프레이밍 효과. 조사연구, 21(4), pp.93-118.
- 김성아, 최영준, 김아래미, 임소현. (2024). 팬데믹 위기 속 사회적 고립, 그 양상과 결과. 사회보장연구, 40(1), pp.147-185.
- 김성아. (2022). 사회적 고립의 심리적 비용: 주요국과의 비교. 사회보장연구, 38(3), pp.115-152.
- 김지현, 김복환, & 하문선. (2011). 간편형 한국어 BFI(Big Five Inventory) 타당화 연구. 인간이해, 32(1), pp.47-65.
- 김희삼. (2014). 비교성향의 명암과 시사점. KDI Focus, 44.
- 백지선, 민경아. (2016). 병행적 혼합조사의 모드효과 분석. 응용통계연구, 29(5), pp.787-806.

- 백지선, 심규호, 홍영택, & 장덕현. (2017). 혼합조사의 모드효과 추정: 선택효과와 측정효과의 분리방법. *통계연구*, 22(3), pp.1-24.
- 보건복지부. (2024.2.21.).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청년 발굴 지원: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공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2024.6.30.).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2024).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2024~2028). 보건복지부.
- 서은국. (2021). 행복의 기원 [e-book 버전]. 21세기북스.
- 손병덕. (2020).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아리스토텔레스. (n.d.). 니코마코스 윤리학/정치학/시학. (손명현 역). 1978. 서울: 동서문화사.
- 오아영. (2017). 삶의 의미 척도 타당화(MIL): 삶의 의미-측정(MIL-M)과 삶의 의미-반영(MIL-R). [석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 이유미. (2016). 성격 5 요인과 행복의 관계 구조. *교육문제연구*, 22(2), 55-83.
- 이태진, 김동진, 박윤경, 이원진, 우선희, & 김지원. (202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X):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태진, 김성아, 이병재, 엄다원, 정해식, 최준영, Shun Wang, 전영섭, 김석호, 신혜란, 이봉주, 채수홍, 홍석철, 구서정, 유승우, 윤선민, 이수진, 정우연, & 채상원. (2021).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해식, 김성아. (2019). 한국인의 행복: 소득 및 자산 격차의 영향 분석. *사회복지정책*, 46(1), pp.185-213. <https://doi.org/10.15855/swp.2019.46.1.185>
- 조성겸, 김성중, & 강미나. (2021). 비면접원조사는 면접원조사만큼 신뢰할 만한가: 코로나시대의 사회조사 한계 극복을 위한 연구. *조사연구*, 22(3), pp.1-25.
- 최문실, 김태동, 명사은. (2023). 2023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최윤희. (2003). 스트레스, 통제소재 및 사회비교 경향성이 우울 정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임상심리학].
- 최지영, 이명진. (2021). 아동학대 인지 및 신고경험에 대한 모드효과: 대면조사와 웹조사의 비교. *조사연구*, 22(2), pp.129-152.
- 최창용, 김희삼, 우혜영. (2020). 체제전환 이후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변화에 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29(2), pp.25-56. <https://archives.kdischo ol.ac.kr/handle/11125/41640>
- 통계청. (2022.12.1.). 소득분배지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 l%2FstatHtml.do%3Flist_id%3D%26obj_var_id%3D%26seqNo%3 D%26docId%3D0319847830%26tblId%3DDT_1HDALF05%26vw_c d%3DMT_ZTITLE%26orgId%3D101%26conn_path%3DE1%26mar kType%3DS%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 6itmNm%3DEC%A0%84%EA%B5%AD%26.
- 통계청. (2024). 「사회조사」 통계정보보고서. 통계청.
- 통계청. (각 연도). 사회조사[데이터 세트].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 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20R&conn_path= I3.
- 한국행정연구원. (2021). 「사회통합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한국행정연구원.
- 한국행정연구원. (각 연도). 사회통합실태조사[데이터 세트]. 국가통계포털. http 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 0002&conn_path=I3.
- 한민, 류승아, & 김경미. (2013). 사회비교와 행복의 관계에서 문화적 자기관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4), pp.577-597.
- 한준, 김석호, 하상응, & 신인철. (2014). 사회적 관계의 양면성과 삶의 만족. *한국사회학*, 48(5), pp.1-24.
- 허종호, 민보경, 이채정. (2020). 「한국인의 행복조사」 연구(예비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국회미래연구원.

허종호, 민보경, 이상직, 이채정. (2022). 2022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2차조사): 3개년 트렌드 분석 보고서. 국회미래연구원.

허종호, 민보경, 이채정, 이상직. (2021).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및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연구 심층분석 보고서. 국회미래연구원.

Acemoglu, D., Shimer, R. (1999). Efficient Unemployment Insura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7(5), pp.893-928. <https://doi.org/10.1086/250084>

Adler, M. D., Decancq, K. (2022). Well-Being Measurement, In Alder, M. D., & Norheim, O. F. (Ed.), *Prioritarianism in Practice* (pp.128-171),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17/9781108691734.003>

Ahmed, I., Ishtiaq, S. (2021). Reliability and validity- Importance in Medical Research. *Journal of the pakistan Medical Association*, 71(10), pp.2401-2406. <https://doi.org/10.47391/JPMA.06-861>

Alwin, D. F. (1989). Problems in the estim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reliability of survey data. *Quality and Quantity*, 23(3), pp.277-331. <https://gss.norc.umd.edu/content/dam/gss/get-documentation/pdf/reports/methodological-reports/MR62%20Problems%20in%20the%20Estimation%20and%20Interpretation%20of%20the%20Reliability%20of%20Survey%20Data.pdf>

Baker, M., Gruber, J., & Milligan, K. (2008). Universal Child Care, Maternal Labor Supply, and Family Well-Being.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6(4), pp.709-745. <https://doi.org/10.1086/591908>

Baker, M., Gruber, J., & Milligan, K. (2019). The Long-Run Impacts of a Universal Child Care Program.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11(3), pp.1-26. <https://doi.org/10.1257/pol.20170603>

- Baldwin, M. W., Carrell, S. E., & Lopez, D. F. (1990). Priming relations hip schemas: My advisor and the Pope are watching me from the back of my mind.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6 (5), pp.435-454. [https://doi.org/10.1016/0022-1031\(90\)90068-W](https://doi.org/10.1016/0022-1031(90)90068-W)
- Benjamin, D. J., Cooper, K., Heffetz, O., & Kimball, M. S. (2023a). From Happiness Data to Economic Conclusions. *Annual Review of Economics*, 16(3), 359-391.
- Benjamin, D. J., Cooper, K., Heffetz, O., Kimball, M. S., & Zhou, J. (2023b). Adjusting for Scale-Use Heterogeneity in Self-Reported Well-Being (No. w31728).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Blanchflower, D. G. (2021). Is happiness U-shaped everywhere? Ag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145 countri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34(2), pp.575-624. <https://doi.org/10.1007/s00148-020-00797-z>
- Blanchflower, D. G., & Oswald, A. J. (2004). Well-being over time in Britain and the US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7-8), pp.1359-1386. [https://doi.org/10.1016/S0047-2727\(02\)00168-8](https://doi.org/10.1016/S0047-2727(02)00168-8).
- Blanchflower, D. G., Oswald, A. J. (2008). Is well-being U-shaped over the life cycle? *Social science & medicine*, 66(8), pp.1733-1749. <https://doi.org/10.1016/j.socscimed.2008.01.030>.
- Blanchflower, D. G., Oswald, A. J. (2009). The U-shape without controls: A response to Glenn. *Social science & medicine*, 69(4), pp.486-488. <https://doi.org/10.1016/j.socscimed.2009.05.022>.
- Blanchflower, D. G., Oswald, A. J. (2016). Antidepressants and age: A new form of evidence for U-shaped well-being through life.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127, pp.46-58. <https://doi.org/10.1016/j.jebo.2016.04.010>

- Blanchflower, D. G., Oswald, A. J. (2019). Do Humans Suffer a Psychological Low in Midlife? Two Approaches (With and Without Controls) in Seven Data Sets. In M. Rojas. (Ed.), *The Economics of Happiness: How the Easterlin Paradox Transformed Our Understanding of Well-Being and Progress* (pp. 439-453):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er.
- Brakus, J. J., Chen, W., Schmitt, B., & Zarantonello, L. (2022). Experiences and happiness: The role of gender. *Psychology & Marketing*, 39(8), pp.1646-1659. <https://doi.org/10.1002/mar.21677>.
- Buelens, B., Lann, J. V. D., Shouten, B., Brakel, J. V. D., Burger, J., & K lausch, T. (2012). Disentangling mode-specific selection and measurement bias in social survey, Discussion Paper 201211, Statistics Netherlands. file:///C:/Users/kihasa/Downloads/2012-11-x10-pub%20(1).pdf
- Cantril, H. (1965). *The Patterns of Human Concerns*.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Card, D., Krueger, A. B. (1993).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4(4), pp.772-793. <https://doi.org/10.3386/w4509>.
- Card, D., Johnston, A., Leung, P., Mas, A., & Pei, Z. (2015). The Effect of Unemployment Benefits on the Duration of Unemployment Insurance Receipt: New Evidence from a Regression Kink Design in Missouri, 2003-2013. *American Economic Review*, 105(5), 126-130. doi:doi: 10.1257/aer.p20151061
- Chaffin, L. Y., Corder, J. K. (2018). How do social security expenditures vary by state? The surprising impact of unemployment. *Journal of Public Policy*, 38(3), pp.305-328. <https://doi.org/10.1017/S0143814X17000277>.

- Chatterji, M. (2003). Designing and using tools for educational assessment. Allyn & Bacon.
- Cheng, T. C., Powdthavee, N., & Oswald, A. J. (2015). Longitudinal evidence for a midlife nadir in human well-being: Results from four data sets. *The Economic Journal*, 127(599), pp.126-142. <https://doi.org/10.1111/econj.12256>.
- Clark, A. E. (2003). Unemployment as a social norm: Psychological evidence from panel data. *Journal of labor economics*, 21(2), pp.323-351. <https://doi.org/10.1086/345560>.
- Clark, A. E., d'Albis, H., & Greulich, A. (2021). The Age U-shape in Europe: The Protective Role of Partnership.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19, pp.293-318. https://austriaca.at/0xc1aa5576_0x003c4630.pdf
- Clark, A. E., Georgellis, Y., & Sanfey, P. (2001). Scarring: The Psychological Impact of Past Unemployment. *Economica*, 68(270), pp.221-241. <https://doi.org/10.1111/1468-0335.00243>.
- Clark, A. E., Oswald, A. J. (1994). Unhappiness and unemployment. *The Economic Journal*, pp.648-659. <https://doi.org/10.2307/2234639>.
- Coplan, R. J., Zelenski, J. M., & Bowker, J. C. (2018). Leave well enough alone? The costs and benefits of solitude. In J. E. Maddux. (Ed.), *Subjective well-being and life satisfaction* (pp. 129-147). Routledge/Taylor & Francis Group. <https://doi.org/10.4324/9781351231879-6>
- Cullen, J. B., Gruber, J. (2000). Does Unemployment Insurance Crowd out Spousal Labor Supply?. *Journal of labor economics*, 18(3), pp.546-572. <https://doi.org/10.1086/209969>
- Boniwell, I., David, S. A., Ayers, A. C. (2013). *The Oxford Handbook of Happines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e Neve, J. E., & Sachs, J. D. (2020). The SDGs and human well-being: a global analysis of synergies, trade-offs, and regional differences. *Scientific Reports*, 10(15113). file:///C:/Users/kihasa/Downloads/s41598-020-71916-9.pdf
- Deaton, A., Stone, A. A. (2016). Understanding context effects for a measure of life evaluation: how responses matter. *Oxford Economic Papers*, 68(4), pp.861-870. <https://doi.org/10.1093/oep/gpw022>.
- Department of Finance. (2024). Budget 2025: Beyond GDP, Quality of Life Assessment, Government of Ireland.
- Di Tella, R., MacCulloch, R. (2006). Some Uses of Happiness Data in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0(1), pp.25-46. <https://doi.org/10.1257/089533006776526111>
- Di Tella, R., MacCulloch, R. J., & Oswald, A. J. (2003). The macroeconomics of happines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5(4), pp.809-827. <https://doi.org/10.1162/003465303772815745>.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pp.542-575.
- Diener, E., & Suh, E. (1997). Measuring quality of life: Economic, social, and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40(1-2), pp.189-216. <https://doi.org/10.1023/A:1006859511756>
- Dinis, J., Bragança, M. (2018). Quality of sleep and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a systematic review. *Sleep Science*, 11(4), pp.290-301. <https://doi.org/10.5935/1984-0063.20180045>.
- Easterlin, R. A. (2021). *An Economist's Lessons on Happiness*: Springer.
- Engen, E. M., Gruber, J. (2001). Unemployment insurance and precautionary saving.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47(3), pp.545-579. [https://doi.org/10.1016/S0304-3932\(01\)00051-4](https://doi.org/10.1016/S0304-3932(01)00051-4)
- Esterlin, R. A. (2021). *지적 행복론* [E-book]. 안세민 역. 2022. 월북.

- Farber, H. S., Rothstein, J., & Valletta, R. G. (2015). The Effect of Extended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Evidence from the 2012-2013 Phase-Out. *American Economic Review*, 105(5), pp.171-176. <https://doi.org/10.1257/aer.p20151088>
- Fleche, S., Smith, C., & Sorsa, P. (2011). Exploring determinants of subjective Wellbeing in OECD countries: evidence from the world value survey.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921,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5kg0k6zlc5k-en>
- Fogaça, N., & Junior, F. C. (2016). Is happy Worker more productive. *Management studies*, 4(4), pp.149-160. <https://doi.org/10.17265/2328-2185/2016.04.002>
- Frijters, P., Beaton, T. (2012). The mystery of the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and age.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82(2-3), pp.525-542. <https://doi.org/10.1016/j.jebo.2012.03.008>
- Frijters, P., Krekel, C., Sanchis, R., & Santini, Z. I. (2024). The WELLY: a new measure of social value and progress. *Humanities &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 11, 736. <https://doi.org/10.1057/s41599-024-03229-5>
- Gibbons, F. X., Buunk, B. P. (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comparison: Development of a scale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1), pp.129-142. <https://doi.org/10.1037/0022-3514.76.1.129>
- Giuntella, O., McManus, S., Mujcic, R., Oswald, A. J., Powdthavee, N., & Tohamy, A. (2023). The midlife crisis. *Economica*, 90(357), pp.65-110. <https://doi.org/10.1111/ecca.12452>
- Glenn, N. (2009). Is the apparent U-shape of well-being over the life course a result of inappropriate use of control variables? A comment

- entary on Blanchflower and Oswald (66: 8, 2008, 1733-1749). So
cial science & medicine, 69(4), pp.481-485. <https://doi.org/10.1016/j.socscimed.2009.05.038>
- Graham, C., Higuera, L., & Lora, E. (2011). Which health conditions ca
use the most unhappiness?. Health Economics, 20(12), pp.1431-
1447. <https://doi.org/10.1002/hec.1682>
- Graham, L., Oswald, A. J. (2010). Hedonic capital, adaptation and resil
ience.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76(2), pp.3
72-384. <https://doi.org/10.1016/j.jebo.2010.07.003>.
- Gruber, J., Mullainathan, S. (2006). Do cigarette taxes make smokers h
appier?. In Yew-Kwang Ng, Lok Sang Ho. (Ed). Happiness and P
ublic Policy, pp. 109-146. London: Palgrave Macmillan.
- Helliwell, J. F., Layard, R., & Sachs, J. D. (2012). World Happiness Rep
ort 2012. New York: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
work. https://s3.amazonaws.com/happiness-report/2012/World_Happiness_Report_2012.pdf
- Helliwell, J. F., Layard, R., Sachs, J. D., De Neve, J. E., Aknin, L. B., Wa
ng, S. (2023). World Happiness Report 2023. NY: The Sustainabl
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https://files.unsdsn.org/susta
nable-development-report-2023.pdf](https://files.unsdsn.org/sustainable-development-report-2023.pdf)
- Helliwell, J. F., Layard, R., & Sachs, J. D. (2023). The Happiness Agend
a: The Next 10 Years, Helliwell et al. (Eds.), 2023 World Happine
ss Report. New York: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
twork. [https://happiness-report.s3.amazonaws.com/2023/WHR
+23_Ch1.pdf](https://happiness-report.s3.amazonaws.com/2023/WHR+23_Ch1.pdf)
- Helliwell, J. F., Layard, R., Sachs, J. D., De Neve, J.-E., Aknin, L. B., &
Wang, S. (2024). 2024 World Happiness Report. University of Ox
ford: Wellbeing Research Centre. <https://happiness-report.s3.a>

- mazonaws.com/2024/WHR+24.pdf
- Iliescu, E. A., Coo, H., McMurray, M. H., Meers, C. L., Quinn, M. M., Singer, M. A., & Hopman, W. M. (2003). Quality of sleep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haemodialysis patients. *Nephrology Dialysis Transplantation*, 18(1), pp.126-132. <https://doi.org/10.1093/ndt/18.1.126>.
- Jebb, A. T., Tay, L., Diener, E., & Oishi, S. (2018). Happiness, income satisfaction and turning points around the world. *Nature Human Behaviour*, 2(1), pp.33-38. <https://doi.org/10.1038/s41562-017-0277-0>
- Kahneman, D., & Tversky, A. (1979).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The Econometric Society*, 47(2), pp.263-292. <https://www.jstor.org/stable/1914185>
- Kahneman, D., Deaton, A. (2010). High income improves evaluation of life but not emotional well-being. *Proc Natl Acad Sci U S A*, 107(38), pp.16489-16493. <https://doi.org/10.1073/pnas.1011492107>
- Kahneman, D., Thaler, R. H. (2006). Anomalies: Utility maximization and experienced utility.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0(1), pp.221-234. <https://doi.org/10.1257/089533006776526076>.
- Kassenboehmer, S. C., Haisken-DeNew, J. P. (2009). You're Fired! The Causal Negative Effect of Entry Unemployment on Life Satisfaction. *The Economic Journal*, 119(536), pp.448-462. <https://www.jstor.org/stable/20485327>
- Kimball, M. S., Raymond, C. B., Zhou, J., Zhou, J. Ohtake, F., & Tsutsui, Y. (2024). Happiness Dynamics, Reference Dependence, and Motivated Beliefs in U.S. Presidential Elections. NBER Working Paper 32078,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Knabe, A., Rätzl, S. (2011). Scarring or scaring? The psychological im

- pact of past unemployment and future unemployment risk. *Economica*, 78(310), pp.283-293. <https://www.jstor.org/stable/41236648>.
- Wilkemann, L., Wilkemann, R. (1995). Happiness and unemployment: a panel data analysis for Germany. *Applied Economics Quarterly*, 41(4), pp.293-307. <https://doi.org/10.5167/uzh-1189>.
- Lucas, R. E., Oishi, S., & Diener, E. (2016). What we know about context effects in self-report surveys of well-being: comment on Deaton and Stone. *Oxford economic papers*, 68(4), pp.871-876.
- Mahoney, J., (2023). Subjective Well-being Measurement, Current Practice and Frontiers. OECD Working Paper, No.17. Paris, OECD Publishing.
- Michalopoulos, C., Bloom, H. S., & Hill, C. J. (2004). Can propensity-score methods match the findings from a random assignment evaluation of mandatory welfare-to-work program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6(1), pp.156-179. <https://www.jstor.org/stable/3211665>.
- Morris, R. W., Kettlewell, N., & Glozier, N. (2021). The increasing cost of happiness. *SSM-population health*, 16, 100949
- Murray, G. (2003). The Seasonal Pattern Assessment Questionnaire as a measure of mood seasonality: a prospective validation study. *Psychiatry Research*, 120(1), pp.53-59. [https://doi.org/10.1016/s0165-1781\(03\)00147-1](https://doi.org/10.1016/s0165-1781(03)00147-1)
- Namazi, A. (2022). Gender differences in general health and happiness: a study on Iranian engineering students. *PeerJ*, 10, e14339. <https://doi.org/10.7717/peerj.14339>
- New Zealand Government. (2018). Budget 2019: Budget Policy Statement. <https://www.treasury.govt.nz/sites/default/files/2018-12/bps-2>

019.pdf

New Zealand Government. (2019a). Budget 2020: Budget Policy Statement. https://www.treasury.govt.nz/sites/default/files/2019-12/bps2020_2.pdf

New Zealand Government. (2019b). The Wellbeing Budget 2019. <https://www.treasury.govt.nz/sites/default/files/2019-06/b19-wellbeing-budget.pdf>

New Zealand Government. (2022a). Budget 2023: Budget Policy Statement. https://www.treasury.govt.nz/sites/default/files/2022-12/bps23_2.pdf

New Zealand Government. (2022b). Te Tai Waiora Wellbeing in Aotearoa New Zealand 2022. <https://www.treasury.govt.nz/sites/default/files/2022-11/te-tai-waiora-2022.pdf>

New Zealand Government. (2022c). The Living Standards Framework Dashboard. https://www.treasury.govt.nz/sites/default/files/2022-03/lsf-dashboard-apr22_2.pdf

New Zealand Government. (2023). Wellbeing Budget 2023: Support for Today Building for Tomorrow. <https://www.treasury.govt.nz/sites/default/files/2023-05/b23-wellbeing-budget.pdf>

New Zealand Government. (2024). Budget 2024: Budget at a Glance. <https://www.treasury.govt.nz/sites/default/files/2024-06/b24-at-a-glance.pdf>. <https://www.treasury.govt.nz/sites/default/files/2024-06/b24-at-a-glance.pdf>

Nicholson, W., Needels, K. (2006). Unemployment Insurance: Strengthe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ory and Policy.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0(3), pp.47-70. <https://pubs.aeaweb.org/doi/pdfplus/10.1257/jep.20.3.47>.

Nikolova, M., & Nikolaev, B. N. (2018). Family matters: involuntary par

- ental unemployment during childhood and subjective well-being later in life. Global Labor Organization Discussion Paper, No. 212. <https://www.econstor.eu/bitstream/10419/178633/1/GLO-DP-0212.pdf>
- OECD. (2024).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across OECD countries. Policy Insights.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Paris: OECD Publishing.
- ONS, (2024. 08. 08.). Quarterly personal well-being estimates: non-seasonally adjusted.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wellbeing/datasets/quarterlypersonalwellbeingestimatesnonseasonallyadjusted>
- Oswald, A. J., Proto, E., & Sgroi, D. (2015). Happiness and Productivity. *Journal of Labor Economics*, 33(4). <https://www.journals.uchicago.edu/doi/epdf/10.1086/681096>
- Pinto, S., Bencsik, P., Chuluun, T., & Graham, C. (2021). Presidential elections, divided politics, and happiness in the USA. *Economica*, 88(349), pp.189-207.
- Røed, K., Westlie, L. (2012). Unemployment Insurance in Welfare States: The Impacts of Soft Duration Constraints.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10(3), pp.518-554. <https://doi.org/10.1111/j.1542-4774.2011.01064.x>.
- Schimmack, U., Oishi, S. (2005). The influence of chronically and temporarily accessible information on life satisfaction judg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3), pp.395-406. <https://doi.org/10.1037/0022-3514.89.3.395>
- Schkade, D. A., Kahneman, D. (1998). Does living in California make people happy? A focusing illusion in judgments of life satisfaction

- n. *Psychological Science*, 9(5), pp.340-346. <http://www.jstor.org/stable/40063318>.
- Stone, A. A., Schwartz, J. E., Schkade, D., Schwarz, N., Krueger, A., & Kahneman, D. (2006). A population approach to the study of emotion: diurnal rhythms of a working day examined with the Day Reconstruction Method. *Emotion*, 6(1), pp.139-149. <https://doi.org/10.1037/1528-3542.6.1.139>.
- Strack, F., Martin, L. L., & Schwarz, N. (1988). Priming and communication: Social determinants of information use in judgments of life satisfac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8(5), pp. 429-442. <https://doi.org/10.1002/ejsp.2420180505>.
- Teeselink, B. K., Zauberman, G. (2023). The Anna Karenina income effect: Well-being inequality decreases with income.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212, pp.501-513. doi:<https://doi.org/10.1016/j.jebo.2023.05.036>
- The Treasury of New Zealand. (2024a). Current and Past Budgets : Key Budget documents from Current and Previous Budgets. <https://www.treasury.govt.nz/publications/budgets/current-and-past-budgets>
- The Treasury of New Zealand. (2024b). Living Standards Framework Dashboard. <https://lsfdashboard.treasury.govt.nz/wellbeing/>
- The W.K. Kellogg Foundation. (1998). Evaluation Handbook. <https://bj.ojp.gov/sites/g/files/xyckuh186/files/media/document/wk-kellogg-foundation.pdf>
- Titmuss, R. (1974). *Social Policy: An Introduct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 Tversky, A., & Kahneman, D. (1974).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Science, New Series*, 185(4157), pp.1124-113

1. <https://www2.psych.ubc.ca/~schaller/Psyc590Readings/TverskyKahneman1974.pdf>
- Tversky, A., & Kahneman, D. (1981). The framing of decisions and the psychology of choice.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211(4481), pp.453-458. <https://www.jstor.org/stable/1685855>
- United Nations. (2023). Our Common Agenda Policy Brief 4 - Valuing What Counts : Framework to Progress Beyond Gross Domestic Product. <https://www.un.org/sites/un2.un.org/files/our-common-agenda-policy-brief-beyond-gross-domestic-product-en.pdf>
- United Nations. (2024a). Summit of the Future : Policy Brief Overview. <https://www.un.org/sites/un2.un.org/files/our-common-agenda-policy-briefs-a-quick-summary.pdf>
- United Nations. (2024b).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sustainable-development-goals/>
- University of Oxford: Wellbeing Research Centre. (각 연도). World Happiness Report Data[데이터 세트]. <https://worldhappiness.report/data/>
- Vannieuwenhuyze, J., Loosveldt, G., & Molenberghs, G. (2010). A Method for Evaluating Mode Effects in Mixed-mode Surveys. *Public Opinion Quarterly*, 74(5), pp. 1027-1045. <https://doi.org/10.1093/poq/nfq059>
- Walters, L. (2024. 3. 22.). The Wellbeing Budget is dead. newsroom. <https://newsroom.co.nz/2024/03/22/the-wellbeing-budget-is-dead/>
- Ward, G., De Neve, J. E., Ungar, L. H., & Eichstaedt, J. C. (2021). (Un)happiness and voting in US presidential ele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20(2), pp. 370-383.

- Weiss, A., Bates, T. C. & Luciano, M. (2008). Happiness is a Personal(it
y) Thing: The generics of personality and Well-Being in a repres
entative sample. *Psychological Science*, 19(3), pp.205-210. [http
s://doi.org/ 10.1111/j.1467-9280.2008.02068.x](http://doi.org/10.1111/j.1467-9280.2008.02068.x)
- Welsch, H. (2008). The Social Costs of Civil Conflict Evidence from
Surveys of Happiness. *Kyklos*, 61(2), 320-340.
- YouGov, (n.d.) Life satisfaction, measured weekly. [https://yougov.co.u
k/topics/politics/trackers/life-satisfaction-measured-weekly](https://yougov.co.uk/topics/politics/trackers/life-satisfaction-measured-weekly).
- Young, C. (2012). Losing a Job: The Nonpecuniary Cost of Unemploym
ent in the United States. *Social Forces*, 91(2), pp.609-634. [https:
//doi.org/10.1093.sf/sos071](https://doi.org/10.1093.sf/sos071)



[부록 1]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조사」 조사표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인구·사회·경제 상황을 조사하고 연구·분석하며, 사회정책 및 사회보장제도를 수립·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복 및 삶의 질 측정과 정책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김성아 부연구위원)」의 일환으로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인의 행복 측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실험조사로, 실질적으로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증진하는 사회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근거로 활용될 것입니다.

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중 조사 참여에 동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약 2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조사 참여에 따른 위험이나 손실은 없습니다. 또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연락처 등)는 응답에 대한 사례(3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용도 이외, 수집하거나 분석에 활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응답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응답하기 불편한 내용은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조사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철회하고 참여를 중단해도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제34조(통계 작성사무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보보호를 위하여 응답한 내용은 데이터화하여 연구자만 열람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는 동의를 구하는 용도 이외 연구 종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및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에 따라 안전하게 폐기할 것입니다. 연구의 최종결과물(연구보고서 등)은 정보 비식별화 절차를 거친 이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에 의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

2024.5.

- ☐ 연구 책임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김 성 아 부연구위원 (044-287-8304)
☐ 연구 관련 문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한 수 진 연구원 (044-287-8114)



K I H A S 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상기의 내용에 동의하시고 조사에 응하시겠습니까?

☐ 동의함

☐ 동의 안 함

동의 시 안내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여성 ② 남성

SQ2. 주민등록상 귀하의 출생 연도는 언제입니까? [1개 선택, 오타 로직 확인]

SQ3. 귀하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도는 어디입니까? [1개 선택]

- | | |
|-----------|-----------|
| ① 서울특별시 | ② 부산광역시 |
| ③ 대구광역시 | ④ 인천광역시 |
| ⑤ 광주광역시 | ⑥ 대전광역시 |
| ⑦ 울산광역시 | ⑧ 세종특별자치시 |
| ⑨ 경기도 | ⑩ 강원특별자치도 |
| ⑪ 충청북도 | ⑫ 충청남도 |
| ⑬ 전북특별자치도 | ⑭ 전라남도 |
| ⑮ 경상북도 | ⑯ 경상남도 |
| ⑰ 제주특별자치도 | |

SQ4. 참여에 동의하신 이 조사는 5월 00일부터 00일까지 이메일 혹은 휴대폰 전화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이메일주소와 휴대폰 번호는 무엇입니까?

- 이메일주소: _____@_____

- 휴대폰번호: _____ - _____ - _____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이메일 혹은 휴대폰으로 5월 00일부터 00일까지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조사 안내

이 조사는 5월 00일부터 00일까지 조사 참여에 동의하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엠브레인리서치에서 수행하는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조사」입니다.

귀하께서는 2024년 5월 00일 조사 참여에 동의하셨지만,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응답하기 불편한 내용은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조사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철회하고 참여를 중단해도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모든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질문을 보시고 즉시 떠오르는 대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A. 행복

AQ1. 귀하는 전반적으로 귀하의 삶에 얼마만큼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점부터 ‘매우 만족한다’ 10점까지 중 응답해 주십시오. [1개 선택]

[illegible]

AQ2. 바닥이 0점이고 꼭대기가 10점인 사다리를 상상하세요. 사다리의 꼭대기는 당신의 삶에서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고, 사다리의 바닥은 당신의 삶에서 최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당신은 그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AQ3. 귀하는 어제 얼마만큼 행복하셨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0점부터 '매우 행복했다' 10점까지 중 응답해 주십시오. [1개 선택]

[illegible]

B. 삶의 질

BQ1. 귀하께 해당되는 사항을 응답해주시요. [1개 선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쉽게 침울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2) 조용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자주 우울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4) 수다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5) 걱정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사교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BQ2. 다음의 표현이 귀하의 생각과 얼마만큼 맞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1개 선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살면서 이룬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것과 비교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종종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다른 사람들과 나를 잘 비교하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와 비슷한 문제에 처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상황과 비슷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궁금한 무언가에 대한 타인의 생각을 알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BQ3. 귀하는 평소에 대면, 인터넷(SNS 등), 전화 등으로 사람들과 교류하십니까? [1개 선택]

	있다	없다
(1) 가족 또는 친척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	①	②
(2) 친구, 이웃, 동료 등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 (단순 업무상 관계는 제외)	①	②

BQ4.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함께 살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이 있으십니까? [1개 선택]

	있다	없다
(1)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①	②
(2)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①	②
(3)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①	②

D. 일반적 특성

D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여성 ②남성

DQ2. 주민등록상 귀하의 출생 연도는 언제입니까? [1개 선택, 오타 로직 확인]

DQ3. 귀하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도는 어디입니까? [1개 선택]

- | | |
|-----------|-----------|
| ① 서울특별시 | ② 부산광역시 |
| ③ 대구광역시 | ④ 인천광역시 |
| ⑤ 광주광역시 | ⑥ 대전광역시 |
| ⑦ 울산광역시 | ⑧ 세종특별자치시 |
| ⑨ 경기도 | ⑩ 강원특별자치도 |
| ⑪ 충청북도 | ⑫ 충청남도 |
| ⑬ 전북특별자치도 | ⑭ 전라남도 |
| ⑮ 경상북도 | ⑯ 경상남도 |
| ⑰ 제주특별자치도 | |

DQ4. 귀하를 포함해 현재 귀하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수는 몇 명입니까? 주민등록 기준이 아닌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을 응답해 주십시오. [1개 선택, 오타 확인]

_____로

DQ5. 귀하의 혼인상태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배우자 있음 (사실상의 혼인 관계 포함) ② 이혼
③ 별거 ④ 사별
⑤ 미혼

DQ6. 귀하의 교육 수준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종졸 이하
- ② 고졸
- ③ 대학 재학이나 수료, 졸업
- ④ 대학원 재학이나 수료, 졸업

DQ7. 현재 귀하가 살고 있는 주거의 점유 형태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 ① 자가

☐ ③ 보증금 있는 월세(사글세 또는 연세)

☐ ⑤ 무상

☐ ② 전세

☐ ④ 보증금 없는 월세(일세)

DQ8. 귀하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상용 임금근로자
- ② 임시 임금근로자
- ③ 일용 임금근로자
- ④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⑥ 무급가족종사자
- ⑦ 실업자(지난 4주간 일을 하지 않았지만 구직 활동을 한 자)
- ⑧ 비경제활동인구(주부, 학생, 고령자, 장애인, 구직단념자)

DQ9. 귀하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 정도입니까?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개 선택]

- ① 100만 원 미만
- ② 100~200만 원 미만
- ③ 200~300만 원 미만
- ④ 300~400만 원 미만
- ⑤ 400~500만 원 미만
- ⑥ 500~600만 원 미만
- ⑦ 600~700만 원 미만
- ⑧ 700~800만 원 미만
- ⑨ 800~900만 원 미만
- ⑩ 900~1,000만 원 미만
- ⑪ 1,000만 원 이상

DQ10. 귀하의 개인 월평균 소득은 얼마 정도입니까?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개 선택]

- ① 100만 원 미만
- ② 100~200만 원 미만
- ③ 200~300만 원 미만
- ④ 300~400만 원 미만
- ⑤ 400~500만 원 미만
- ⑥ 500~600만 원 미만
- ⑦ 600~700만 원 미만
- ⑧ 700~800만 원 미만
- ⑨ 800~900만 원 미만
- ⑩ 900~1,000만 원 미만
- ⑪ 1,000만 원 이상

조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시간을 내어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표시로 설문을 완료해 주신 분께 소정의 사례(3,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드리하고자 합니다. 사례품을 드리기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시나요?

상기의 내용에 동의하시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 안 함

[부록 2]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조사」 IRB 승인 결과

[부그림 1]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사 결과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사결과 통지서

다음과 같이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문서번호	홍 제2024-040호 (新RPMS 제2024-0268호)	발송일자	2024.05.16
연구과제명	[기본24-005-00]행복 및 삶의 질 측정과 정책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		
과제번호	P202400005		
연구책임자	(성명)김성아 (소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직위)부연구위원		
심사일자	2024.05.13~2024.05.16	심사형태	신속심사(재심의)
심사결과	승인 ☐	시정승인 ☒	재심의(보완) ☐ 부결 ☐
총 연구기간	2024-01-01 ~ 2024-12-31		
IRB 연구승인 유효기간	2024.05.16부터 2025.05.15까지	총 신청 연구기간이 IRB 연구승인 유효기간을 초과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지속심사' 승인을 받아야 연구지속 진행이 가능합니다. 연구종료 시 종료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내용

심사의견

(IRB의 권고사항, 변경요청사항 등 결정사항을 기재)

☐ 심의위원 의견의 반영 검토를 전제로 심의결과를 '시정승인'으로 결정함.

[검토의견 1]

○ 심의 의견이 잘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함.

[검토의견 2]

○ 기 검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잘 반영되어 승인함.

- 다만, 안정성 확보 조치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함께 안내되면 좋을 듯 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 응답한 내용은 데이터화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보안처리가 되어있는 본 연구의 연구진 컴퓨터에 파일로
보관할 예정입니다.

모든 연구자들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연구자께서는 제출하신 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와 다르게 연구를 진행하실 경우 다시 심의를 진행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의 진행과 관련된 보고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구윤리를 위하여 관련부처가 필요시 조사 및 감독 차원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연구책임자는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사안에 대하여 2회 이상만 재심을 하질 않습니다.

2024년 05월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 (4인)

[부록 3] 행복과 삶의 질 조사를 활용한 영향요인 분석

〈부표 1〉 행복과 삶의 질 조사를 활용한 영향요인 분석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삶의 만족			삶의 평가			어제 행복감					
여성	0.208 ^{***} (0.092)	0.384 ^{***} (0.081)	0.287 ^{***} (0.081)	0.331 ^{***} (0.089)	0.320 ^{***} (0.089)	0.466 ^{***} (0.080)	0.384 ^{***} (0.081)	0.481 ^{***} (0.087)	0.157 ^{***} (0.101)	0.326 ^{***} (0.090)	0.238 ^{***} (0.090)	0.306 ^{***} (0.098)
나이	-0.149 ^{***} (0.027)	-0.095 ^{***} (0.024)	-0.078 ^{***} (0.023)	-0.080 ^{***} (0.024)	-0.169 ^{***} (0.026)	-0.117 ^{***} (0.023)	-0.103 ^{***} (0.022)	-0.107 ^{***} (0.023)	-0.165 ^{***} (0.029)	-0.103 ^{***} (0.026)	-0.088 ^{***} (0.025)	-0.086 ^{***} (0.026)
나이 제곱/100	0.140 ^{***} (0.030)	0.081 ^{***} (0.026)	0.066 ^{***} (0.025)	0.070 ^{***} (0.026)	0.177 ^{***} (0.028)	0.123 ^{***} (0.025)	0.109 ^{***} (0.024)	0.114 ^{***} (0.025)	0.167 ^{***} (0.032)	0.102 ^{***} (0.028)	0.087 ^{***} (0.027)	0.085 ^{***} (0.028)
가구원 수	-0.021 (0.041)	-0.009 (0.034)	-0.007 (0.033)	-0.053 (0.036)	0.012 (0.039)	0.022 (0.034)	0.024 (0.033)	-0.014 (0.037)	-0.021 (0.045)	-0.009 (0.039)	-0.007 (0.038)	-0.067 (0.041)
혼인상태(준거집단=배우자 있음)												
이혼	-1.095 ^{***} (0.253)	-0.864 ^{***} (0.205)	-0.716 ^{***} (0.203)	-0.635 ^{***} (0.207)	-1.100 ^{***} (0.252)	-0.894 ^{***} (0.207)	-0.769 ^{***} (0.208)	-0.723 ^{***} (0.211)	-1.270 ^{***} (0.293)	-1.026 ^{***} (0.261)	-0.897 ^{***} (0.257)	-0.807 ^{***} (0.261)
별거	-2.482 ^{***} (0.709)	-1.742 ^{***} (0.517)	-1.552 ^{***} (0.463)	-1.425 ^{***} (0.445)	-1.409 ^{***} (0.541)	-0.749 ^{***} (0.404)	-0.572 ^{***} (0.340)	-0.481 ^{***} (0.316)	-2.256 ^{***} (0.671)	-1.475 ^{***} (0.477)	-1.287 ^{***} (0.411)	-1.166 ^{***} (0.419)
사별	-0.722 (0.510)	-0.563 (0.412)	-0.497 (0.403)	-0.414 (0.397)	-1.140 ^{***} (0.426)	-0.993 ^{***} (0.344)	-0.941 ^{***} (0.346)	-0.878 ^{***} (0.333)	-0.771 (0.514)	-0.594 (0.392)	-0.545 (0.379)	-0.372 (0.380)
미혼	-1.037 ^{***} (0.122)	-0.699 ^{***} (0.110)	-0.676 ^{***} (0.107)	-0.532 ^{***} (0.111)	-1.084 ^{***} (0.124)	-0.768 ^{***} (0.113)	-0.748 ^{***} (0.110)	-0.620 ^{***} (0.113)	-1.069 ^{***} (0.138)	-0.688 ^{***} (0.124)	-0.667 ^{***} (0.123)	-0.578 ^{***} (0.127)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삶의 만족				삶의 평가								여제 행복감
교육 수준(준거집단=중학교 졸업 이하)													
교육 수준(준거집단=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1.642** (0.591)	1.098+ (0.563)	0.986* (0.496)	0.567 (0.504)	1.958*** (0.518)	1.463*** (0.505)	1.377*** (0.451)	1.022** (0.462)	0.853 (0.632)	0.263 (0.590)	0.178 (0.536)	
	대학교 재학/수료/졸업	2.247*** (0.584)	1.577*** (0.558)	1.358*** (0.490)	0.876+ (0.499)	2.476*** (0.510)	1.864*** (0.500)	1.679*** (0.446)	1.258*** (0.457)	1.403* (0.621)	0.671 (0.583)	0.479 (0.528)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2.764*** (0.594)	1.897*** (0.567)	1.654*** (0.500)	1.102* (0.510)	2.918*** (0.520)	2.122*** (0.507)	1.916*** (0.454)	1.437*** (0.466)	1.766*** (0.633)	0.815 (0.594)	0.600 (0.540)	
주택 점유 형태(준거집단=자기)													
주택 점유 형태(준거집단=자기)	전세	-0.289* (0.129)	-0.255* (0.110)	-0.219* (0.107)	-0.185+ (0.110)	-0.222+ (0.128)	-0.193+ (0.113)	-0.161 (0.110)	-0.147 (0.112)	-0.219 (0.135)	-0.187 (0.118)	-0.151 (0.117)	
	보증금 있는 월세	-0.485** (0.157)	-0.394** (0.134)	-0.386** (0.129)	-0.309* (0.133)	-0.519*** (0.147)	-0.437*** (0.130)	-0.425*** (0.127)	-0.377*** (0.131)	-0.198 (0.171)	-0.100 (0.146)	-0.085 (0.143)	
	보증금 없는 월세	-0.533 (0.482)	-0.301 (0.434)	-0.302 (0.414)	-0.067 (0.401)	-0.556 (0.483)	-0.335 (0.446)	-0.323 (0.417)	-0.133 (0.406)	-1.002* (0.471)	-0.735+ (0.414)	-0.712+ (0.379)	
	무상	-0.546+ (0.296)	-0.300 (0.289)	-0.267 (0.289)	-0.091 (0.316)	-0.310 (0.316)	-0.084 (0.338)	-0.055 (0.337)	0.009 (0.357)	-0.542* (0.269)	-0.272 (0.300)	-0.245 (0.289)	
종사상 지위(준거집단=상용 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준거집단=상용 임금근로자)	임시 임금근로자	-0.418* (0.196)	-0.182 (0.164)	-0.122 (0.161)	0.097 (0.178)	-0.541*** (0.188)	-0.315+ (0.163)	-0.254 (0.161)	-0.001 (0.178)	-0.689*** (0.233)	-0.414* (0.205)	-0.347+ (0.199)	
	일용 임금근로자	-0.801*** (0.273)	-0.498+ (0.267)	-0.363 (0.259)	-0.111 (0.263)	-0.681*** (0.236)	-0.409+ (0.237)	-0.293 (0.232)	-0.027 (0.238)	-0.549* (0.277)	-0.227 (0.260)	-0.104 (0.258)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삶의 만족			삶의 평가			어제 행복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0.193 (0.296)	0.303 (0.255)	0.302 (0.250)	0.184 (0.258)	-0.241 (0.280)	-0.140 (0.214)	-0.133 (0.211)	-0.219 (0.221)	-0.171 (0.339)	-0.051 (0.285)	-0.040 (0.278)	-0.154 (0.28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0.565** (0.188)	-0.456*** (0.164)	-0.519*** (0.166)	-0.475*** (0.166)	-0.500*** (0.182)	-0.392** (0.162)	-0.447*** (0.161)	-0.406* (0.159)	-0.577*** (0.214)	-0.445* (0.185)	-0.504*** (0.184)	-0.459* (0.184)
무급가족종사자	-0.149 (0.309)	0.145 (0.275)	0.207 (0.253)	0.541+ (0.289)	-0.038 (0.321)	0.241 (0.285)	0.301 (0.281)	0.794*** (0.295)	-0.391 (0.352)	-0.054 (0.323)	0.011 (0.311)	0.424 (0.348)
실업자	-0.740*** (0.221)	-0.453* (0.197)	-0.429* (0.196)	-0.060 (0.237)	-0.715*** (0.220)	-0.448* (0.205)	-0.423* (0.203)	0.016 (0.237)	-0.602* (0.259)	-0.282 (0.235)	-0.254 (0.230)	0.191 (0.270)
비경제활동인구	-0.188 (0.125)	-0.056 (0.105)	0.023 (0.101)	0.308* (0.147)	-0.384*** (0.121)	-0.259** (0.105)	-0.191+ (0.101)	0.089 (0.133)	-0.288* (0.133)	-0.136 (0.114)	-0.065 (0.112)	0.103 (0.157)
실 거주지역(준거집단=서울)												
부산	-0.138 (0.181)	-0.108 (0.157)	-0.104 (0.153)	-0.056 (0.158)	-0.073 (0.171)	-0.037 (0.153)	-0.027 (0.154)	0.002 (0.157)	-0.179 (0.206)	-0.131 (0.178)	-0.121 (0.177)	-0.115 (0.182)
대구	-0.288 (0.203)	-0.226 (0.179)	-0.275 (0.172)	-0.207 (0.178)	-0.164 (0.194)	-0.108 (0.182)	-0.152 (0.176)	-0.083 (0.178)	0.111 (0.223)	0.177 (0.203)	0.132 (0.198)	0.191 (0.204)
인천	-0.593*** (0.195)	-0.433*** (0.165)	-0.430*** (0.157)	-0.445*** (0.158)	-0.303 (0.196)	-0.154 (0.169)	-0.147 (0.164)	-0.140 (0.163)	-0.524* (0.216)	-0.345+ (0.196)	-0.337+ (0.190)	-0.372+ (0.191)
광주	-0.245 (0.255)	0.041 (0.206)	0.047 (0.207)	0.107 (0.202)	-0.424+ (0.252)	-0.156 (0.205)	-0.148 (0.203)	-0.128 (0.199)	-0.136 (0.257)	0.188 (0.209)	0.199 (0.206)	0.225 (0.203)
대전	0.157 (0.238)	0.190 (0.203)	0.182 (0.191)	0.215 (0.196)	0.271 (0.230)	0.317+ (0.191)	0.320+ (0.182)	0.330+ (0.185)	0.051 (0.264)	0.112 (0.224)	0.119 (0.220)	0.145 (0.215)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삶의 만족			삶의 평가			어제 행복감					
울산	-0.233 (0.320)	-0.431 (0.295)	-0.375 (0.304)	-0.272 (0.319)	-0.260 (0.317)	-0.441 (0.292)	-0.393 (0.294)	-0.307 (0.314)	0.035 (0.349)	-0.181 (0.306)	-0.129 (0.312)	-0.006 (0.337)
세종	-0.295* (0.134)	-0.231* (0.113)	-0.244* (0.111)	-0.227* (0.116)	-0.204 (0.128)	-0.142 (0.113)	-0.152 (0.111)	-0.124 (0.113)	-0.173 (0.145)	-0.096 (0.125)	-0.106 (0.124)	-0.102 (0.128)
경기	-0.178 (0.266)	-0.190 (0.201)	-0.191 (0.196)	-0.229 (0.203)	-0.094 (0.266)	-0.100 (0.222)	-0.096 (0.221)	-0.139 (0.231)	-0.040 (0.327)	-0.045 (0.270)	-0.038 (0.269)	-0.087 (0.278)
강원	-0.488 (0.323)	-0.362 (0.288)	-0.377 (0.284)	-0.381 (0.266)	-0.309 (0.308)	-0.197 (0.278)	-0.208 (0.275)	-0.175 (0.275)	-0.344 (0.324)	-0.213 (0.261)	-0.223 (0.262)	-0.204 (0.270)
충북	-0.395 (0.264)	-0.394+ (0.239)	-0.459* (0.234)	-0.381 (0.247)	-0.404 (0.268)	-0.390+ (0.234)	-0.440+ (0.230)	-0.411+ (0.243)	-0.265 (0.320)	-0.243 (0.273)	-0.294 (0.263)	-0.288 (0.278)
충남	-0.203 (0.314)	-0.198 (0.292)	-0.290 (0.291)	-0.239 (0.293)	-0.712* (0.308)	-0.701* (0.276)	-0.776** (0.276)	-0.784** (0.278)	-0.489 (0.377)	-0.473 (0.327)	-0.549 (0.337)	-0.538 (0.355)
전북	-0.295 (0.302)	-0.205 (0.297)	-0.156 (0.282)	-0.156 (0.278)	-0.270 (0.305)	-0.175 (0.299)	-0.127 (0.277)	-0.102 (0.273)	0.074 (0.313)	0.194 (0.291)	0.248 (0.280)	0.264 (0.278)
전남	-0.230 (0.284)	-0.035 (0.251)	-0.070 (0.237)	-0.020 (0.244)	-0.121 (0.260)	0.056 (0.223)	0.028 (0.212)	0.104 (0.221)	-0.178 (0.285)	0.033 (0.240)	0.005 (0.236)	-0.000 (0.245)
경북	-0.532* (0.227)	-0.433* (0.192)	-0.401* (0.185)	-0.306 (0.190)	-0.461* (0.213)	-0.366* (0.181)	-0.340+ (0.178)	-0.260 (0.184)	-0.262 (0.227)	-0.146 (0.195)	-0.118 (0.191)	-0.025 (0.195)
경남	0.197 (0.333)	0.291 (0.318)	0.304 (0.302)	0.259 (0.301)	0.072 (0.312)	0.164 (0.300)	0.173 (0.302)	0.092 (0.317)	0.216 (0.436)	0.327 (0.368)	0.337 (0.358)	0.309 (0.368)
제주	-0.660 (0.411)	-0.698* (0.294)	-0.616* (0.308)	-0.504 (0.353)	0.100 (0.415)	0.065 (0.341)	0.140 (0.344)	0.037 (0.348)	-0.174 (0.369)	-0.217 (0.333)	-0.136 (0.346)	-0.366 (0.251)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삶의 만족			삶의 평가			어제 행복감					
신경성		-1.020 ^{***} (0.051)	-0.922 ^{***} (0.051)	-0.899 ^{***} (0.052)		-0.924 ^{***} (0.051)	-0.839 ^{***} (0.051)	-0.819 ^{***} (0.052)		-1.099 ^{***} (0.057)	-1.010 ^{***} (0.057)	-0.986 ^{***} (0.059)
외향성		0.421 ^{***} (0.060)	0.325 ^{***} (0.059)	0.327 ^{***} (0.061)		0.422 ^{***} (0.060)	0.335 ^{***} (0.059)	0.352 ^{***} (0.061)		0.521 ^{***} (0.066)	0.429 ^{***} (0.066)	0.428 ^{***} (0.067)
비교성향		0.113 (0.069)	0.083 (0.067)	0.064 (0.069)		0.153 [*] (0.068)	0.124 ⁺ (0.067)	0.107 (0.069)		0.203 ^{***} (0.077)	0.170 [*] (0.076)	0.160 [*] (0.079)
사회적 교류 없음												
가족이나 친척			0.031 (0.118)	0.079 (0.121)			0.009 (0.117)	0.079 (0.121)			-0.018 (0.128)	0.044 (0.131)
가족이나 친척 외			-0.070 (0.101)	-0.093 (0.104)			-0.094 (0.100)	-0.104 (0.103)			-0.101 (0.114)	-0.113 (0.118)
사회적 지지체계 없음												
아를 때 집안일 부탁			-0.385 ^{***} (0.097)	-0.370 ^{***} (0.099)			-0.391 ^{***} (0.096)	-0.393 ^{***} (0.098)			-0.427 ^{***} (0.109)	-0.428 ^{***} (0.111)
갑자기 큰돈 필요			-0.462 ^{***} (0.087)	-0.431 ^{***} (0.089)			-0.319 ^{***} (0.087)	-0.288 ^{***} (0.089)			-0.300 ^{***} (0.097)	-0.306 ^{***} (0.101)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			-0.348 ^{***} (0.120)	-0.328 ^{***} (0.124)			-0.320 ^{***} (0.118)	-0.337 ^{***} (0.121)			-0.349 ^{***} (0.133)	-0.312 [*] (0.137)

구분	(1)	(2)	삶의 만족				삶의 평가				어제 행복감			
월평균 가구소득(준거집단=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0.053 (0.313)					0.320 (0.313)				0.175 (0.350)	
200~300만 원 미만				-0.043 (0.266)					-0.022 (0.266)				0.050 (0.284)	
300~400만 원 미만				0.241 (0.271)					0.453+ (0.275)				0.583* (0.288)	
400~500만 원 미만				0.484+ (0.275)					0.400 (0.275)				0.624* (0.297)	
500~600만 원 미만				0.354 (0.279)					0.359 (0.282)				0.569+ (0.306)	
600~700만 원 미만				0.395 (0.295)					0.465 (0.296)				0.533+ (0.321)	
700~800만 원 미만				0.574* (0.293)					0.336 (0.292)				0.449 (0.317)	
800~900만 원 미만				0.681* (0.318)					0.641* (0.317)				0.740* (0.338)	
900~1,000만 원 미만				0.287 (0.354)					0.108 (0.343)				0.554 (0.383)	
1,000만 원 이상				0.672* (0.306)					0.722* (0.308)				0.799* (0.337)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삶의 만족				삶의 평가								어제 행복감
월평균 개인소득(준거집단=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0.269 (0.169)				0.058 (0.169)				0.019 (0.199)	
200~300만 원 미만				0.313+ (0.160)				0.385** (0.148)				0.259 (0.173)	
300~400만 원 미만				0.453* (0.177)				0.400* (0.168)				0.163 (0.196)	
400~500만 원 미만				0.299 (0.200)				0.408* (0.189)				0.134 (0.217)	
500~600만 원 미만				0.640** (0.232)				0.873*** (0.219)				0.662*** (0.250)	
600~700만 원 미만				0.727** (0.276)				0.665** (0.241)				0.522+ (0.293)	
700~800만 원 미만				1.050*** (0.316)				1.299*** (0.361)				0.814* (0.356)	
800~900만 원 미만				0.597 (0.417)				0.421 (0.520)				0.634 (0.558)	
900~1,000만 원 미만				-0.529 (0.995)				-0.435 (0.972)				-0.459 (0.356)	
1,000만 원 이상				0.622+ (0.378)				-0.079 (0.375)				0.598 (0.487)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삶의 만족				삶의 평가				어제 행복감		
상수항	8.503 *** (0.850)	8.846 *** (0.852)	9.122 *** (0.791)	8.843 *** (0.829)	7.929 *** (0.793)	7.907 *** (0.802)	8.159 *** (0.750)	7.781 *** (0.783)	9.554 *** (0.923)	9.380 *** (0.915)	9.650 *** (0.866)	9.084 *** (0.924)
유호표본	2000	2000	2000	1924	2000	2000	2000	1924	2000	2000	2000	1924
adj. R-sq	0.114	0.346	0.381	0.394	0.125	0.329	0.356	0.373	0.077	0.316	0.341	0.349

주: 괄호 안 수치는 오차항의 이분산성에 강건한 표준오차임. + p<0.1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조사」 원자료 분석.



Abstract

Measuring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for Social Policy-Making

Project Head: Kim, Seonga

The overarching objective of social policy is to enhance people's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This study examines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measurements of happiness, an abstract experience, and quality of life, a multidimensional concept. Furthermore, it aims to propose ways to apply these findings in the field of social policy. Firstly, regarding content validity, happiness—an abstract experience—is quantified using various measures, including overall life satisfaction, life evaluation, and emotional well-being. Secondly, an experimental survey assessing the criterion validity of happiness measurements indicates that responses can b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mode and framing effects. Therefore, survey design must be taken into account when interpreting measurement results. Thirdly, our analysis demonstrates a statistically consistent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measurements and quality-of-life measurements acros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is suggests that when using representative survey data, the measurements of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can be considered reliable. Taken together, it is essential to actively utilize valid and reli-

Co-Researchers: Min, Kichae·Han, Sujin

able happiness measurements in order to enhance citizens' happiness through social policy.

Key word : Happiness, Quality of Life, Validity, Reliability, Policy Use